

조충 趙冲 지식 誌石¹⁾

A-1) 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修文殿大學士修國史諡文正公趙公墓銘并序

a-1) 수태위(守太尉)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 수국사(修國史)이고, (-) 이며, 시호(諡號)로 문정공(文正公)을 받은 조공(趙公) 묘(墓)의 명(銘)과 함께 쓴 서문(序文).

B-1) 公諱冲字湛若橫川人也。閣門祇候。□□□□。大保諱正臣之曾孫。閣門祇候。追贈司空。尚書左僕射諱時彥之孫。金紫光祿大夫。特進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上柱國。判吏部事。太子大師。贈諡文景公諱永仁之子。母鈴平郡夫人尹氏。實推誠奉議配饗功臣。鈴平伯贈諡文肅公諱灌之孫。平章事。上柱國。贈諡文康公諱彥頤之子。直史館諱子固之女也。

b-1) 공(公)의 이름(諱)은 충(冲)이고,²⁾ 자(字)는 담약(湛若)이며, 횡천현(橫川縣) 사람이다. 함문지후(閣門祇候), □□□□(□□□□), 태보(大保)를 지낸 정신(正臣)의³⁾ 증손(曾孫)이고, 함문지후(閣門祇候) 추증사공(追贈司空), 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인 시언(時彥)의⁴⁾ 손자이며,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특진삼중대광(特進三重大匡)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문하시중(門下侍中), 수문전 대학사(修文殿大學士), 감수국사(監修國史), 상주국(上柱國), 판이부사(判吏部事), 태자태사(太子大師)로 문경공(文景公)에 추증(追贈)된 영인(永仁)의⁵⁾ 아들이다. 어머니(母)는 영평군부인(鈴平郡夫人) 윤씨(尹氏)

1) 지식(誌石) : (후에 무덤의 주인이 쉽게 찾아내도록)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일, 졸년(卒年), 행적(行蹟), 무덤의 방향 따위를 적어 무덤 앞에 묻는 판석(板石), 또는 도판(陶板).

2) 조충(趙冲) : 1171(명종 1)~1220(고종 7).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횡천(橫川). 자는 담약(湛若). 시중(侍中) 영인(永仁)의 아들이다. 음서(蔭敍)로 벼슬에 올라 태학(太學)에 들어가 공부했고, 명종 때 급제해 내시(內侍)에 임명되었다. 1209년(희종 5)에 국자제주(國子祭酒), 1211년에는 대사성 한림학사로서 동지공거(同知貢舉)를 겸임하였으며, 동북면병마사·예부상서(禮部尙書)를 거쳐 1216년(고종 3)에는 문무를 겸비했다고 해 추밀부사 한림학사승지(樞密副使翰林學士承旨)로서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그 해에 거란군이 북방에 침입하자 참지정사(參知政事) 정숙첨(鄭叔瞻)이 행영중군원수(行營中軍元帥)가 되었는데, 그 휘하의 부원수로서 경도(京都) 사람 가운데 중군 가능자와 승군(僧軍)을 모아 출정하였다. 이듬해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정방보(鄭邦輔)로 원수가 교체된 뒤 염주(鹽州)에서 적병을 물리쳤으나, 안주 태조탄(太祖灘)까지 추격했다가 패배해 파직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여진족의 황기자군(黃旗子軍)이 압록강을 건너 인주(麟州)·용주(龍州)·정주(靜州) 등지의 경계 내에 침입하자 서북면병마사가 되어 이를 대파하고, 그 공으로 파면 이전의 관작으로 복직되었다. 1218년 수사공 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가 되어 개경으로 돌아왔으나, 거란족의 침입이 날로 심해지고 관군이 유약해 복속시키지 못하자, 다시 서북면원수가 되어 김취려(金就礪)·정통보(鄭通寶) 등을 인솔하고 출정,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이에 거란군이 강동성(江東城)에 들어가 웅거하게 되었다. 이듬해 몽고·동진(東眞)군과 연합해 강동성을 공격, 거란군의 항복을 받고 몽고군 원수인 합진(哈眞)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뒤 개선헤 정당문학 판예부사(政堂文學判禮部事)에 오르고, 곧이어 수태위 동중서문하시랑평장사 수국사(守太尉同中書門下侍郎平章事修國史)가 더해졌다. 그가 죽자 3일간 조회를 철했으며, 개부의동삼사 문하시중(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이 추증되고, 고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3) 조정신(趙正臣) : 미상.

4) 조시언(趙時彥) : 미상.

5) 조영인(趙永仁) : 1133(인종 11)~1202(신종 5).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횡성(橫城). 상서 시언(時彥)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비범해 재상의 기량이 있었고, 박학해 글을 잘하였다. 의종 때 과거에 급제, 전주서기(全州書記)가 되어 정사에 명성이 있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태자(太子)의 보도(輔導)를 맡았고, 1174년(명종 4)에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郎)으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금나라에 다녀왔다. 뒤에 승선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은 일이 많아 주위의 칭찬을 받았다. 1185년에 우승선으로 국자감시(國子監試)의 시원(試員)이 되어 시·부(詩賦)로 최문목(崔文牧) 등, 십운시(拾韻詩)로 정광우(丁光祐) 등과 명경(明經) 5인을 뽑았다. 1190년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가 되었고, 이듬해 참지정사(參知政事)·정

로, 추성봉의배향공신(推誠奉議配饗功臣), 영평백(鈴平伯)으로 문숙공(文肅公)에 추증(追贈)된 윤관(灌)의6 증손녀이고, 평장사(平章事) 상주국(上柱國)으로 문경공(文康公) 윤언이(彦頤)의7 아들인 직사관(直史館) 윤자고(子固)의8 딸이다.

B-2) 公 生一月而大夫人見背及有識 哀慕寔深 孝友尤篤 故家名爲孝童。自幼 嗜學能文 以家蔭從仕 補 刊定都監判官。入大學考藝 累中優等 登上舍。

b-2) 1171년(辛卯, 명종 1, 1세) 공(公)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大夫人)를 여윈 것을9 알고, 슬피하고 사모하는 생각이 매우 깊었고, 효성스러움과 우애함이 더욱 돈독해져 집안사람들이 효동(孝童)이라고 일렀다. 어렸을 때부터 배움을 좋아하고 글 짓는데 능숙하였는데, 집안의 문음(門蔭)으로 임관하여 간정도감(刊定都監) 판관(判官)에 보임(補任)되었다. 대학(大學)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여러 차례 우등(優等)을 하여 상사생(上舍生)이 되었다.10)

C-1) 年甫弱冠 擢進士第 屬籍內侍。□11)遷至閣門祇候試尙食奉御賜緋衣銀魚 改戶部員外郎賜金紫□工部郎中·大子文學。

c-1) 약관(弱冠, 1190년, 경술, 명종 20, 20세)의 나이에 국자감 시험12)에 합격하여 내시(內侍)에 적(籍)을 두게 되다. 이후 여러 차례 벼슬을 옮겨 합문지후(閣門祇候), 시상식봉어(試尙食奉御) 사비의은어(賜緋衣銀魚)가 되고, 다시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 사금자□(賜金紫□), 공부낭중(工部郎中), 태자문학(大子文學) 등을 역임하였다.

C-2) 明昌七年 奉使如金。至客省幕 中使與執禮官來。煩□殿庭禮數 至皇帝 問國王安否 便跪奏國王臣某之一節。□曰。“君上之諱 非禮也” 中使曰。“此流例也。不可易 ”。公曰。“小大雖殊 事君之禮一也。豈大國而強人 以非禮乎。吾 不忍□進寡君之諱”。中使 再三致詰 知不可奪。遂引入殿中行

당문학(政堂文學),한림학사승지가 되었다. 1192년에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진사를 뽑아 손희작(孫希綽) 등 29인을 급제시켰다. 1194년에 수태위상주국(守太尉上柱國), 1196년에 권판이부사(權判吏部事)가 되었다. 이듬해 판이부사(判吏部事)가 되었고, 이어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 감수국사(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郎平章事監修國史)가 되었다. 1198년(신종 1)에 금나라 사신이 와서 전왕(前王 : 명종)이 양위한 사유를 묻고 직접 만나보려 하였다. 이에 “전왕은 남주(南州)에서 요양 중이나 노정이 30일 걸리는 거리로 만나보려면 2~3개월이나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여 금나라 사신을 되돌려 보내 최충헌(崔忠獻)의 왕의 폐립으로 야기된 금나라와의 외교문제를 무난히 해결하였다. 1204년 문하시중으로 치사(致仕)하였다. 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횡성의 세덕사(世德祠)에 향사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6) 윤관(尹灌) : ?~1111(예종 6). 고려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 태조를 도운 삼한공신(三韓功臣) 신달(莘達)의 현손이며,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少監)을 지낸 집형(執衡)의 아들.

7) 윤언이(尹彦頤) : ?~1149(의종 3). 고려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금강거사(金剛居士). 문하시중을 지낸 관(灌)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 인종 때 기거랑(起居郎)이 되어 좌사간(左司諫) 정지상(鄭知常)·우정언(右正言) 권적(權適) 등과 정치의 득실을 논해 왕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다.

8) 윤자고(尹子固) : 미상.

9) 견배(見背) : 아버지의 죽음.

10) 상사(上舍) : 고려시대의 국학(國學)인 국자감(國子監)의 교육과정. 구체적으로는 예종 때 국학에 설치된 7재(七齋)를 가리킨다. 흔히 삼사제(三舍制)라 하여 외사(外舍)·내사(內舍)·상사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중 최고위 과정을 일컫는데, 이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기숙하던 건물 또한 상사라고 불렀다.

11) □ : 역(歷)으로 추정됨.

12) 진사(進士) : 고려 때 국자감시(國子監試)의 별칭.

禮 一如公意。復命。上開大嗟 賞之曰。“使於四方 不辱君命 其爾之謂乎”。

c-2) 1196년(병진, 명종 26, 26세)¹³⁾ 왕명을 받들어 금(金)나라에 갔다. 예빈성(禮賓省)의¹⁴⁾ 막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금나라의) 중사(中使)가¹⁵⁾ 집례관(執禮官)과¹⁶⁾ 함께 왔다. (그와 함께) 황제의 궁전 뜰에서¹⁷⁾ 행하는 예(禮) 몇 가지를 검토하다가, 황제 앞에 가서 (우리) 국왕의 안부를 물으면, 무릎을 꿇고 상소(上疏)하면서 ‘국왕(國王) 신(臣) 모(某)’라고 (말해야 하는) 구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¹⁸⁾ (이에) 공(公)이 말하길,¹⁹⁾ “(모 某라는 구절을 써서) 임금의²⁰⁾ 이름(諱)을 피(避)하는 것은²¹⁾ 예(禮)가 아니다”라고 하니, (이에 금나라 측) 중사(中使)가 말하기를 “이런 사례(흐름)는 앞선 예가 있으니, 글자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공(公)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존중하는 것이²²⁾ 비록 특별하기는 하지만, 임금을 섬기는 예(禮)는 한 가지가 아닌가. 어찌 대국(大國)이 억지로 사람을 예의 없이 만드는가. 나는 차마 우리 임금(寡君)²³⁾의 이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금나라 측) 중사(中使)가 두세 차례 따졌으나,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래서 금나라 황제의) 대궐에 들어가서²⁴⁾ 행한 예(禮)는 공(公)의 뜻과 딱 맞았다. (명종) 임금이 이 말을 듣고,²⁵⁾ 크게 감탄하고 상(賞)을 주면서 말하기를 “세상(四方) 사람들이, 임금의 명령을 욕되지 않게 한 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대를 일컨나 보다”라고 하였다.

C-3) 明年。拜大僕少卿·太子宮門郎。出按楊廣·忠淸等路。輜車所指 皆有威愛。

c-3) 1197년(정사, 명종 27, 27세) 태복소경(大僕少卿), 태자궁 문랑(太子宮門郎)에 임명되었다가, 양광(楊廣), 충청(忠淸) 지역에 나가 안찰(按察)하였다.

C-4) 壬戌。丁²⁶⁾文景公憂哀毀如禮外。除歷禮兵吏三部侍郎□□東宮。遷國子祭酒·知郡省。

c-4) 1202년(임술, 신종 5, 32세) 윤언이(尹彦頤, 文景公, 1149년 卒)를 모시는 일이 예(禮)에서 벗어나는 것을 슬피하였다. 이후 예부와 병부, 이부 등 삼부(三部) 시랑(侍郎) 과 동궁(□□東宮)을 역임하고, 국자제주(國子祭酒)를 거쳐 군수(郡守, 知郡)가 되어 일을 맡게 되었다.

C-5) 戊辰 春。以兵馬使 出鎮東北路。革弊興利 剖決如流 甚得將吏之心。

c-5) 1208년(무진, 희종 4, 38세) 봄, 병마사(兵馬使)로 동북로(東北路)에 나갔다. 이 지역에서 폐단을 없애고 이익을 늘리며 판결하는²⁷⁾ 일이 흐르는 물과 같아 장리(將吏)들의 마음을 얻었다.

13) 명창(明昌) : 금(金)나라 장종(章宗)의 연호.

14) 객성(客省) : 예빈성(禮賓省)의 별칭.

15) 중사(中使) : 궁중에서 임금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

16) 집례관(執禮官) : 의식(儀式)을 주관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직임(職任).

17) 전정(殿庭) : 궁전 뜰.

18) □□ : 이 부분을 추정한 것임.

19) □曰 : 이 부분에서 추정된 것임.

20) 군상(君上) : 신하가 임금을 이르는 말.

21) □君上之諱 : 여기서 추정된 것임.

22) 소대(小大) : 이소사대(以小事大)를 말함.

23) 과군(寡君) : 자기 나라의 임금을 다른 나라의 임금에 대해서 겸손한 뜻으로 일컫는 말.

24) 인입(引入) : 안으로 끌어 들임.

25) 상개(上開) : 상문(上聞)으로 추정됨.

26) 정(丁) : 윤(尹)으로 추정됨.

C-6) 己巳 主□□。□□²⁸⁾ 秋。穎秀等六十六人。

c-6) 1209년(정사, 희종 5, 39세)에는 □□을 주관하였고, 가을에는 영수(穎秀)²⁹⁾ 등 66인을 뽑았다.

C-7) 辛未。加大司成·寶文閣學士·知制誥。俄知禮部。

c-7) 1211년(신미, 희종 7, 41세)에는 (관직에) 대사성(大司成),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 지제고(知制誥) 등을 더하였고, 문득 예부(禮部)를 맡았다.

C-8) 是年 秋。同知禮部貢舉 得姜昌瑞等二十八人。

c-8) 이해 가을에는 예부(禮部)의 공거(貢舉)로서³⁰⁾ 강창서(姜昌瑞)³¹⁾ 등 28명을 뽑았다.

C-9) 癸酉 秋。今上卽位 冬。拜翰林學□□□□尙書。

c-9) 1213년(계유, 강종 2, 43세) 가을 고종(高宗)이³²⁾ 즉위하였고, 겨울에는 한림학사(翰林學□)와 상서(□□尙書)에 임명되었다.

C-10) 甲戌 秋。又以兵馬使 出鎮西北路。其□馭之方 一似於東路 而威望加焉。後發採訪使。考□吏□□蹟奏公爲最。拜銀青光祿大夫·副樞密使·吏部尙書·上將軍·翰林學士·承旨。

c-10) 1214년(갑술, 고종 1, 44세) 가을 다시 병마사(兵馬使)로 서북로(西北路)에 나갔다. 병마사 일을 맡아 하는 방법이 동로(東路)에서와 한결 같아서, 위세와 명망이 더욱 높아졌다. 후에 채방사(採訪使)를 보내, 지방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보고하였는데, 공(公)이 최(最, 최상등)를 받았다.³³⁾ 은青光록대부(銀青光祿大夫) 부추밀사(副樞密使), 이부상서(吏部尙書), 상장군(上將軍),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에 임명되었다.

C-11) 丙子 冬。以副元帥 出征契丹賊。訓練齊整 成軍而出。然而時元帥 剛愎自專。公性寬廓 不甚力校 故以失□□績 俱罷 。

27) 부결(剖決) : 판결.

28) □□ : 是年으로 추정됨.

29) 영수(穎秀) : 미상.

30) 공거제(貢舉制) : 고려시대 과거시험관제(科擧試驗官制). 원래 고대 중국의 제후나 지방장관이 매년 천자에게 유능한 인물을 천거하던 제도였으나,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수나라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선비를 뽑는 주임관으로 지공거(知貢舉)를 둔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쌍기(雙冀)를 지공거로 임명한 뒤부터 과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공거를 임명하였고, 그 뒤 972년(광종 23) 동지공거를 더 두었다가 폐지하였다. 977년(경종 2) 친시(親試)에 국한된 독권관제(讀卷官制)를 실시하였고, 996년(성종 15) 지공거를 도고시관(都考試官)으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환원시켰다. 1083년(문종 37) 다시 동지공거를 두어 상례(常例)로 확정하였다. 그러다가 1315년(충숙왕 2) 지공거를 고시관(考試官), 동지공거를 동고시관(同考試官)이라 개칭하였으나 1330년 다시 환원시켰다. 대체로, 이부(二府)에서 지공거, 경(卿)·감(監)이 동지공거가 되었으나 학식이 뛰어나 학사를 겸대한 자가 임명되었다. 한편, 국속(國俗)에 지공거·동지공거를 학사(學士)라 칭하고 급제자인 문생(門生)은 은문(恩門)이라 하여 좌주(座主)와 문생의 예를 매우 중히 여겼다.

31) 강창서(姜昌瑞) : 미상.

32) 금상(今上) : 고려 고종(高宗)을 말함.

33) 최(崔) : 전최(殿最) 상의 최(崔)를 말함. 전최(殿最)는 고려·조선시대 경외관원(京外官員)의 근무 상태를 여러 면에서 조사해 성적을 매기는 고과(考課), 또는 그렇게 하던 기준. 전(殿)은 근무평정 고과에서 최하등의 등급을 말하고 최(最)는 최상등을 말하는데, 주로 합칭해 고과평정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c-11) 1216년(고종 3, 46세) 부원수(副元帥)로서 거란적(契丹賊)을³⁴⁾ 막으려 출정하였다. 가지런히 훈련을 마치고 군(軍)을 이루어 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수(元帥)를 맡고 있던 정방보(鄭邦甫)가³⁵⁾ 고집이 세고 까다로워³⁶⁾ 스스로 다 하려고 하였다. 공(公)의 성품이 너그러워서 (정방보를) 힘써 가르치지 못하였으므로, □적(□績)을 잃고 함께 파직을 당했다.³⁷⁾

C-12) 至丁丑 秋。朝廷 以公威重且有遺愛 復起公爲西北路兵馬使。□□見公來 皆忻然 無不盡力爲用。由是黃旗·黑紺等 群賊銷沮。

c-12) 1217년(정축, 고종 4, 47세) 가을, 조정(朝廷)에서는 공(公)이 위중(威重)하고 유애(遺愛)가³⁸⁾ 있다고 해서 다시 공을 불러 서북로(西北路) 병마사(兵馬使)로 삼았다. (서북면 사람들은) 공(公)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당연하다고 여기고 힘을 다하여 쓰지 않음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여진의) 황기자(黃旗子)와 흑감(黑紺) 등 무리 도적들을 흠어지게 만들고 저지시킬 수가 있었다.³⁹⁾

C-13) 明年。又大敗丹賊子壻等 皆得蔭其功。夏。得替還京師。拜金紫光祿大夫·守司空·左僕射。

c-13) 1218년(무인, 고종 5, 48세) 거란적(契丹賊) 자서(子壻)⁴⁰⁾ 등을 대패(大敗)시키고, 그 공(功)으로 음직(蔭職)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해) 여름 교체되어 개경(京師)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수사공(守司空), 좌복야(左僕射)에 임명되었다.

C-14) □□⁴¹⁾ 秋。□復熾 朝廷更謀軍帥。上宰晉康崔公奏。無以易公 卽受鉞□賊。壘戰再捷 賊畏□入保岱州城。

c-14) 1219년(기묘, 고종 6, 49세) 가을 (전쟁의 기운이?) 다시 치열해지자,⁴²⁾ 조정(朝廷)에서는 다시 군대

34) 거란적(契丹賊) : 금산(金山) 왕자의 침입을 말함.

35) 정방보(鄭邦甫) : ? ~ 1226(고종 13). 고려 후기의 무신. 1198년(신종 1)과 이듬해에 예부시랑으로 각각 조공사(朝貢使)가 되어 금(金)나라에 다녀왔다. 1211년(희종 7) 상장군으로 최충헌(崔忠獻)의 살해사건에 관련된 사약(司質) 정윤시(鄭允時) 및 환관들을 국문하여 내시낭중(內侍郎中) 왕준명(王準明) 등 주모자를 색출하였다. 1215년(고종 2) 추밀원부사로서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使) 금의(琴儀)와 함께 최충헌의 측근에 있었다. 거란이 침입하자 1217년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서 정숙침(鄭叔瞻) 대신에 원수가 되어 개경을 방어하고 조충(趙食)과 더불어 염주(鹽州)에서 적을 퇴각시켰다. 이듬해 안주(安州 : 황해도 재령)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군하였으나 태조탄(太祖灘 : 평안북도 박천)에서 대패하여 어사대의 탄핵으로 파면되었다. 1220년 평장사에 이르렀다가 안동부사로 좌천되고, 1226년 참지정사(參知政事)로서 죽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36) 강팍(剛愎) : 고집이 세고 까다로움. (성미가) 깔깔하고 팍팍함.

37) 파직(罷) : 『고려사』 권103 조충 전에는 거란유종과의 전투에서 정방보, 조충이 패전하여 파직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38) 유애(遺愛) : 고인(故人)이 생전에 아끼던 유물. 고인의 인애(仁愛)한 유풍(遺風).

39) 군적소저(群賊銷沮) : 『고려사』 권103 조충 전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 전투로 적군 5,010명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0) 자서(子壻) : 미상.

41) □□ : 기묘(己卯)로 추정됨.

42) □복치(□復熾) : 전쟁의 기운이 다시 치열해짐. 1216년(고종 3) 8월에 거란후에 금산왕자는 압록강-영산진-정용진을 공격, 고려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고려와 거란 유족(遺族)과의 전쟁은 1219년(고종 6) 정월 거란의 함사(喊捨) 왕자가 강동성(江東城)에서 목매어 자살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13세기 초 몽고(후의 元)가 대륙 북부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금(金)의 세력이 약화되자, 중국 북부지역에서는 요(遼)를 제압했던 금(金, 여진)에 대항하여, 거란의 남은 무리(거란 遺族·遺種)들이 반기를 들었다. 1212년(강종 1) 거란인 야율유가(耶律留哥)가 용안(隆安, 지금의 農安)에서 10여만 명을 모아 함평(咸平, 지금의 開原)을 도읍으로 하고 스스로 요왕(遼王)이라

와 장수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최충헌(上宰 晉康 崔公)이 상소를 올려 공(公)을 바꿀 수 없다고 한 즉, 곧 부월(斧鉞)을⁴³⁾ 주어 적을 막게 하니, (공이) 성(城)을 놓고 다투는 전투에서 두 번이나 크게 대승리를 거두니, 적(賊)이 이를 두려워하여 대주성(岱州城) 안으로 들어가 막으려고 하였다.⁴⁴⁾

C-15) 時會有蒙古國軍帥合朶·札刺等 率勝兵萬餘人 自東鄙入□拔岱州。只請和□□我國 復讎契丹之
□ 請於公軍□。公卽奏聞。先是 蒙古國 遣四十餘人 賚牒乘船 船 □□□定州 請如今日講和事。
朝廷議以爲莫是契丹遺種。一般人僞作蒙古文字名 復讎契丹 實欲□□□耶。遂不報及 是□□之馳
聞方棘而朝臣猶執 前議依違 未決者久矣。

c-15) 당시 몽골국(蒙古國) 장수(軍帥) 합진(合朶)과⁴⁵⁾ 찰라(札刺)가⁴⁶⁾ 군대 1만여 명을 이끌고, 동쪽 국경에서 들어와 대주(岱州)를 공략하고자 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왔다면서) 식량과 물자를 공급해 달라는 강화(講和)를 요청하면서 거란(契丹)의 공격을 복수하기 위하여서는 공(公)의 군대가 도와야 한다는 글을 보냈다. 그러자 공(公)이 즉시 임금에게 아뢰었다.⁴⁷⁾ 이에 앞서 몽골국(蒙古國) 40여 인이 첩문(牒文)을 보이고 배에 탄 후 정주(定州)를 공략하기 위하여 왔을 때, 지금과 같이 강화(講和)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조정에서 의논하여 거란유종(契丹遺種)을 (공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반인이 몽고문자 이름을 위조하여 거란에 복수하였으니, 실로 (공도 바라던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보고가 도착하지 않은 틈을 타서, 말을 달려 (공격하였다). 방극(方棘)을 듣고 난 다음에 조신(朝臣)들이 집행한 것이니, 전에 의논한 바를 위반함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C-16) 唯今 樞密使崔公曰。“以元帥 □□□□ □□□□ □□皮□□贖而 妄奏 如是耶”。力開說□會群
公 然後□稍解 且許講和 然乞糧草 事未□□□。公 以便□□事 故□與蒙古和好 攻破契丹。及平蒙
古 以俘獲婦女孩童六百餘口付公 揮涕敘□ □□□□。公乃□配佛寺 官廨以充駝役云。

c-16) 오직 지금 추밀사(樞密使) 최공(崔公)만이 말하기를 “원수(元帥)로서……망령되이 임금께 알림이 이와 같은가”하고, 애써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 연후에 서서히 분위기가 풀려, 강화(講和)를 허락하고, 식량과 물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이 미처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공(公)이……하였으므로, 몽골(蒙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고,⁴⁸⁾ 거란(契丹)을 공파(攻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골(蒙古)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포로로 노획된 부녀자와 어린 아이 600여 명을 공(公)에게 보내니 모두 눈물을 흘리고……하였다. 이에 공(公)이 불사(佛寺)에 배치하도록 한 후, 관에서 풀어주어

한 것이다. 이에 금에서는 포선만노(蒲鮮萬奴)를 함평로 선무사(咸平路 宣撫使)로 삼아 특별케 하였는데, 야율유가에게 대패하였다. 그러다가 몽고가 요동 지방을 공략하자 포선만노는 항복하고, 두만강 유역으로 도망가 1217년 동하국(東夏國, 東眞國)을 세웠다. 한편 야율유가 역시, 내분으로 말미암아 몽고로 도망가자, 나머지 무리들이 1216년(고종 3) 징주(澄州, 지금 요동반도의 해성)에서 국호를 대요수국(大遼收國)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 그런데 몽고가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거란족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이들이 수만 명의 군사로 1216년 8월 을축일(乙丑日)에 고려 서북면을 침략하였던 것이다(『高麗史節要』 卷14 高宗 3年 8月 乙丑).

43) 부월(斧鉞) : 옛날 중국에서 출정(出征)하는 대장에게 왕이 주는 형구(작은 도끼와 큰 도끼).
44) 입보(入保) : 안에 들어와 보호를 받음.
45) 합진(合朶) : 미상.
46) 찰라(札刺) : 미상.
47) 주문(奏聞) : 임금에게 아뢰음.
48) 화호(和好) : 화평하고 사이가 좋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⁴⁹⁾ 했다고 전해진다.

C-17) 是年。拜政堂文學·判禮部事。又知貢舉得金仲龍等 二十八。

c-17) 이 해에 정당문학(政堂文學), 판예부사(判禮部事)로 임명되었고, 지공거(知貢舉)로서 김종룡(金仲龍)⁵⁰⁾ 등 28인을 뽑았다.

C-18) □□. ⁵¹⁾ □□守大尉·門下侍郎平章事·修文殿大學士·判兵部事 □□□故

c-18) 1220년(경진, 고종 7) 수태위(守大尉),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 판병부사(判兵部事)에 임명되었다.

D-1) 是年。八月二十八日 感疾□□□醫□□□藥□□日 繼于門司。星奏太白 犯房次相。至九月初三日 疾革卒 殯于楊堤里之第。實大金·貞祐八年·庚辰也。享年五十。

d-1) 이 해 8월 28일 병에 걸리어,……의사(醫師)……약(藥)……하였으며, 문사(門司)에서는⁵²⁾ 별들의 변화가 생겨 금성이⁵³⁾ 방성(房星)을⁵⁴⁾ 계속해서 범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마침내 9월 초3일 돌아가셔서 양제리(楊堤里) 집에 빈소(殯所)를 차렸다. 실로 1220년(大金 貞祐八年, 경진)의 일로서, 누린 나이 50이었다.

D-2) 上聞震悼 命有司 賻弔它葬□ 贈諡文正公 輟朝三日。 是月二十有八日甲寅 葬承天府 乾維山麓禮也。

d-2) 임금께서 듣고 슬퍼하며⁵⁵⁾ 부조(賻弔)를 하였고, 장례도구를 갖추도록 해 주었으며, 문정공(文正公)이라는 시호를 내리시고,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이 달(9월) 28일 갑인 승천부(承天府) 건유산(乾維山) 기슭에 예를 다해 장례를 지냈다.

E-1) □ □貌魁偉 有威儀方中柔外。自少 愛客樂□ 日與朋友。故□飲酒 笑衍衍□ 略無倦色。嗜讀書 大涵包於□經百家之□ 而尤□於詩易。自少卿至□郎 □□東宮 行李之□ 訓導必盡其方。

e-1) 공은 체격과 얼굴이 크고 장대하였으며, 위엄이 있는 몸가짐이⁵⁶⁾ 안에 짝 차있되,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다. 어려서부터 손님맛이를 즐겨했으며,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렸다. 술을 마실 때에는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서⁵⁷⁾ 조금도 삼가는 기색이 없었다. 독서(讀書)를 즐겨서 보따리에 여러 학자⁵⁸⁾들의 책들을 넣고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시경과 역경을 특히 많이 읽었다. (관직이) 소경(少卿)에서 □랑(□郎)에 이르는 사이 동궁(東宮)에서……할 때, 몸가짐이⁵⁹⁾……하였으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에는⁶⁰⁾ 반드시

49) 구역(驅役) : 구사(驅使). 마음대로 부림.

50) 김종룡(金仲龍) : 미상.

51) □□ : 경진(庚辰)으로 추정됨.

52) 문사(門司) : 문사알(門司調). 액정서에 딸린 잡직의 하나.

53) 태백(太白) : 금성(金星)을 말함.

54) 방성(房星) : 28 수(宿)의 넷째 별.

55) 진도(震悼) : 임금이 슬퍼함.

56) 위의(威儀) : 위엄이 있는 의용(儀容). 예법에 맞는 몸가짐.

57) 간간(衍衍) : 간간대소(衍衍大笑). 얼굴에 화기를 띠고 크게 소리내어 웃음.

58) 백가(百家) : 여러 학자.

그 방침을 다하였다.

E-2) 由是 泰和中 有龍潛之□驟承恩 睨同院□之誥 院演綸高文 大□□落於上下。文場⁶¹⁾主選□才 茂學 舉集於門中 或 陶煦 諸生□庠序。

e-2) 이로 말미암아 1201년부터 1208년 사이(泰和中)에 즉위 이전의 고종(高宗)을⁶²⁾ 만나 승은(承恩)을 입은 일이 있었는데,⁶³⁾ 동원(同院)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므로(?)……하였는데, 고문(高文)으로⁶⁴⁾ 잘 짜여져 있었으니, (演綸) 위 아래에……이 크게 떨어진 듯하였다. 과거시험장에서 재주있고 학식많은 사람(□才)들을 뽑았으며, 무학(茂學)들을 문중에 모두 모았고, 여러 학생들은 학교에서⁶⁵⁾ 공부를 시켰다.

E-3) 羈縻胡虜於邊荒 若大若小 於內於外 位皆稱職。動輒有聲 其器宇方略可涯也哉。

e-3) 북쪽 오랑캐들을⁶⁶⁾ 상대로 변경지역에서 기미(羈縻)정책을⁶⁷⁾ 폈으며,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나, 경관이나 외관이나 위치에 있으면 모두 직임을 자칭하였다. 움직임이 민첩하였으며, 그 그릇됨이 매우 커서 방략(方略)은 끝이 어디인 줄 몰랐다.

E-4) 及岱州之戰 □□古帥 本頑如禽獸者。又 乘勝自負。見軍中□□輩 率皆嫫狎。無所不至 及見公 舉止 逐曠服·敬憚 引坐⁶⁸⁾於上□ 呼爲“大哥”。此人 所以莫見其以何術而□也。豈□謂行之以躬 不言而信者耶。意當□朝廷 依違之□ □□柄者 儻不如是神明 獨斷而顧望。朝□逆忤悍虜之□ 三韓之業 其□□□。

e-4) 대주(岱州) 전투 당시, 몽골 장수가 왔는데, 본래 재주 없기가 금수(禽獸)와 같았음에도 계속 승리하는 바람에⁶⁹⁾ 자신을 믿는 바가⁷⁰⁾ 있었다. (몽골 장수가) (조충의) 군대를 보고 모두 업신여겼다. (그러나) (공의 군대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공(公)의 행동거지를⁷¹⁾ 본 후에는 탄복하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공을 상좌(上座)에 모시고, “따거(大哥, 大人)”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어찌 몸소 행동하여,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했다고 이르지 않겠는가. 아! (그러나) 조정(朝廷)에서는 어긋난 것인지 아닌지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데, (권력을 잡은 자)가 이와 같이 사리에 밝지 못해서⁷²⁾ 독단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⁷³⁾ 조정(朝廷)에서 사나운 포로들(悍虜)의……을 거스린(逆忤) 것이니, 우리 나라(三韓)의 기틀이……할 뻔하였다.

59) 행리(行李) : 물가짐.

60) 훈도(訓導) : 전의감, 관상감, 사역원의 중9품 벼슬.

61) 문장(文場) : 과거시험장.

62) 용잠(龍潛) : 잠저(潛邸). 창업군주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와 된 임금으로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63) 승은(承恩) : 신하가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음.

64) 고문(高文) : 내용이 알차고 세련된 글. 남의 문장을 높이 부르는 말.

65) 상서(庠序) : 학교. 주나라에서는 상(庠), 은나라에서는 서(序)로 불렀음.

66) 호로(胡虜) : 외국인을 얕잡아 일컫는 말. 흉노족을 이르는 말.

67) 기미(羈縻) : 굴레. 기미정책.

68) 인좌(引坐) : 앉을 자리로 이끔.

69) 승승(乘勝) : 승승장구(乘勝長驅). 승리를 거듭하여 계속 나아감.

70) 자부(自負) :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스스로 믿음.

71) 거지(舉止) : 행동거지(行動舉止).

72)神明(神明) : 사리에 밝으며 신령스러움.

73) 고망(顧望) : 둘레를 돌아봄. 이것 저것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함. 망설임.

E-5) 凱還已來 □□□□。□ 隙地構別墅 鑿泉種松竹 名獨樂園。退公之後 喜率親戚·子弟·門生·故舊 開小酌□□□□和。至傳□□好事者之口而賡歌之。此亦當時名教中一段奇事也。

e-5) 이기고 돌아온 이후부터는……하며 지냈다. (틈틈이) 놀리고 있는 땅(隙地)에 별장(別墅)을 지어, (주변에) 샘도 파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독락원(獨樂園)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退公之後) 친척(親戚) 자제(子弟) 문생(門生), 사귀어온 지 오래된 친구⁷⁴⁾들을 즐겨 데리고 와서 이끌고 와서, 작은 술자리를 열어 (거문고와 술로써 스스로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⁷⁵⁾ (이때 부르던 노래가) 전해져, 호사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계속 불려졌다고 한다. 이 역시 당시 성인들의 가르침⁷⁶⁾ 가운데 한 토막의 기이한 일⁷⁷⁾이라고 할 수 있다.

F-1) 公 娶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文懿公 諱誥□□ □昌原郡夫人崔氏。

f-1) 공(公)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판이부사(判吏部事) 문의공(文懿公) 최선(崔誥)의⁷⁸⁾ 딸인 창원군부인(昌原郡夫人) 최씨(崔氏)를 취(娶)하였다.

F-2) 生三子。長子 擢第春官 累遷考功員外郎 □□換虎職 神虎衛·保勝□□□ □□牽龍行首。次子 入大學 隸經德齋 補延禧宮錄事。

f-2) 세 아들을 낳았는데,⁷⁹⁾ 큰 아들은 예부(禮部)⁸⁰⁾ 시험에 합격한 후⁸¹⁾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郎)과 □□(□□)를 거쳤으며, 무직(武職)으로 바꾸어⁸²⁾ 신호위(神虎衛) 보승(保勝□□)을 지냈으며, (둘째 아들은 □□□) 견룡행수(牽龍行首)를 지냈고, 셋째 아들은 대학(大學)에 들어가 경덕재(經德齋)에 소속되어 있다가 연희궁 녹사(延禧宮錄事)를 지냈다.

F-3) 女五人。長 適門下侍郎平章事任濡□□□。先公而卒。次 適戶部員外郎安劉佐之第□子。公之門生。次 適兵部郎中徐氏第二子。□幼□□□者。有二焉于□□□中公門下□也。

74) 고구(故舊) : 사귀어 온지 오래된 친구.

75) □□□□ : 거문고와 술로써 스스로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이 부분은 고려사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임.

76) 명교(名教) : (성인이) 인륜의 명분을 지켜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침. 유교.

77) 기사(奇事) : 기이하고 희한한 일.

78) 최선(崔誥) : ? ~ 1209(희종 5).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원(昌原 : 지금의 강원도 鐵原). 태조 때의 공신 준옹(俊邕)의 후손이며, 평장사(平章事) 유청(惟淸)의 아들이다. 1178년(명종 8) 공부낭중으로 흥화도찰방사(興化道察訪使)를 겸임하였다. 1180년 우사간으로 명종의 아우인 원경국사(元敬國師) 충희(食曦)가 궁중에서 궁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탄핵하였다가 파면되었다. 1186년 판장작감(判將作監)이 되어 대사성 황보 탁(皇甫倬),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이지명(李知命)과 함께 양공준(梁公俊) 등 22인과 명경(明經) 5인을 시취(試取)하였다. 1192년 관비서성사(判秘書省事)로서 이부상서 정국검(鄭國儉) 등과 함께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을 교정하고 이어 『태평어람(太平御覽)』을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1194년 동지공거(同知貢舉)로 지공거인 추밀원사 최유가(崔瑜賈)와 함께 진사(進士)를 취하고 김군수(金君綬) 등 31인에게 급제를 사(賜)하게 하였다. 1197년(신종 즉위년) 지추밀원사를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역임하였다. 1200년 수태부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판이부사(守太傅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에 특진되고 이듬해 개부의동삼사 상주국(開府儀同三司上柱國)이 되었다. 1202년 식목도감사(式目都監事)로 활동하였으며, 1204년 당시의 집정자였던 최충헌(崔忠獻)과 함께 신종의 선위(禪位)를 의논하였다. 1209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죽었다. 희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79) 삼자(三子) : 조백기(趙伯琪), 조숙창(趙叔昌), 조계순(趙季珣).

80) 춘관(春官) : 예부(禮部).

81) 탁제(擢第) : 시험에 합격함.

82) 호직(虎職) : 무직(武職)을 말함.

이반계 李攀桂 신도비 神道碑

A-1) 高麗朝 領中郎將·禮部尙書 慶原君 神道碑銘

a-1) 고려왕조 때에 영중랑장(領中郎將)이며 예부상서(禮部尙書)인 경원군(慶原君)의 신도비(神道碑)¹⁾와 명(銘)²⁾

A-2) 夫 革代之際 捨生取義者 歷史上 班班可考 箇箇凜烈 而世號稱首陽之節. 夫夷齊亦不過守義餓死 而特名於後者 蓋褒揚有其人焉. 故馬遷傳之曰. “伯夷雖賢 得夫子而名益彰”. 韓文公頌之曰. “特立獨行 千萬世一人” 此所以夷之爲夷而噉然者也.

a-2) 왕조가 바뀔 때,³⁾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취한 사람이라고 역사상 뚜렷하게 생각나거나⁴⁾ 일일이⁵⁾ 위엄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⁶⁾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수양산의 절개(首陽之節)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무릇 백이(伯夷)와⁷⁾ 숙제(叔齊) 역시, 의(義)를 지키기 위해 굶어 죽은 사람에 불과하지만,⁸⁾ 후대에 특별히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이를 칭찬하고 장려하고자 하는⁹⁾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司馬遷)이¹⁰⁾ 열전에서 “백이(伯夷)가 비록 현인이기는 하지만, 공자(孔子)를 만나서 그 이름을 더욱 떨쳤다”고 하였고, 한퇴지(韓退之)가¹¹⁾ 노래를 지어, “남에게 굴하여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한 이는¹²⁾ 천만세(千萬世)에 한 사람뿐”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이(伯夷)를 백이(伯夷)답게 하도록 (사람들이 역대로) 큰 소리로 말한 것¹³⁾이다.

A-3) 噫. 我東忠義之盛 其麗季杜門洞乎. 今卽邈未詳其末路處義之如何. 而復盡首陽之節者 獨慶原君一人. 惜乎 文獻無徵 其詳不可得也. 迄今五百餘年 不有志士之褒揚者. 豈或時諱所 觸 藏其章而待其時歟. 悲夫.

a-3) 아, 우리나라(我東)에서 충의(忠義)가 왕성한 사례로는 고려 말의 두문동(杜門洞)¹⁴⁾ 사건이 있었다.

1) 신도비(神道碑) : 묘비(墓碑)의 하나. 임금이나 고관(고려-3품 이상, 조선-2품 이상)의 무덤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웠다.

2) 명(銘) : 한문 문체의 하나.

3) 혁대(革代) : 혁세(革世). 왕조가 바뀜.

4) 반반가고(班班可考) : 뚜렷하게 가고할 수 있음.

5) 개개(箇箇) : 하나하나.

6) 늠열(凜烈) : 씩씩하고 위엄이 있어 보인다.

7) 백이(伯夷) : 중국 은(殷)나라 때의 처사. 숙제(叔齊)의 형.

8) 수의아사(守義餓死) : 백이숙제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치려는 것을 막으려다 듣지 않자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다가 죽은 일을 말함.

9) 포양(褒揚) : 포장(褒獎). 칭찬하여 장려함.

10) 사마천(司馬遷) : BC 135 ~ BC 93. 전한(前漢) 때의 역사학자.

11) 한퇴지(韓退之) : 한유(韓愈). 중국 당나라의 문인.

12) 특립독행(特立獨行) :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에 의해서 진퇴함.

13) 교연(噉然) : 큰 소리를 내어 울다.

14) 두문동(杜門洞) :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廣德山) 서쪽 골짜기. 고려 말기의 유신(遺臣)들이 새 조정인 조선에 반대하여 며살살이를 거부하고 은거하여 살던 곳으로 유명하다. 고려의 유신 신규(申珪)·조의생(曹義生)·임선미(林先味)·이경(李瓊)·맹호성(孟好誠)·고천상(高天祥)·서중보(徐仲輔) 등 72인이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부조현(不朝峴)이라는 고개에서 조복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들어와 새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이 때 조선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이들을 불살라 죽였다고 전해지며, 일설에는 동 두문동과 서 두문동이 있어서

지금은 다 없어져서, (이 분들의) 말로(末路)와 의(義)로움을 지키기¹⁵⁾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수양산의 절개(首陽之節)를 지킨 한 사람으로 경원군(慶原君, 李攀桂)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문헌으로 증거 할 수 없어 상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오백여 년 동안 지사(志士)를 알리지 않은 것은¹⁶⁾ 시절이 그 내력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그대로 간직해 두고 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슬프도다!

B-1) 謹按 公 諱攀桂 號松軒。貫原州而本籍慶州。

b-1) 공의 이름(諱)은 반계(攀桂)이고, 호는 송헌(松軒)이며, 본관(本貫)은 원주, 본적(本籍)은 경주이다.

B-2) 以阿餐 諱 謁平爲始祖。卽新羅建國時 六部村長之一也。其後 至兵部郎中 諱金書 始仕麗朝 世以簪纓。顯曾祖 兵部尙書 諱忠堯 祖 吏部侍郎 諱 之衍 考 左贊成 諱子誠 妣 酒泉安氏直長 諱之義女也。

b-2) 아찬(阿餐) 알평(謁平)이¹⁷⁾ 시조(始祖)이니, 신라 건국 당시 6부 촌장의 한 분이다. 그 후 병부낭중(兵部郎中) 금서(金書)가¹⁸⁾ 고려 왕조에 벼슬하기 시작하여, 대대로 높은 벼슬을¹⁹⁾ 하였다. 증조할아버지는²⁰⁾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낸 충요(忠堯)이고,²¹⁾ 할아버지는 이부시랑을 지낸 지연(之衍)이다.²²⁾ 아버지는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자성(子誠)이고,²³⁾ 어머니는 직장(直長)을²⁴⁾ 지낸 주천(酒泉) 안씨(安氏) 지의(之義)의²⁵⁾ 딸이다.

B-3) 公 仕恭愍朝。歷官殿毅校尉·神虎衛 領中郎將·禮部尙書。我朝革命 公與元耘谷天錫 偕隱原州 雉岳山。我太宗大王與之有舊 屢徵以兵判·右議政 并不就。上 親幸其居而請之 遂飲藥斷舌 展臥不起。上 嘉其節 封慶原君。公家移貫 自此也。

b-3) 공은 공민왕대에 전의교위(殿毅校尉), 신호위(神虎衛), 영중랑장(領中郎將), 예부상서(禮部尙書) 등의 관직을 역임하셨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윤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함께 원주(原州) 치악산(雉岳山)에 은거하였다. 우리 태종대왕께서 옛 인연을 생각하여 여러 차례 병조판서(兵曹判書)와 우의정(右議政)으로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대왕께서 친히 거쳐까지 오셔서 청하자, 약을 먹고²⁶⁾ 혀를

동 두문동에는 고려의 무신 48인이 은거하였는데 이들 모두 산을 불태울 때 죽었다고 한다. 정조 때 조정에서 그 자리에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그 충절을 기렸다. 두문동에 관한 기록은 조선 순조 때 당시 72인의 한 사람인 성사제(成思齊)의 후손이 그의 조상에 관한 일을 기록한 『두문동실기 杜門洞實記』가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두문불출(杜門不出)’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그 당시 많은 선비들이 은거함에 따라 이를 두문동이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15) 처의(處義) : 의(義)를 지킴.

16) 포양(褒揚) : 포장(褒獎). 칭찬하여 장려함.

17) 알평(謁平) : 생몰년 미상. 신라건국기의 씨족장. 경주 이씨(慶州李氏)의 시조. 초기 사로육촌(斯盧六村) 중의 하나인 알천양산촌(關川楊山村)의 촌장이었다. 하늘에서 강림하여 표암봉(瓢茅峯)에 내려왔다고 한다.

18) 이금서(李金書) : 미상.

19) 잠영(簪纓) : 높은 벼슬아치가 쓰던 쓰개의 꾸밈이라는 말로, 높은 지위를 이르던 말.

20) 현증조(顯曾祖) : 죽은 증조부의 신주(神主) 첫 머리에 쓰는 말.

21) 이충요(李忠堯) : 미상.

22) 이지연(李之衍) : 미상.

23) 이자성(李子誠) : 미상.

24) 직장(直長) : 고려시대 각 시(寺)·감(監)·서(署)·국(局)·고(庫)의 하급 관직.

25) 안지의(安之義) : 미상.

끓으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대왕께서 그 절개를 가상히 여겨, 경원군(慶原君)에 봉하였다. 공의 집안이 (원주로) 본관을 옮긴 것은 이때부터다.

B-4) 當時 守義不屈者 吉治隱·元耘谷及公等七十二人。一時掛冠 世號杜門洞名賢 有清節碑。而列聖 朝屢加褒獎事 載秉節錄。

b-4) 당시에 의(義)를 지키며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야은(吉治隱), 원운곡(元耘谷), 공(公)을 포함하여 모두 72인이었다. 이 때 관직을 내놓고 벼슬에서 물러난²⁷⁾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두문동(杜門洞) 명현(名賢)이라 부르며 청절비(淸節碑)를 세워 주었다. 이후 대대로 여러 임금께서 거듭 칭찬하고 장려한 일²⁸⁾은 병절록(秉節錄)에²⁹⁾ 기재되어 있다.

B-5) 洞有不朝峴 其言志錄。公曰。“殷室已喪 誰粟可食”。遂入山有自書曰。“余登雉岳 每望松京 眼霧蔽盲 不見舊時之缺 有鬱鬱切切 心寒骨栗者也” 日 “與元友相對 口欲論懷而口已啞 手欲書懷而手已病 何嘗謂生物者也”。遂却食七日而卒。卒年月日及享壽無傳。所居沙田里 有古杏樹。是公手澤也。

b-5) 두문동(杜門洞)에는 부조현³⁰⁾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서 했다는 말과 뜻을 기록한 언지록(言志錄)이³¹⁾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공(公)이 “은(殷)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누가 곡식을 같이 먹겠는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산에 들어가 스스로 글을 지어 말하기를 “치악산에 올라 개경(松京)을 볼 때마다 눈에 이슬이 맺혀 앞을 볼 수 없었다. 옛 시절이 이그러져 다시 볼 수 없으니, 울적하고 절절하여 마음이 춥고 뼈에 사무친다”고 하였고, “벗인 원천석(元友)³²⁾과 더불어 상대하면서, 입으로 품은 생각을 논하고 싶어도 입은 이미 병어리가 되었고, 손으로 품은 바를 쓰고 싶어도 손은 이미 병나고 말았으니, 어찌 살아있는 물건이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드디어 음식을 멀리한지 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연월일과 누린 나이는 전하지 않는다. 사시던 사전리(沙田里)에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공(公)께서 어루만져 손때가 묻은³³⁾ 나무이다.

B-6) 葬于橫城·隅川面·黃稷洞 癸坐原 有表石。配貞敬夫人 昌寧曹氏 直長諱晟女。墓 同面 正岩村 乙座。 距公墓五里許。

b-6) 횡성(橫城) 우천면(隅川面) 황직동(黃稷洞) 북북동쪽 밧자리(癸坐原)에 장례를 치른 다음, 표석(表石)³⁴⁾을 세웠다. 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창녕(昌寧) 조씨(曹氏)는 직장(直長)을³⁵⁾ 지낸 성(晟)의³⁶⁾ 딸로, 묘소는 우천면 정암촌 남동동쪽(乙坐)에 있는데 공(公)의 묘소와는 5리 가량 떨어져 있다.

26) 음약(飲藥) : 약을 먹음.

27) 괘관(掛冠) : 관직을 내놓고 물러남.

28) 포장(褒獎) : 포양(褒揚). 칭찬하여 장려함.

29) 병절록(秉節錄) : 책 이름으로 추정됨.

30) 부조현(不朝峴) : 두문동(杜門洞)에 있던 고개 이름. 두문동 72인이 이 곳에서 조복을 벗어던졌다고 한다.

31) 언지록(言志錄) : 책 이름으로 추정됨.

32) 원우(元友) : 벗인 원천석으로 해석함.

33) 수택(手澤) : 손이 자주 닿았던 책이나 물건에 남아 있는 손때나 윤기.

34) 표석(表石) : 묘표(墓標).

35) 직장(直長) : 고려시대 각 시(寺)·감(監)·서(署)·국(局)·고(庫)의 하급 관직.

36) 조성(曹晟) : 미상.

C-1) 有四男一女。長 大提學灑·次 定山縣監肩·次 坡州牧使腰·次 山陰縣監足 皆順志不仕而斥禍也。女適 原山君原州元滉。內外孫 仍甚繁衍 官晷不絕焉。

c-1) 4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이(灑),³⁷⁾ 차남은 정산현감(定山縣監)을 지낸 견(肩),³⁸⁾ 셋째가 파주목사(坡州牧使) 요(腰),³⁹⁾ 넷째는 산음현감(山陰縣監)을 지낸 족(足)인데,⁴⁰⁾ 모두 공의 뜻에 따라 벼슬을 하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딸은 원산군(原山君) 원주(原州) 원황(元滉)에게⁴¹⁾ 시집갔다. 이후 내외손(內外孫)이 크게 번창하고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D-1) 嗚呼。公之平日言行 一无傳來 只有右陳數條 所謂 零金碎玉 愈寡愈珍者也。墓所 舊有神道碑 中代 失於兵亂 碑文亦不傳 其皎勵之操 卓烈之行 更無證處。天既錫而復晦之獨 何哉。

d-1) 슬프다. 공(公)의 평상시 말과 행동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단지 앞에서 서술한 몇 가지만 남아 있으니, 이른바 영금(零金, 떨어진 쇳조각)과 쇠옥(碎玉, 깨진 옥조각)은 적을수록 귀중하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묘소(墓所)에 신도비(神道碑)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병란(兵亂)으로 소실되어, 비문이 전해지지 않아, 교여(皎勵)한 지조와 탁열(卓烈)한 행적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늘이 빛을 준 후 다시 빼앗은 의도는 무엇인가.

D-2) 後孫宣益 更豎其石 請銘於余。余以末學 固不敢措辭於代遠无徵之文字。而窃慨賢君子實記之磨滅 且悲此身亦韓亡國之俘也 慕仰風節 實有附瞻蠅之願 不揆僭忘 依其譜牒所載而編述如右。

d-2) 후손 선익(宣益)이⁴²⁾ 비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李種翼)에게 명(銘)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나는 후학⁴³⁾으로서 그토록 오래되고 자료도 적은(代遠无徵) 사실을 감히 문장으로 지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진 군자(君子)에 실제 있었던 일(實記)이 마멸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슬프게도 나 역시 망국(亡國)을 경험한 사람으로, 거룩한 몸체와 절개⁴⁴⁾를 앙모(仰慕)해 왔기 때문에, 실로 파리와 같은 바람(瞻蠅之願)으로 (이 일이) 분수에 넘치는 일(僭忘)임을 헤아리지 않고, 단지 족보⁴⁵⁾에 실려 있는 바에 의거하여, 이상과 같이 편집하여 저술(編述)한 것이다.

E-1) 銘曰

月城古闕 松京世錄 降岳之辰 際代之享。
朝嵬掛冠 杜洞列席 圃殉牧流 各殊其地。
吉歸元隱 我同誰車 東登雉岳 西望古都。

使命織路 卿相不屑 御駕臨行 志節莫奪。
飲藥斷舌 爲誰困苦 口啞手病 有懷 難攄。

37) 이이(李灑) : 미상.

38) 이견(李肩) : 미상.

39) 이요(李腰) : 미상.

40) 이족(李足) : 미상.

41) 원황(元滉) : ? ~ 1435년. 본서에 원황(元滉) 묘비(墓碑)가 있음.

42) 이선익(李宣益) : 미상.

43) 말학(末學) : 후학(後學).

44) 풍절(風節) : 거룩한 몸체와 절개.

45) 보첩(譜牒) : 족보로 된 책.

首陽之節 七日以辨 一提義票 萬古綱倫。

四男斥外 是父是子 國祚變遷 玉成如彼。
墓碑消滅 燹劫何理 季代之遠 文獻无稽。
嗟公德行 焉揚萬一 孤陋末學 景仰彌切。

後邦復事 舊蹟尤烈 慶原爵號 世貫移轉。
沙里古杏 手澤尙存 瓊洞之原 后不堪言。
後孫齋誠 墓道復新 嗟後來者 鏡考斯文。

e-1) 銘曰.

월성의⁴⁶ 오래된 문벌이고, 개경의⁴⁷ 세록지신(世祿之臣)으로서⁴⁸
세상에 권세를 떨치고 살면서 대대로 제사를 모셔오다가
조정(朝廷)의 높은 벼슬을 사직하고 나와⁴⁹ 두문동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했으니,
포은의 순교와 목은의 유배와 같이 그 처지에 따라 각기 다름이 있었으며
야은은 돌아가고 운곡조차 숨었으니 나와 같이 수레 탈 사람 누구일까 생각하며
동쪽에 있는 치악산에 올라 서쪽의 옛 수도를 바라만 보네.

임금이 보낸 사자(使者)⁵⁰ 자기 임무를 다하고, 경상(卿相)들이 자신들을 낮추었으며
직접 임금이 타신 수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과 절개는 빼앗을 수 없었다.
약을 먹고 혀를 끊었으니 그 처지의 딱함과 고생스러움⁵¹ 누구에 비할 것이며
병어리 생활과 손 병을 앓으면서도 꾸짖는 생각을 품고 있을 뿐이었다.
수양산의 절개 7일 만에 판별되어 한번 의로운 표식을 들어 만고에 삼강오륜을 드러냈다.

네 아들 역시 바깥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고
국운이⁵² 변하여도 완전무결한 인물됨이⁵³ 그와 같았다.
묘비(墓碑)가 닳고 닳았으니 무수한 세월을 어찌할 것이며
왕조 말이 오래되어 찾아볼 문헌도 없었다.
아아, 공의 덕과 행동이 만에 하나밖에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고루하여 배움이 모자란 나 같은 사람도 우러러봄이 더욱 간절해졌다.
뒤 왕조에서 그 일을 되살려보고자 하니
옛 자취가 더욱 빛을 더하여

46) 월성(月城) : 경주에 있는 산성. 경주를 말함.

47) 송경(松京) : 송도(松都). 개경을 말함.

48) 세록(世錄) : 대대로 이어서 받는 나라의 녹봉. 여기서는 세록지신(世祿之臣)을 말함.

49) 패관(掛冠) : 관직을 내놓고 물러남.

50) 사명(使命) : 사자(使者)로서의 임무.

51) 곤고(困苦) : 고생스럽고 딱함.

52) 국조(國祚) : 국운(國運).

53) 옥성(玉成) : 완전무결한 인물됨.

경원(慶原)이란 작호를 내리고
본관을 이전케 하였다.

사전리(沙田里)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에
손때 묻은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경동(瓊洞) 들판에 감히 어떤 말을 하리오.
후손들의 정성스런 마음으로
묘비문(墓碑文)⁵⁴⁾을 다시 새롭게 써 놓으니
뒤에 다시 오는 사람들은
이 글을 거울삼아 보았으면 한다.

F-1) 癸酉 五月日 舊韓國 承訓郎·順陵 參奉 李種翼撰

f-1) 1933년, 5월. 구한국(舊韓國) 승훈랑(承訓郎) 순릉(順陵) 참봉(參奉)⁵⁵⁾ 이종익(李種翼)⁵⁶⁾이 찬(撰)하였다.

54) 묘도(墓道) : 묘도문자(墓道文字). 묘지(墓誌) 등에 새긴 글.

55) 참봉(參奉) :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56) 이종익(李種翼) : 미상.

정종영 鄭宗榮 신도비 神道碑

A-1) 有明 朝鮮國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 都摠管 八溪君 致仕 鄭公 神道碑銘 并序

a-1) 중국왕조가 명(明)나라일 당시, 조선국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의금부 판사, 경연·춘추관 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팔계군으로 치사(致仕)한 정공(鄭公)의 신도비(神道碑)의¹⁾ 명(銘)과 함께 쓴 서문(序文).

A-2) 嘉善大夫·原任 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同知成均館事 李端夏撰

a-2) 이단하(李端夏,²⁾ 가선대부 원임 이조참판, 겸수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동지성균관사가 찬(撰)함.

A-3) 曾孫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 副摠管 鎰謹篆

a-3) 정유(鄭鎰,³⁾ 증손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이 전(篆)함.

A-4) 外後孫 通政大夫·承政院 右承旨·知製敎·兼經筵 參贊官·春秋館 修撰官 丁昌燾書

a-4) 정창도(丁昌燾,⁴⁾ 외후손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이 서(書)

1) 신도비(神道碑) : 묘비(墓碑)의 하나. 임금이나 고관(고려·3품 이상, 조선·2품 이상)의 무덤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웠다.

2) 이단하(李端夏) : 1625(인조 3) ~ 1689(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계주(季周). 호는 외재(畏齋)·송간(松岫)이다. 섭(涉)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안성(安性)이다. 아버지는 판서 식(植)이며, 어머니는 심엄(沈淹)의 딸이다. 선조의 덕으로 공조좌랑으로 재직했다.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정언·부교리·용안현 감·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북평사로 있을 때 감사 민정중(閔鼎重)과 함께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정문부(鄭文學)의 사적(史蹟)을 조사해 조정에 알려 관직을 추증시켰다. 또한 사당을 세워 충렬사(忠烈祠)라는 사액을 내리게 했다. 부교리로 있을 때는 귀양 중인 대신들을 속히 사면할 것을 주청하기도 했다. 1669년 이조정랑이 되어 각 사(司) 노비의 공안(貢案)을 정리할 것을 청하여 신공(身貢)을 반 필씩 줄이게 했다. 이어 교리로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의 교정관이 되었다. 훈련별대(訓練別隊)의 창설을 주청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그 뒤 응교·사간·사인 등을 역임하고, 1671년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이조참의가 되어 증종의 폐비 신씨(愼氏)의 신주를 신씨 본손의 집으로 옮기게 했다. 1674년 대사성으로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어 숙종이 즉위한 뒤, 서인으로서 제2차 북상문제로 숙청당한 의례제신(議禮諸臣) 처벌의 부당성을 상소하다가 파직되어 이듬해 삭직당했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풀려났다. 이듬해 홍문관제학이 되어 『현종개수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682년 대사헌으로 각 능 기신(忌辰) 제사에 올리는 유과(油果) 및 과일 위를 덮는 채색꽃을 줄여 제사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1684년 예조판서가 되어 「사창절목(社倉節目)」과 『선묘보감(宣廟寶鑑)』을 지어 올렸다. 1686년 우의정이 되어 사창 설치의 다섯 가지 이익을 건의했다. 그리고 죽을 죄인에게 삼복(三覆 : 三審制)을 실시할 것을 청했다.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행판돈녕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이단하는 무력해진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비변사를 의정부의 직방(直房)으로 만들고, 그 곁에 한 방(房)을 비변사로 만들어 의정부와 통하게 했다. 또한 좌우찬성의 자리를 비워 두지 말고 참찬과 함께 삼공을 도와 정치를 의논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창제도를 철저히 실시해 굶주리는 백성을 돌볼 것을 역설하였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자라나 조선 후기 경학을 대표할 만한 학자이다. 용안(龍安)에 영당이 있다. 저서로는 문집인 『외재집』과 편서로 『북관지(北關誌)』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3) 정유(鄭鎰) : 미상.

4) 정창도(丁昌燾) : 1623(인조 1) ~ 1687(숙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압해(押海). 자는 사원(士元). 호경(好敬)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언규(彦珪), 아버지는 시걸(時傑)이며, 어머니는 이정방(李廷芳)의 딸이다.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1652년(효종 3) 참봉으로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57년(효종 8) 정언이 된 이후 지평·장령 등 청직에 10년 이상을 몸담으면서 언관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1663년(현종 4) 동지사 조형(趙珩)과 함께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함.

B-1) 故贊成八溪君鄭公 以文學·德望爲四朝名臣。端夏 夙從家庭·鄉黨間 稔聞公流風·餘韻 艷慕之懷 自倍於他人。今公會孫觀察使鎬·縣宰錫胤·外曾孫崔參判文湜諸公 相繼過端夏曰。“先祖墓道尙闕顯刻 蓋嘗請銘于先大宰而不獲。幸奄捐館舍 子 有繼述之責 敢以屬筆”。端夏 辭以不文諸公請。不置於私義。有未忍終辭者。遂据聽天沈相公之狀 而兼採家譜間附舊聞 叙以銘之。

b-1) 고(故) 찬성(贊成) 팔계군(八溪君) 정공(鄭公)은 문학(文學)과 덕망(德望)으로 중종(中宗)에서 선조(宣祖)에 이르는 사조(四朝)⁵⁾의 명신(名臣)이었다. 단하(端夏)는 일찍이 집안 사람이나 고향 사람들을⁶⁾ 쫓아다니면서, 공(公)에 대해 옛부터 내려오던 이야기⁷⁾와 그에 대해 남아 있는 운치에 대해 듣고 나서, 염모(艷慕)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몇 배나 되었다. 그러다 지금 공(公)의 증손(曾孫)인 정유(鄭鎬,⁸⁾ 觀察使)와 정석윤(鄭錫胤,⁹⁾ 縣監), 외증손인 최문식(崔文湜,¹⁰⁾ 參判) 등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단하(端夏)를 찾아와 “조상(祖上)의 묘비문(墓碑文)¹¹⁾을 잘 지어 비석에 새기고자 하여 일찍이 돌아가신 대재(大宰)께¹²⁾ 글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였는데, 언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이 관사(館舍)¹³⁾에 업연(奄捐)해 있으니, 이제 선생께서 계속해서 글을 지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글을 맡아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단하(端夏)는 여러분들의 청을 사양하고 글을 짓지 않았다.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¹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차마 글을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청천(聽天)선생¹⁵⁾이 지은

다녀왔다. 1673년 중성부사(鍾城府使)로 임명되었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가자(加資)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그는 필선·현납·집의, 삼척부사(三陟府使) 등을 지내다가 숙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주로 문한직이나 언관직에 있었으며 황해도관찰사·광주부윤 등 지방관도 역임하였다. 1682년(숙종 8)의 허새(許璽)의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정배되었다. 이 역모는 허새를 포함하여 민암(閔睦)·권대운(權大運)·오시복(吳始復)·오정위(吳挺緯)·정창도 등 16인이 회맹하여 수원·장단 등 경기 각지에서 동시에 거사하여 복평군(福平君)을 추대하고 대왕대비에게 수렴청정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고변내용에서 정창도는 경기도 광주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뒤 그의 죄명이 문안과 다름이었다하여 그의 사후인 1689년에 복작(復爵)되었다. 그리고 1693년에는 아경직(亞卿職 : 육조의 참판, 좌우윤 등을 공·정경 등에 상대하여 부르던 이류)을 추증하였다.

- 5) 사조(四朝) : 중종, 인종, 명종, 선조.
- 6) 향당(鄉黨) : 자기가 태어났거나 사는 시골의 마을. 혹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 7) 유풍(流風) : 옛부터 내려오던 풍속.
- 8) 약(鎬) : 미상.
- 9) 석윤(錫胤) : 미상.
- 10) 최문식(崔文湜) : 1610(광해군 2) ~ 1684(숙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정원(正源). 호는 성헌(省軒). 수현(壽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경상(景祥)이고, 아버지는 기벽(基潁)이며, 어머니는 원응림(元應霖)의 딸이다. 군수 문활(文活)의 아우이다. 1630년(인조 8) 형 문활과 함께 식년문과에 응시, 나란히 병과로 급제하여 형제동방(兄弟同榜)의 영예를 누렸다. 그 뒤 정인·지평·공산현감 등을 거쳐 1665년(현종 6) 강릉부사가 되었다가, 내직에 돌아와서 장령·현납·사간 등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1677년(숙종 3) 대사간에 오른 다음 승지·강원도관찰사를 거쳐서 다시 대사간으로 있다가 관직을 떠났다.
- 11) 묘도(墓道) : 묘도문자(墓道文字). 묘지(墓誌) 등에 새긴 글.
- 12) 대재(大宰) : 관명(官名).
- 13) 관사(館舍) : 손님을 유숙케 하기 위하여 관에서 마련해 둔 집.
- 14) 사의(私義) :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 사심(私心).
- 15) 심수경(沈守慶) : 1516(중종 11) ~ 1599(선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희안(希顔), 호는 청천당(聽天堂). 좌의정 정(貞)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적개공신 응(膺)이고, 아버지는 사손(思遜)이며, 어머니는 참의 이예장(李禮長)의 딸이다. 1546년(명종 1)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52년 감상(檢詳)을 거쳐 직제학을 지냈다. 1562년 정릉(靖陵 : 中宗陵)을 이장할 때 경기도관찰사로 대여(大輿)가 한강을 건너는 선창(船艙) 설치를 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었다. 뒤에 대사헌과 8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1590년(선조 23) 우의정에 오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체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듬해 영중추

행장(行狀)과 가보(家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옛 글들을 채록하여 명(銘)을 서술하게 되었다.

C-1) 謹按 公 諱宗榮 字仁吉 號恒齋 鄭氏望草溪。

c-1) 공(公)의 이름(諱)은 종영(宗榮)¹⁶⁾이고, 자(字)는 인길(仁吉)이며, 호(號)는 항재(恒齋)로 초계(草溪) 정씨(鄭氏)이다.¹⁷⁾

C-2) 高麗 禮部尙書 贈光儒侯 諱倍傑 其上祖也。是生 貞簡公 諱文 亦位禮曹 麗史有傳。其後 有諱曰允耆 曰僖 皆爲進賢館大提學。至奉禮郎 諱便 當革除世 遷居原州 子孫仍家焉。是生 贈承政院都承旨 諱興 鄉居以種德見稱 寔公高祖也。曾祖 諱溫 武科通政 贈工曹參判 著清白聲 嘗特授海運判官。祖 諱允謙 亦登武科 策靖國 勳封清溪君 贈兵曹判書 諡莊襄。考 諱淑 唐津縣監 以公貴贈左贊成。妣 慶州金氏 忠義衛季勳女 雞林君嗣後也。

c-2) 고려시대 때에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낸 배걸(倍傑,¹⁸⁾ 贈光儒侯)이 윗대 조상(上祖)이다. 이 분의 소생인, 문(文,¹⁹⁾ 貞簡公) 역시 예조(禮曹)에서 벼슬을 하였는데 고려사 열전에 실려 있다. 그 후손인 윤기(允耆)와²⁰⁾ 선(僖)²¹⁾ 모두 진현관(進賢館)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편(便,²²⁾ 奉禮郎) 때에 왕조

부사가 되었다가 1598년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문장과 서예에도 능하였다. 저서로는 『청천당시집』, 『청천당유한록(聽天堂遺閑錄)』이 있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宣祖實錄, 朝鮮書道菁華,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聽天堂詩集, 聽天堂遺閑錄.

16) 정종영(鄭宗榮) : 1513(중종 8) ~ 1589(선조 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인길(仁吉), 호는 항재(恒齋). 은(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윤겸(允謙)이고, 아버지는 현감 숙(淑)이며, 어머니는 충의위(忠義衛) 김계훈(金季勳)의 딸이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1540년(중종 35) 사마양시에 모두 합격하고, 154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검열이 되고, 1547년(명종 2) 호조정랑·헌납 등을 거쳐 뒤에 부수찬·교리 등을 지냈다. 1552년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공조참판이 되었다. 강원도관찰사 때는 도민들을 안무(安撫)하고,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하여서는 서북지방인이 무예를 좋아하고 문교(文教)를 싫어하는 지방이라는 형세를 감안하여 평양에 서원과 서적포를 설립하여 학문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뒤 팔계군(八溪君)에 습봉(襲封)되었다. 1562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윤원형(尹元衡)에게 아부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수령들을 응징하고, 내전의 힘을 빌려 발호하는 요승(妖僧)을 제거하였다. 1567년 한성부판윤으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육조의 관서를 역임하고 우찬성으로 사직하였다.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항재집』이 있다. 원주의 칠봉서원(七峰書院)에 봉향되었다. 시호는 정헌(靖憲)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國朝故事, 燃藜室記述.

17) 가계(家系) : 고려시대 倍傑 → 文 → (中略) → 允耆 僖 → (中略) → 조선시대 便(6代祖) → 興(高祖) → 溫(曾祖) → 允謙(祖) → 淑(考) → 宗榮.

18) 정배걸(鄭倍傑) : 생몰년 미상. 고려 전기의 문신. 초계 정씨(草溪鄭氏)의 시조이다. 1017년(현종 8) 지공거(知貢舉) 락원(郭元)의 문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035년(정종 1) 좌승유 지제고(左拾遺知制誥)를 역임하고, 1047년(문종 1)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서 지공거가 되어 김정신(金鼎新) 등 진사를 선발하였다. 이후 예부상서·중추사(禮部尙書·中樞使)에 이르렀다. 일찍이 사숙(私塾)을 열어 자제들을 가르쳤는데, 이를 홍문공도(弘文公徒) 또는 웅천도(熊川徒)라 불렀으며, 당시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 중의 하나였다. 그가 별세한 뒤 문종은 1080년에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조서를 내리고, 홍문광학추성찬화공신 개부의동삼사 수태위 문하시중 상주국 광유후(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侯)를 추증하였다. 시호는 홍문(弘文)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19) 정문(鄭文) : ? ~ 1106(예종 1). 고려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의덕(懿德). 예부상서·중추원사(中樞院使) 배걸(倍傑)의 아들이다. 유복자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한 뒤 문종 때 비서랑(秘書郎)이 되었고, 선종이 즉위하면서 직한림(直翰林) 겸 사문조교(四門助教)에 발탁되었다. 이어 우승유(右拾遺)가 되자, 대간에서 그의 외조가 처인부곡(處仁部曲) 출신이므로 간관이 됨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므로 전중내급사 지제고(殿中內給使知制誥)로 고쳐 제수되었다가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를 거쳐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이 되었다. 1105년(숙종 10)에 형부상서·정당문학 겸 태자빈객(刑部尙書·政堂文學兼太子賓客)이 되고 검교사공 예부상서(檢校司空禮部尙書)가 더해졌다. 청렴·공정하여 형조를 10여 년 맡았으나 일을 잘 처리하였고,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받은 금帛(金帛)을 그의 종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서적을 사가지고 왔다 한다. 일찍이 서경에 호종하여 기자(箕子)의 사당을 세우도록 청하기도 하였다. 죽은 뒤 특진 좌복야 참지정사(特進左僕射參知政事)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가 조선으로 바뀌었는데(當革除世), 이때부터 원주(原州)에 은둔해 살아 자손들 역시 그대로 집안을 이끌었다. 이 분의 태생인 흥(興,²³ 贈承政院都承旨)이 원주에 살면서(鄉居) 남에게 은덕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여²⁴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이 분이 공(公)의 고조할아버지이다. 증조할아버지 온(溫)²⁵ 무과(武科)로 통정(通政)에 올랐는데 나중에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청백(清白)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특별히 해운판관(海運判官)에 제수(除授)되었다. 할아버지 윤겸(允謙)²⁶ 역시 무과(武科)로 등과(登科)했고,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봉되었으며, 그 공훈(功勳)으로 청계군(淸溪君)이라는 봉작(封爵)을 받았다.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追贈)되었으니,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아버지 숙(淑)²⁷은 당진현감(唐津縣監)이었으며, 자식의 공(公貴)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경주 김씨(慶州金氏)는 충의위(忠義衛) 계훈(季勳)²⁸의 딸인데, 계림군(雞林君) 곤(綱)²⁹의 후예이다.

C-3) 以正德癸酉十一月十六日生。公生有美質。八歲喪妣 哀慕如成人。少 病弱 猶自力學。稍長師慕齋金先生。受性理書 考索精深。先生亟稱之。

c-3) 1513년(정덕 계유, 1세) 11월 16일 출생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다. 8세(1520)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슬퍼하고 사모함이 어른과 같았다. 어릴 때는 병약하여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라면서(稍長) 모재(慕齋)선생³⁰을 스승으로 모셔 공부하게 되었다. 성리학 관련 서적을

-
- 20) 정윤기(鄭允耆) : 미상.
 - 21) 정선(鄭僊) : 미상.
 - 22) 정편(鄭便) : 미상.
 - 23) 정흥(鄭興) : 미상.
 - 24) 종덕(種德) : 남에게 은덕이 될 만한 일을 함.
 - 25) 정온(鄭溫) : 1434 ~ 1508. 자(字)는 직지(直之). 광계(光繼, 匡靖大夫 門下評理) - 수(修, 奉正大夫 司宰副令) - 편(便, 宣務郎 通禮文 奉禮) - 흥(興) - 온(溫).
 - 26) 정윤겸(鄭允謙) : 1463(세조 9) ~ 1536(중종 31).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익부(益夫).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온(溫). 일찍부터 병법을 익혔고, 1491년(성종 22) 변경을 시끄럽게 하는 야인을 토벌할 때 원수 허종(許琮)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 이듬해 무과에 급제, 훈련원에 보직되고 이어 사헌부감찰·군자시주부·사복시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1506년의 중종반정에 참여 그 공으로 삼등공신인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에 녹훈되고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에 발탁되었다. 이듬해 공신에게 특별히 품계를 주는 예에 따라 통정대부로 당상관에 오르고, 간성군수에 임명되었으며, 4년 뒤 웅천부사로 옮겨 삼포왜란 이후의 민심수습과 복구에 힘썼다. 다시 충청도수군절도사를 거쳐 함경남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자 북청에 성을 쌓아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518년(중종 13) 첨지중추부사로 전보되었다가 이듬해 가선(嘉善)으로 승진, 청계군(淸溪君)에 봉하여지고 특별히 회령부사에 제수되었다. 1522년 전라도수군절도사로 기용됨에 병선과 무기를 수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다가 명나라를 약탈하고 돌아가는 왜구를 격멸, 그 공로로 품계가 더해지고 조정으로부터는 궁시(弓矢)와 의대(衣帶), 명나라로부터도 백금이 하사되었다. 이어 훈련원도정이 되었다가 1525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평안도병마사가 되고, 상호군을 거쳐 충청도병마사가 있을 때 무고로 인하여 횡성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곧 죄가 풀려 부총관에 서용되고,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삼척부사가 되었다. 청렴하며 장재(將材)로 손꼽혀 30여 년간 남북 변경의 장수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 27) 정숙(鄭淑) : 미상.
 - 28) 김계훈(金季勳) : 미상.
 - 29) 김곤(金綱) : 미상.
 - 30) 김안국(金安國) : 1478(성종 9) ~ 1543(중종 38). 조선시대 문신·학자.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참봉 연(璉)의 아들이며, 정국(正國)의 형이다. 조광조(趙光祖)·기준(奇遵) 등과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지치주의(至治主義) 사립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01년(연산군 7) 생진과에 합격, 1503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으며, 이어 박사·부수찬·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507년(중종 2)에는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 지평·장령·예조참의·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517년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각

받아, 깊고 세밀하게 생각하고 모색하니, 선생이 자주 칭찬하였다.

C-4) 庚子。陞兩舍。癸卯。登文科。選補槐院。薦入史館爲檢閱。乙巳。轉至奉教。

c-4) 1540년(경자, 28세) 양사(兩舍)³¹⁾에 올랐고, 1543년(계묘, 31세)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괴원(槐院)³²⁾에 있다가 예문관³³⁾의 검열³⁴⁾이 되었으며, 1545년(을사, 33세)에 예문관의 봉교³⁵⁾로 자리를 옮겼다.

C-5) 丙午。陞成均館典籍。由殿中戶曹佐郎 出爲平安道評事。時士禍大作。公 於柳相灌爲姪婿。又於三大臣之死。秉史筆書法不隱。同僚有及禍者 而公素謹飭 無可指摘 故止外叙。

c-5) 1546년(병오년, 34세)에 성균관 전직³⁶⁾에 올랐고, 전중 호조좌랑을 거쳐 평안도 평사(評事)³⁷⁾로 나갔다. 당시에 을사사화가³⁸⁾ 크게 일어났었다. 공(公)은 유관(柳灌)³⁹⁾의 조카사위인데도 삼대신(三大臣)⁴⁰⁾

향교에 『소학』을 권하고, 『농서언해(農書諺解)』·『잠서언해(蠶書諺解)』·『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정속언해(正俗諺解)』 등의 언해서와 『벽온방(陽瘟方)』·『창진방(瘡疹方)』 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며 향약을 시행하도록 하여 교화사업에 힘썼다. 1519년 다시 서울로 올라와 참찬이 되었으나 같은 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조광조 일파의 소장파 명신들이 죽음을 당할 때, 겨우 화를 면하고 파직되어 경기도 이전에 내려가서 후진들을 가르치며 한가히 지냈다.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좌참찬·대제학·찬성·판중추부사·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으며, 1541년 병조판서 때에 천문·역법·병법 등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물이끼(水苔)와 닻(楫)을 화합시켜 태지(苔紙 :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하였다. 사대부 출신 관료로서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통치의 강화에 힘썼으며, 중국문화를 수용,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 시문으로도 명성이 있었으며 대제학으로 죽은 뒤 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과 이천의 설봉서원(雪峰書院) 및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 저서로는 『모재집』·『모재가훈(慕齋家訓)』·『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이 있고, 편서(編書)로는 『이륜행실도언해』·『성리대전언해(性理大全諺解)』·『농서언해』·『잠서언해』·『여씨향약언해』·『정속언해』·『벽온방』·『창진방』 등이 있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慕齋集.

- 31) 양사(兩舍) : 성균관에 설치된 사서재(四書齋)와 오경재(五經齋).
- 32)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아울러 이문(吏文)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祖實錄, 經國大典, 大典會通, 燃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
- 33) 사관(史館) : 예문관(藝文館). 조선시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하여 짓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원봉성(元鳳省)·사림원(詞林院)·문한서(文翰署)·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4관(館) 또는 관각(館閣)의 하나이다.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예문춘추관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 34) 검열(檢閱) :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승지와 더불어 근시(近侍)로 지칭되었으며, 비록 하급관직이었으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요직으로 선망을 받았다. <<참고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世宗實錄, 經國大典, 大典會通, 增補文獻備考, 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薄 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朝鮮前期의 史官-職制 및 政治的 役割-(車長燮, 慶北史學 6, 1983).
- 35) 봉교(奉敎) :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예문관의 정8품 대교(待敎) 2인과 정9품 검열(檢閱) 4인과 더불어 '8한림(八翰林)'이라고 하여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는 사관(史官)이었다. 이들은 고려 때부터 사한관(史翰官)의 직임을 겸하여 평소 사초(史草)를 기록해 두었다가 실록편찬시 납입하는 책임도 지고 있었다. 봉교는 공봉(供奉)의 후신이다.
- 36) 전직(典籍) :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6품 관직. 정원은 13인이다. 성균관은 고려 성종 때 설치한 국자감(國子監)이 뒤에 국학으로 바뀌었다가 1308년(충렬왕 34) 6월에 비로소 성균관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뒤에도 여러 번 개편이 있었으나 전직의 관직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태조신반관제에서는 종5품의 전부(典簿) 1인을 두었으며, 1401년(태종 1) 7월에 주부로 고쳐 정6품으로 내렸는데, 이것이 1466년(세조 12) 정월의 관제개혁 때 전직으로 바뀌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언제 정원이 1인에서 13인으로 증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37) 평사(評事) : 조선 초기의 정6품 관직. 병마평사(兵馬評事)의 약칭이다.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직에 참여하며 문부(文簿)를 관장하고 군사(軍資)와 고과(考課) 및 개시(開市)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 38) 사화(士禍) : 을사사화(乙巳士禍)를 말함.
- 39) 유관(柳灌) : 1484(성종 15) ~ 1545(명종 즉위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관지(灌之), 호는 송암(松

의 죽음에 대하여 사필(史筆)을 잡고 법대로 쓰는데 숨김이 없었다. (그 결과) 동료들 가운데에는 화를 당한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公)이 평소 몸가짐을 삼가고 스스로 조심했었고⁴¹⁾ 지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외직(外職)에 나가는 것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C-6) 丁未. 授戶曹正郎. 主將謂公. “有親必趣還 函欲餞行”. 公曰. “代者未至 豈可以私情廢邦憲”. 仍從巡江邊. 主將歎服. 會東臯李相公 還自關西. 力薦于朝. 以司諫院獻納召還 啓陳兩西民瘼.

c-6) 1547년(정미, 35세) 호조 정랑(正郎)⁴²⁾에 제수되었다. 당시 평안도 병마절도사(主將)가 “부모님이 계시니, 빨리 돌아가도록 일찍 전별연을 하고자 한다”고 공(公)에게 이르니, “교대할 사람이 아직 오직 않았는데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국법⁴³⁾을 어기겠는가”라고 대답하고, 평상시처럼 강변을 순찰하니, 절도사(主將)가 탄복하였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동고(東臯)선생⁴⁴⁾이 관서지방에서 돌아오면서

菴). 상영(尙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주(溲), 아버지는 장령(掌令) 정수(廷秀)이며, 어머니는 박윤손(朴潤孫)의 딸이다. 1507년(중종 2)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2년 뒤에 정언(正言)이 되었고, 1513년에 지평(持平)으로 일시 경기도도사에 임명되어 진상(進上)의 전결분정(田結分定)에 따른 폐단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그 뒤 장령을 거쳐 1519년 7월에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이 때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하는 사림과 대간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에 기묘사화가 발생했을 때, 사헌부집의로서 조광조 일파가 득세할 때 심히 교만하고 방종했다고 비난하고, 현량과(賢良科)의 폐지와 그 급제자의 과방(罷榜)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광조 일파를 공격하였다. 그 뒤 동부승지·참찬관·강원도관찰사·대사간·이조참의 등을 거쳐 1525년 12월에는 특별히 통정대부에 승진하면서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어 외직에 나갔다. 이어서 우부승지·병조참판 및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를 겸하고, 예조판서·우참찬·대사헌·이조판서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이조판서 재직 시에는 간신인 병조판서 이기(李咬)의 비행을 공격했는데, 이것이 후일 이기의 모함을 받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우찬성·좌찬성에 올랐고 1541년 11월에는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 임명은 중원(中原)에서 오랑캐(猘子)의 침입과 같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자 중신을 파견해 축성(築城)·입거(入居) 문제의 처리와 사신 왕래에 따른 폐단 제거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왕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그 뒤 인종이 즉위하자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승진하였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尹元衡)·이기 등의 모함으로 일어난 을사사화에서 윤임(尹任)·유인숙(柳仁淑) 등과 함께 삼충(三兇)으로 몰려 종사(宗社)를 모위(謀危)했다는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처음에는 절도유배형(絶島流配刑)에 처해져 서천으로 귀양갔지만, 온양에 이르러 사사(賜死)되었다. 1570년(선조 3) 신원되었으며, 1577년 복작(復爵)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燃藜室記述, 海東雜錄, 乙巳傳聞錄, 國朝榜目, 沖齋集, 大東野乘.

40) 삼대신(三大臣) : 윤임·유관·유인숙을 말함.

41) 근칙(謹飭) : 몸가짐을 삼가고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

42) 정랑(正郎) :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정5품 관직. 아·호·예·병·형·공조의 중견실무 책임자들이었다.

43) 방헌(邦憲) : 국법.

44) 이준경(李浚慶) : 1499(연산군 5) ~ 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臯)·남당(南堂)·홍련거사(紅蓮居士)·연방노인(蓮坊老人). 서울 출신. 극감(克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판중추부사 세좌(世佐)이고, 아버지는 홍문관수찬 수정(守貞)이며, 어머니는 상서원판관 신승연(申承演)의 딸이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화를 입어 사사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연좌되어 6세의 어린 나이로 형 윤경(潤慶)과 함께 충청도 괴산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외할아버지 신승연(申承演)과 황효헌(黃孝獻)에게서 학업을 닦고, 이연경(李延慶)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웠다.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531년(중종 26)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한림을 거쳐 1533년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다. 그 해 말 구수담(具壽聃)과 함께 경연에 나가 중종에게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류들의 무죄를 역설하다가 오히려 권신 김안로(金安老) 일파의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다. 1537년 김안로 일파가 제거된 뒤 다시 등용되어 세자시강원필선·사헌부장령·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1541년 홍문관직제학·부제학으로 승진되고 승정원승지를 지냈다. 그 뒤 한성부우윤·성균관대사성을 지냈고, 중종이 즉자 고부부사(告訃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1545년(인종 1) 을사사화 때는 평안도관찰사로 나가 있어 화를 면하였다. 1548년(명종 3) 다시 중앙으로 올라와 병조판서·한성부판윤·대사헌을 역임했으나 1550년 정적이던 영의정 이기(李咬)의 모함으로 충청도 보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553년 함경도지방에 야인들이 침입하자 함경도순변사가 되어 그들을 초유(招諭 : 불려서 타이름)하고 성보(城堡)를 순찰하였다. 이어 대사헌과 병조판서를 다시 지내고 형조판서로 있다가 1555년 을묘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도순찰사로 출정해 이를 격퇴하였다.

공(公)을 조정에 힘써 추천하여,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소환된 후, 양서(兩西)⁴⁵⁾ 민들의 어려운 점을 임금께 아뢰었다.

C-7) 戊申至壬子。爲弘文館副修撰。歷踐至副應教。移憲府爲持平·掌令。間授禮工曹正郎·司僕寺僉正·副正 兼春秋館 記注官 宣傳官等任。① 嘗薦銓郎 爲尹元衡所尼。② 公在玉堂 陳復昌爲副提學。公醉賜醞 切責復昌。所爲引觴罰之 旁觀悚然。③ 及在霜臺 維新人崔賀孫希 權姦旨訴縣 “大獄有餘黨” 意在嫁禍士林。復昌爲大憲。欲因而媒藥其事。公曰。“此非憲司所職”。左右 遂合辭却之。復昌 嗛公甚然 終不能害也。④ 明廟命 揀朝臣廉謹者。公與焉錫 宴闕庭且賜物 以寵異之。

c-7) 1548년(무신, 36세)부터 1552년(임자, 40세)까지 홍문관 부수찬으로 있다가 부응교로 승진하였으며, 사헌부로 옮겨서는 지평(持平)과 장령(掌令)을 지냈고, 그 사이 예조(禮)와 공조(工曹)의 정랑(正郎), 사복시(司僕寺)의 첨정(僉正)과 부정(副正)을 지냈고,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과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다. [일화 1] 이 사이에 전랑(銓郎)⁴⁶⁾에 전거된 적이 있었으나 윤원형(尹元衡)⁴⁷⁾의 반대로

그 공으로 우찬성에 오르고 병조판서를 겸임했으며, 1558년 우의정, 1560년 좌의정, 1565년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하성군 군(河城君鈞 : 선조)을 왕으로 세우고 원상(院相)으로서 국정을 보좌하였다. 이 때 기묘사화로 죄를 받은 조광조(趙光祖)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을사사화로 죄를 받은 사람들을 신원하는 동시에 억울하게 수십 년간 유배 생활을 한 노수신(盧守愼)-유희춘(柳希春) 등을 석방해 등용하였다. 그러나, 기대승(奇大升)-이이(李珣) 등 신진사류들과 뜻이 맞지 않아 이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1571년(선조 4)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임종 때 봉당이 있을 것이니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유차(遺藪 : 유훈으로 남기는 차자)를 올려 이이·유성룡(柳成龍) 등 신진사류들의 규탄을 받았다. 저서로는 『동고유고』, 『조선풍속(朝鮮風俗)』 등이 있다. 선조 묘정에 배향되고, 충청도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國朝榜目, 東臯遺稿, 蘇齋集, 南冥集, 燃藜室記述, 海東雜錄, 乙巳傳聞錄, 己卯錄補遺, 海東名臣錄, 黨議通略, 朝鮮名人傳(申奭鎬 外, 朝光社, 1939).

45) 양서(兩西) : 관서(평안도)와 해서(황해도)지방.

46) 전랑(銓郎) : 조선시대 문무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의 정5품관인 정랑(正郎)과 정6품관인 좌랑(佐郎)직의 통칭. 무관보다는 문관의 인사권이 더 중시되었으므로 이조정랑이 특히 중시되었다.

47) 윤원형(尹元衡) : ? ~ 1565(명종 2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언평(彦平). 형조판서 계겸(繼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옥(頤)이고, 아버지는 판돈녕부사 지임(之任)이며, 어머니는 이덕승(李德崇)의 딸이다.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이다. 1528년(중종 23)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3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1537년 권신인 김안로(金安老)에 의해 파직, 유배되었다가 이 해 김안로가 사사되자 풀려나왔다. 그 뒤 수찬·교리·지평·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세자(世子 : 뒤에 인종)를 폐위하고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 환(慶原大君矮)을 세자에 책봉하려는 모의를 진행하면서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과 알력이 생겼다. 이에 1543년에는 윤임 일파를 대윤(大尹), 윤원형 일파를 소윤(小尹)이라 하여 외척간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 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좌부승지·좌승지·공조참판이 되었는데, 인종이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하게 된 대윤의 송인수(宋麟壽)의 탄핵으로 삭직되었다. 그러나 인종이 8개월 만에 죽고, 11세의 어린 나이로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이를 계기로 득세해 예조참의에 복직되었다. 대윤 일파를 숙청하기 위해 이기(李咬)·정순봉(鄭順朋)·임백령(林百齡) 등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안으로는 난정(蘭貞)이라는 자기의 첩을 궁중에 들여보내 대비와 임금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일찍이 이기는 병조판서가 되려 할 때 유관(柳灌)이 이를 방해했고, 임백령은 기생첩 때문에 윤임과 다툰 일로 원한을 품었으며, 정순봉은 평소부터 사람들을 미워해 언제든지 한번 분풀이를 하려고 버리고 있었다. 이에 그는 이들과 결탁해 윤임을 제거하는 동시에 유관·유인숙(柳仁淑) 등에게까지 화가 미치도록 음모를 꾸몄다. 음모의 내용은 “임금(인종)의 병환이 위중할 때에 윤임이 장차 제 몸을 보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임금의 아우(명종) 대신 계림군 유(桂林君留)를 세우려고 하였다. 여기에 유관과 유인숙도 협력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문정왕후는 예조참의로 있던 그에게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처치하라는 밀지를 내렸다. 그러나 처벌을 반대하는 공론이 일기도 하였다. 즉 승정원을 거치지 않아 세인의 의혹을 피할 길이 없고, 또 신하의 의리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당시 대행왕(大行王)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심한 죄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왕실 외척간의 문제로 왕의 덕에 누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결국 8월 29일 궁중에서 의금부에 전지를 내려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사사하였다.

나가지 못하였으며, [일화 2] 홍문관(玉堂)⁴⁸에 있을 때에는 진복창(陳復昌)⁴⁹이 (자신의 상관인) 부제학(副提學)이었는데도, 하사주(下賜酒)에 취해 진복창을 꾸짖으면서 술잔을 당겨 별주를 들게 함으로써 곁에서 보는 사람을 떨게 하였고, [일화 3] 사헌부(霜臺)⁵⁰에 근무할 때에는, 유신사람(維新人) 최하손(崔賀孫)⁵¹이 권간(權姦)들이 현(縣)에 “중대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잡혔지만(大獄) 남은 무리가 있다”고 제소하면서 그 화가 사림(士林)에게 미칠 것을 바라고, 대사헌으로 있던 진복창(陳復昌)도 그 일을 엿어보려고 노력하자, (이에) 공(公)이 “이것은 사헌부가 맡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일이 안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일들로) 진복창(陳復昌)이 공을 싫어하였으나, 끝내 해치지지는 못하였다. [일화 4] 명종(明廟)께서 조신(朝臣) 가운데, 청렴결백한 사람을 뽑으라는 명을 내리자, 공(公)도 선발되었다. 이에 대궐 뜰에서 잔치를 베풀고 물품 또한 하사하였는데, 그 총애함이 남달랐다.

C-8) 癸丑。丁內艱 上 特賜祭奠需。公 廬墓盡禮 一不到家。制除以校理召。歷拜執義·議政府 檢詳舍人·應教·典翰·至直提學。三司則前後遷 除多再授。

c-8) 1553년(계축, 41세) 상⁵²을 당하자, 임금께서 특별히 제사⁵³에 필요한 물품을 하사하였다. 공(公)은 여묘(廬墓)⁵⁴살이를 할 때 예(禮)를 다하여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이후) 임금께서 교리(校理)로 불러들였으며, 이후 집의(執義), 의정부(議政府) 검상사인(檢詳舍人), 응교(應教), 전한(典翰)을 역임한 후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삼사(三司)에는 전후(前後)에 걸쳐 임명되었는데, 이렇게 두 번 이상 같은 직임(職任)을 맡은 적이 많았다.

C-9) 丁巳。特陞刑曹參議 朝家嘗設局 參定四書句讀 公爲都廳。至是仍句管 卒事拜同副承旨 序進至都承旨。

c-9) 1557년(정사, 45세)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올랐다. 이때 조정(朝廷)⁵⁵에 임시위원회를 만들어(設局), 여러 책을 참고하여 사서(四書, 논의·맹자·대학·중용)의 구두를 찍었는데, 공(公)이 위원장⁵⁶이 되

48) 옥당(玉堂) : 홍문관(弘文館).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49) 진복창(陳復昌) : ? ~ 1563(명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양(驪陽). 자는 수초(遂初). 풍덕(風德) 출생. 유번(有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석경(錫卿)이고, 아버지는 현감 의손(義孫)이며, 구수담(具壽聃)의 문인이다. 1535년(중종 30) 생원으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그 뒤 정자전적·장령을 거쳐 부제학·부평부사 등을 지냈다. 척신 세도가 있던 소윤 윤원형(尹元衡)의 심복이 되어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 때 대운에 속한 사람의 숙청에 크게 활약,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자 사관(史官)들로부터 ‘독사(毒蛇)’로 기록되었다. 1550년에는 자기를 추천하여 준 구수담까지 역적으로 몰아 사사(賜死)하게 하는 등 윤원형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옥사를 일으켜 제거하자 ‘극적(極賊)’이라는 혹평을 들었다. 대사헌을 거쳐 1560년 공조참관에 올랐으나 윤원형으로부터 간교, 음험한 인물로 배척, 과직되어 삼수(三水)에 유배되었다. 1563년 죄가 가중,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교활한 성품과 어머니의 행실까지 방종하여 더욱 지탄을 받았으나 문장과 글씨에는 뛰어나 「역대가(歷代歌)」、「만고가(萬古歌)」 등의 시가를 남겼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50) 상대(霜臺) : 사헌부(司憲府). 고려 말기 및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

51) 최하손(崔賀孫) : 미상.

52) 내간(內艱) : 어머니나 승중(承重) 조모(祖母)의 상사(喪事).

53) 제전(祭奠) : 의식을 갖춘 제사와 의식을 갖추지 않은 제사를 통 털어 일컫는 말.

54) 여묘(廬墓) : 상제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살면서 묘를 지키는 일.

55) 조가(朝家) : 조정(朝廷).

어 그대로 일을 관할하였다. 일을 마친 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승진하여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C-10) 己未。遞拜戶曹參議 移吏曹。庚申。復由都承旨 特陞工曹參判。尋出觀察江原道。秩滿。襲爵封君。特拜漢城府右尹。方李樑 用事忌公 久置散班 故有是命。

c-10) 1559년(기미, 47세)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다가 이조(吏曹)로 옮겼다. 1560년(경신, 48세) 다시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올랐다가, 강원도 관찰사(觀察江原道)로 나갔다. 임기를 마친 후 봉작(封爵)을 받았고,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을 맡았다. 당시 이량(李樑)이라는 인물⁵⁷⁾ 멋대로 권세를 부리면서⁵⁸⁾ 공(公)을 시기하여 오랫동안 산반(散班)에 두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C-11) 壬戌。出觀察慶尙道。元衡親黨 多守郡邑 怙勢貪縱。公 悉貶逐之 元衡大銜。又有妖僧 稱內旨 伐盡仁廟胎峯樹木。公 嚴訊致之死。東朝震怒 命適方伯 三司并爭太學生陳章 得仍之。

c-11) 1562년(임술, 50세) 경상도 관찰사(觀察慶尙道)로 나갔다. (그곳에는) 윤원형의 무리(親黨)들이 군읍(郡邑)의 수령으로 많이 나가 권세를 믿고 탐욕스럽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공(公)이 그들 모두 벼슬을 떼고 내쫓아 윤원형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 한 요망한 승려가 임금의 은밀한 명령⁵⁹⁾이라고 칭하면서 인종(仁廟)의 태를 묻은 산(胎峯)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자 하니, 공(公)이 엄히 신문(訊問)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문정왕후⁶⁰⁾가 진노하여 관찰사(方伯)을 바꾸라고 명을 내렸는데, 삼사(三司)가 합세하고 성균관의 유생(太學生)들도 상소를 올려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C-12) 癸亥。適貳京尹兼同知義禁府 由工參 出觀察平安道。辭日賜煖帽皐。比既按事 痛革稅政 儉已裕民 一方懷之。俗尙弓馬昧儒學。公 悉誠導誨 建書院于平壤。又設印書局。自是 登科名者繼踵。秩滿 以大司諫召 未至。移拜吏曹參判。

c-12) 1563년(계해, 51세)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에서 좌윤(左尹)으로 교체되었고, 동지의금부(同知義禁府)를 겸임하였다가 공조참판(工曹參判)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觀察平安道)로 나갔다. 하직하고 떠나는 날 따뜻한 털모자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탄자를 하사하였다. (평안도 관찰사 일을 할 때) 기왕의 일들을 참고하여 그릇된 정치(稅政)를 통렬히 개혁하면서 자신에게는 검소하고 백성들을 너덕케 하니 모든 사람이 잘 따랐다. (당시 평안도) 풍속이 활쏘기와 말타기는 숭상하면서 유학(儒學)에는 어두웠으므로, 공(公)이 정성을 다하여 배움으로 이끌고자 평양(平壤)에 서원(書院)을 세우고, 또 책 출판국(印書局)을 세웠다. 이후 (평안도 사람으로) 등과(登科)하여 이름을 올린 자가 계속 이어졌다. 임기를 마친 후 대사간(大司諫)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도착하기 전에 이조참판(吏曹參判) 일을 맡게 되었다.

C-13) 公庶姑爲元衡寵妾。元衡顯國 舉世附麗 公獨毅然自守。元衡 以妾爲妻受封誥 親屬咸尊事之 公

56) 도청(都廳) : 도감(都監)에 딸린 벼슬의 하나.

57) 이량(李樑) : 미상.

58) 용사(用事) : 용권(用權). 멋대로 권세를 부림.

59) 내지(內旨) : 임금의 은밀한 명령.

60) 동조(東朝) : 대비가 거처하던 궁궐.

獨不加禮。內外積憾 累欲中以奇禍 賴妾母救護得免。至是元衡敗。公 始登顯位。

c-13) 공(公)의 서고모(庶姑)는 윤원형의 총첩(寵妾)⁶¹⁾이었다. 원형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아첨했지만 공(公) 만이 홀로 의연하게 자신을 지켰다. 원형이 첩(妾)을 처(妻)로 한 후 봉작을 위한 명령서를 받았을 때, 친속(親屬)들이 모든 존중하고 받들었을 때에도 공(公)만이 예(禮)를 더하지 않았다. 집안 안팎의 사람들이 감정이 쌓여 여러 차례 증상모략으로 화를 입히려 했지만, 첩모(妾母, 정난정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면할 수 있었다. 이후 원형이 패함에 이르러, 비로소 공(公)이 높은 자리⁶²⁾에 오를 수 있었다.

C-14) 丙寅。擢授京兆尹·五衛都總管。丁卯。以進香使朝京及還。以皇朝所聞見陳啓 意在諷諭 勸戒深切 人聽之。冬。以刑曹判書 出僉詔使。中路病遘。仍留爲餞慰使。

c-14) 1566년(병인, 54세) 한성부윤(京兆尹)과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에 발탁되었고, 1567년(정묘, 55세) 진향사(進香使)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명나라 조정에서 보고들은 바를 그대로 임금께 아뢰었는데, 그 말뜻에는 슬며시 돌려 타이르는 말⁶³⁾도 있고, 권하고 경계하는 바가 매우 간절하여 사람들이 모두 바르게 여겼다. 그 해 겨울 형조판서(刑曹判書) 자격으로 빈조사(僉詔使)로 나갔다가 중간에 병이 나 지체하였지만, 그대로 머물러 전위사(餞慰使)가 되었다.

C-15) 己巳。朝廷有南顧憂。大臣舉公。巡察全羅道。秩滿。還拜刑曹。

c-15) 1569년(기사, 57세) 조정(朝廷)에서 남쪽 우환을 살필 사람들로 대신(大臣)들이 공(公)을 추천하여 전라도(全羅道)를 순찰(巡察)하였다. 일을 마친 후, 형조(刑曹)로 돌아와 일을 맡았다.

C-16) 辛未至己卯。一判戶·工曹。再判兵·吏。三判禮·刑。則至八九授。間知中樞·敦寧兼知經筵·春秋提調·備邊司。

c-16) 1571년(신미, 59세)부터 1579년(기묘, 67세)까지 호조와 공조의 판서는 한번 하였고, 병조와 이조의 판서는 두 번 하였으며, 예조와 형조의 판서는 세 번씩 하여 모두 8~9차례 판서를 하였다. 그 사이에 중추부(中樞)와 둔녕부(敦寧)의 지사(知事)와 지경연(知經筵)과 춘추(春秋) 제조(提調), 비변사(備邊司)의 일을 맡기도 하였다.

C-17) 以內醫提調侍藥 房當盛熱爐火四周。公 不脫冠帶 終日端坐。有儒相同直院 時就休偃之所曰。

“今日乃知鄭公爲難及也”。以勞陞正憲 再爲參贊。

c-17) 내의(內醫) 제조(提調)로서, 약을 써서 병환을 시중할 때의 일이다.⁶⁴⁾ 방안에는 화롯불 사방이 한 더위의 열을 불사하였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公)은 관대(冠帶, 公服)를 벗지 않고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 있었다. 선비(儒醫)들이 서로 당직을 서면서 때때로 휴게소에 나가 쉬면서 말하기를 “오늘에야 정공(鄭公)이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하였다. 이런 공로로 정헌(正憲)에 올랐다가 다

61) 총첩(寵妾) : 극진히 사랑을 받는 첩. 여기서는 정난정(鄭蘭貞)을 말함.

62) 현위(顯位) : 높은 자리.

63) 풍유(諷諭) : 슬며시 돌려 타이르거나 빗대어 말함.

64) 시약(侍藥) : 시탕(侍湯)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65) 성열(盛熱) : 한 더위.

시 참찬(參贊)이 되었다.

C-18) 擢拜右贊成。臺臣論請改正。上曰。“新贊成 國家 舊宰大臣所舉也。曾在先朝 不媚於寵。逮寡躬 裨益弘多。其才器 固非不合。但不如 時人之矯激耳”。臺論即停。遂辭。迺迭判中樞·敦寧。

c-18) 우찬성(右贊成)에 발탁되자, 당시 대신(臺臣)들이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말하기를 “새로 찬성(贊成)이 된 사람은 국가의 오랜 재상으로, 대신(大臣)들이 천거한 분이다. 일찍이 선대 때에도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았고, 과인에게 이르러서는 몸소 돕고 이로움을 주는 바가 크고 많아 그 재주와 기량이 합당하지 않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고 격렬함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대신(臺臣)들의 논의는 중지되었지만, 마침내 사양하고 중추부(中樞)와 돈녕부(敦寧)의 일을 맡았다.

C-19) 壬午四月。乞致仕再啓。不許。嘗有詩曰。“周流六部今成老 端合田園退省愆”。公 每欲退歸 而勳府 無他宰管領 爲是遲回者 六七年。

c-19) 1582년(임오, 70세) 4월 치사(致仕)⁶⁶⁾하고자 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으나 허락 받지 못하였다. 일찍이 시(詩) 하나를 지었는데, “두루 육부(六部) 일을 맡아 하다 이제 늙었으니, 전원(田園)으로 물러나 허물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공(公)은 매번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충훈부(勳府)에서 모든 일을 총괄할⁶⁷⁾ 다른 재신(宰臣)이 없다는 이유를 대어 몇 차례 지연된 것이 6, 7년이나 되었다.

C-20) 逮鄭西川崑壽襲封 遂決退志。己丑 命家人 勿受夏祿 乃申前請乞骸。上 命稽舊典 禮曹以退溪先生 乞致仕授啓。上 特允公請。實曠世盛事也。特命給馬。且諭本道賜食物(먹을 것과 물건)。公 陳筭辭謝 答 “以欲爲引見 聞卿艱於行步 故不果” 仍賜毛褥·藥物。遣中使 宣醞于江樓。命一行親屬 并入參行路 聳觀歎息泣下。傾都出餞 車馬無筭。

c-20) 그러다 정곤수(鄭崑壽)가⁶⁸⁾ 봉작을 이어받자, 마침내 물러날 뜻을 결행할 수 있게 되어, 1589년(기

66)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조선시대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치사하는 경우에는 예조(禮曹)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된 1품관에게는 궤(几)와 장(杖)을 하사하였다.

67) 관령(管領) : 도맡아 통솔함.

68) 정곤수(鄭崑壽) : 1538(중종 33) ~ 1602(선조 3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초명은 규(逵).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柏谷)·경음(慶陰)·조은(朝隱).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이다. 성주(星州)에 향촌적 기반을 두었다. 증 이조판서 윤증(胤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직 응상(應祥)이고, 아버지는 부사명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성주 이씨(星州李氏)로 환(煥)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 승문(承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565년(명종 20) 예안 도산정사(陶山精舍)로 이황(李滉)을 찾아가 『심경(心經)』을 전수하였다.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해, 1566년에는 김평필(金宏弼)의 사적·시문과 그에 관한 다른 선비들의 글을 모아 이황에게 보냈으며, 이황은 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경현록(景賢錄)』을 편찬하였다. 1555년 별거 초시(別舉初試)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72년 성균관의 천거를 받아 의금부도사로 벼슬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력·전생서직·장주부·장례원사평을 역임하였다. 1576년(선조 9) 증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했고, 부사과를 거쳐 1577년에 공주목사로 승진했다가 곧 상주목사로 옮겼다. 1581년 사과·과주목사, 1583년 부호군 겸 오위장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 때 단종의 능인 영월의 노릉(魯陵)에 사묘(祠廟)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585년 첨지중추부사·동부승지·우부승지, 1586년 상호군·호조참의·좌부승지·우승지를 거쳐, 1587년 여러 해 동안 흉년을 겪은 황해도·관찰사로 특별히 임명되어 진휼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88년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졌다. 1589년 도총관을 겸하고 판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충훈부 공신등록을 편찬하고 동지돈녕부사 겸 오위장·대사성·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1591년 동지의금부사·대사성·

축, 77세) 집안 사람들에게 그해 여름에 나오는 녹봉(夏祿)을 받지 말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치사(致仕) 하고자 하는 청을 다시 아뢰었다. 임금께서 옛 사례(舊典)를 찾아 볼 것을 명하자, 예조(禮曹)에서 퇴계(退溪) 선생의 예에 따라 치사(致仕)할 수 있도록 계(啓)를 올렸다. 이에 임금께서 특별히 공(公)의 청을 윤택하였으니, 실로 세상에서 매우 드문⁶⁹⁾ 훌륭한 일⁷⁰⁾이었다. 특별히 말을 주시고 강원도(本道)에서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을 하사(下賜)하도록 하였다. 공(公)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자, (임금께서) 답하시길, “내가 직접 불러 만나 보고자 하였으나⁷¹⁾ 경(卿)이 걸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털로 된 요(毛褥)와 약물(藥物)을 하사하시고, 강루(江樓)에서 술을 내려 주시면서⁷²⁾ 일행 친속(親屬)들에게 같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높은 데서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에 서울 사람들이 모두 전별연에 나왔는데, 거마(車馬)조차 소리를 내지 않았다.

D-1) 既還原州故居。日與鄉里親舊 優遊山水間 歌酒娛樂。七月寢疾。以八月十一日卒。壽七七。

d-1) 이윽고 원주 옛집으로 돌아왔다. 날마다 고향(鄉里) 친구들과, 산수(山水)를 찾아 돌아다니면서,⁷³⁾ 노래를 부르고 술 마시며 한가롭게 소일하였다. 7월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寢疾) 이후 8월 11일 돌아가셨다. 누린 나이 77세였다.

D-2) 上 震悼輟朝。賻祭如令式 官庀葬具。十月二三日。禮窆于橫城縣北公根里子坐原。鄉土追慕 配祀于耘谷書院。

d-2) 임금께서 벼락이 떨어진 듯이 슬퍼하며(震悼), 며칠 동안 아침조회도 하지 않았다(輟朝). 법과 격식에 맞게 제사지낼 수 있도록 부의(賻儀)하였으며, 관(官)에서는 장례식에 쓰이는 도구(葬具)를 내 주었다. 그 해 10월 23일 횡성현(橫城縣) 북(北) 공근리(公根里) 북쪽 밭자리(子坐原)에 예를 다해 장사지냈다. 고향 선비(鄉士)들이 공(公)을 추모하여耘곡서원(耘谷書院)에 배향하고 제사를 지냈다.

E-1) 公 資性愷悌 局度弘毅。以嚴敬飭身 以禮法御家。日必夙興 正坐觀書。口無疾言 體無惰容。

e-1) 공(公)은, 천성(天性)⁷⁴⁾이 화락하고 단아하며,⁷⁵⁾ 도량은⁷⁶⁾ 넓고도 강하였다.⁷⁷⁾ 엄중하고 경건함으로

한성부좌윤 등을 거쳐 1592년 병조참판이 되었다가 형조참판으로 옮겼다. 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였다. 대사간이 되어서는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도록 건의했으며, 청병진주사(請兵陳奏使)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1593년 원병을 얻어온 공로로 승정대부에 오르고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이즈음 영위사(迎慰使)·접반사(接伴使)를 맡아 명나라 장수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거듭 보국승록대부에 오르는 상을 받고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1595년 도총관·예조판서, 1596년 좌찬성을 역임하고, 1597년 판의금부사·도총관 등을 겸하고 사은 겸 변무진주사(謝恩兼辦誣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선조를 호종한 원훈으로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녹훈되었다. 일찍이 수령을 지낼 때는 학문 진흥과 사풍(士風) 진작에 힘썼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대명외교에 큰 역할을 했다 한다. 죽은 뒤인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성주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백곡집』 4권 4책이 규장각 도서에 전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었다가 충익(忠翼)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栢谷集, 寒岡集.

69) 광세(曠世) :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
 70) 성사(盛事) : 훌륭하고 잘한 일.
 71) 인견(引見) : 아랫 사람을 직접 불러 만나 봄.
 72)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려 줌.
 73) 우유(優遊) : 하는 일 없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잘 지냄.
 74) 자성(資性) : 천성(天性).
 75) 개제(愷悌) : 얼굴과 기상(氣像)이 화락하고 단아함.
 76) 국도(局度) : 사물을 처리하고 사람을 포섭하는 도량.

자신을 경계했고, 예법(禮法)으로서 집안을 이끌었다. 날마다 일찍 일어나⁷⁸⁾ 바른 자세로 앉아 책을 보셨으며, 말할 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고,⁷⁹⁾ 몸가짐에 게으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E-2) 年踰七十 祭必親執奠薦 睦婣任恤 恩意周遍 與庶弟妹 祈貲 多推已得與之。

e-2) 나이가 70을 넘어서도 제사 때 음식을 진설(陳設)하는 일은 반드시 손수 하셨고,⁸⁰⁾ 일가친척을 화목하게 이끌고 은혜를 베풀 때도 두루 하였다. 서모(庶母)에게서 난 동생과 누이에게 재물(財物)을 나누어 줄 때에는 자기 몫을 떼어내 많이 주었다.

E-3) 慕齋卒後 母事其夫人 子視其後嗣 忌日必助祭食素。國恤至卒哭素食。國忌亦然 雖衰老不變。

e-3) (스승인) 모재(慕齋)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부인(夫人)을 어머니처럼 모셨으며, 그 후사(後嗣)⁸¹⁾를 자식처럼 돌보았다. 기일(忌日)에는 반드시 제사지내는 것을 도우면서 소찬(素餐)으로 식사하였다. 국상(國喪)이 나면⁸²⁾ 졸곡(卒哭)에⁸³⁾ 이르기까지, 소찬(素餐)으로 식사하였고, 임금과 왕비의 제사⁸⁴⁾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으니, 몸은 비록 늙고 쇠하였으나 (그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E-4) 將詣經筵 必易服齋戒 取進講書 溫熟至夜深。恬靜却掃 不事交遊。定力堅確 不爲威利所奪。見人過誤 專務蓋覆人。有毀己若不聞焉 其人後自愧服。慮事深遠 綜理緻密。

e-4) 경연(經筵)에⁸⁵⁾ 나갈 때에는 반드시 옷을 바꾸어 입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으며,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할 때에는⁸⁶⁾ 밤 깊을 때까지 원만하게 이끌었다. 편안하고 고요하게⁸⁷⁾ (주위를) 정리하여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확정된 학문의 힘은⁸⁸⁾ 단단하고 확실했으며, 위세와 이권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보면, 힘써서 그 사람을 덮어주고자 노력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헐뜯더라도 듣지 못한 척하여 그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었다. 일을 도모함에는 깊고 원대하였으며, 주밀(周密)하고 조리(條理)있게 일을 대함은⁸⁹⁾ 빈틈없이 꼼꼼하였다.

E-5) 巡歷邊陲 不憚險遠 關防要害 兵力殘盛 一經瞭然。早被儒將 世常以師垣 重望歸之。按四道·長六官 必以興學固本 遵守成憲爲務。雖不汲汲於施爲 而自有月計之益。久長司寇 接獄平恕 惟恐有冤

77) 홍의(弘毅) : 뜻이 넓고 굳셈.

78) 숙흥(夙興) : 아침에 일찍 일어나.

79) 질언(疾言) : 급한 말투. 덩벙거리는 말투.

80) 친집(親執) : (남을 시키지 않고) 손수 잡음. 친히 함.

81) 후사(後嗣) : 대를 잇는 자식.

82) 국휼(國恤) : 국상(國喪).

83) 졸곡(卒哭) :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달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서 지냄.

84) 국기(國忌) : 임금과 왕비의 제사.

85) 경연(經筵) :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신하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궁중에 불러 경적(經籍)과 사서(史書)등을 강론케 하는 일.

86) 진강(進講) :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함.

87) 염정(恬靜) : 안정(安靜).

88) 정력(定力) : 확정된 학문의 힘.

89) 종리(綜理) : 주밀(周密)하고 조리(條理)있게 일을 처사함.

民。嘗以執法緩刑 忤當路罷免。其主本兵 公選任振淹滯 將士咸悅。

e-5) 변경(邊境)을⁹⁰⁾ 순회(巡廻)할 때에는⁹¹⁾ 험하고 먼 곳을 꺼리지 않았으며, 국경 방비에⁹²⁾ 중요한 지점과⁹³⁾ 병력(兵力)이 약하고 강한 곳인 지를, 눈 길 한 번으로서 환하고 똑똑하게 알았다. 일찍이 유장(儒將)으로⁹⁴⁾ 뽑히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원(師垣)⁹⁵⁾이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명망이⁹⁶⁾ 돌아왔다. 사도(四道)⁹⁷⁾ 감사와 육부(六官) 판서를⁹⁸⁾ 할 때에는 학문을 흥(興)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고, 법⁹⁹⁾ 준수(遵守)하는 것을 임무로 알았다. 어떤 일을 베푸는데¹⁰⁰⁾ 급급(汲汲)하지¹⁰¹⁾ 않았지만, 스스로는 달마다 이익이 축적됨이 있었다. 형조판서(刑曹判書)를¹⁰²⁾ 오래 했는데, 송사(訟事)를 대할 때에는 마음을 끈고 바르게 하면서 늘 원통한 백성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전에 법을 집행할 때에 형벌을 관대하게 했다고 해서¹⁰³⁾ 요로(要路)에 있는 사람들¹⁰⁴⁾ 거슬리어서 파면(罷免)된 일이 있었다. 병조판서(兵曹判書)를¹⁰⁵⁾ 맡았을 때에는, 세상에 나서지 못하고 파문혀 있는 사람들을¹⁰⁶⁾ 뽑아서 일을 맡겨(士氣를) 진작시킴으로써 장사(將士)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E-6) 時 士論方貳。公介立不倚絕 不與後輩相昵。初爲吏判被劾 適未久復授。郎官來謁未嘗開 款私議通塞人。郎官 因子弟告銓規不然。公笑曰。“公座亦可商量 何必私議”。其莊重·公正如此然 後輩不悉公心。事或加倚撫 而公亦不恤也。

e-6) 당시 사론(士論)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공(公)은 두 논의에 끼어들어서¹⁰⁷⁾ 한쪽에 치우치거나 가로막는 일을 하지 않았고, 후배(後輩)들과 더불어 가까이 하는 일도 없었다. 처음 이조판서(吏判)가 되어서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 다시 복직되었다. 낭관(郎官)이 은밀히 찾아와 만나고자 하더라도¹⁰⁸⁾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사사로운 논의(私議)가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을 막았다. 낭관(郎官)이 자제 분을 통해서 인사규칙이¹⁰⁹⁾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니, 공이 웃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에서도¹¹⁰⁾ 가히 헤아려 잘 생각할 수 있는데,¹¹¹⁾ 어찌 사사로이 논의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90) 변수(邊陲) : 변경(邊境).

91) 순력(巡歷) : 감사(監司)가 도내(道內)의 각 고을을 순회하는 일.

92) 관방(關防) : 국경의 방비.

93) 요해(要害) :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막고 자기 편을 지키기 편한 지역.

94) 유장(儒將) : 선비인 장수.

95) 사원(師垣) : 나라를 지키는 장수.

96) 중망(重望) : 중대한 명망.

97) 사도(四道) : 강원·경상·평안·전라 4도 관찰사.

98) 장육관(長六官) : 이·호·예·병·형·공 6조의 판서.

99) 성헌(成憲) : 이미 이전에 제정하여 지켜오던 법.

100) 시위(施爲) : 어떤 일을 베풀어 이룸.

101) 급급(汲汲) : 골똘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음.

102) 사구(司寇) : 형조판서의 탄 이름.

103) 완형(緩刑) : 관대한 형벌.

104) 당로(當路) : 정권을 잡음. 요로에 있음.

105) 본병(本兵) : 병조판서.

106) 엄체(淹滯) : 세상에 나서지 못하고 파문혀 있는 사람.

107) 개립(介立) :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일함. 두 사물 사이에 끼여 들.

108) 내알(來謁) : 은밀히 들어가 만남.

109) 전규(銓規) : 인사 규칙.

110) 공좌(公座) :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 공석(公席).

111) 상량(商量) : 헤아려 잘 생각함.

그 장중(莊重)하고 공정(公正)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후배들도 공(公)의 마음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하는데 혹 자기 이로우만 취하더라도¹¹²⁾ 공(公) 역시 마음 쓰지 않았다.

E-7) 居家不問有無。既爲宰相 非公服不衣錦。非衰病不乘輜。未嘗增拓居室。經理田園 但飭庄戶。輸賦必先。齊民 常以盛滿。爲懼婚嫁 必避朝士家。每誡子弟曰。“吾 未嘗求便於己 而貽害於人 若曹體此心 庶乎寡過矣”。

e-7) 관직에 나가지 않고 원주 집에 머무를 때에는¹¹³⁾ 돈이 있고 없음을¹¹⁴⁾ 묻지 않았고, 재상(宰相)일 때에도 공복(公服)이 아니면 비단을 입지 않았으며, 지치고 병들 때가 아니면 말과 가마를 타지 않았고, 살던 집을 늘리지도 않았다. 혼사는 신중히 하여 당대 벼슬하는 집안(朝士)은 반드시 피하고자 했고, 항상 자제(子弟)들에게 “나는 내 자신이 편안코자 남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너희들도 이 마음을 본받는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라고 훈계하였다.

E-8) 公 學務本實 不尙詞華。或有吟詠 無非發於性情也。早從碩師 講學最專 一生 沈潛經訓 手不釋卷。柳眉巖嘗稱公曰。“讀書之功 到老尤著”。蓋眉巖 少與公同學故云然。曹南冥嘗贈公詩。‘有丹鳳高飛 不待風’之句。蓋美避遠權勢也。東臯相 嘗以精金美玉喻公。蘇齋相亦謂公有鐵石肝腸。卽此數公之評 亦足以觀公矣。

e-8) 공(公)은 배움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과 내실 있는 것(本實)을 찾는데 힘썼고, 문장의 수식을¹¹⁵⁾ 중요시하지 않았다. 간혹 시(詩)를 읊조릴 때(吟詠)가 있더라도, 성정(性情)에서¹¹⁶⁾ 울어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석사(碩師)들을¹¹⁷⁾ 모셔 배우고 연구하는 데에 일생동안 힘을 다하였고, 일생동안 경서의 해석에¹¹⁸⁾ 몰두하느라¹¹⁹⁾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학문 자세에 대해서) 미암(眉巖)¹²⁰⁾

112) 기척(倚撫) : 이로우만 취함.

113) 거가(居家) : 여기서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원주 집에 머무를 때를 말함.

114) 유무(有無) : 여기서는 돈이 있고 없음을 말함.

115) 사화(詞華) : 사조(詞藻). 시가(詩歌)나 문장. 문장의 수식.

116) 성정(性情) :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과 심정(心情).

117) 석사(碩師) : 벼슬이 없는 선비를 높여 말하는 말.

118) 경훈(經訓) : 경서의 해석.

119) 침잠(沈潛) : 성정이 가라앉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120) 유희춘(柳希春) : 1513(중종 8) ~ 1577(선조 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 해남 출신. 양수(陽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공준(公濬)이고, 아버지는 계린(桂綬)이며, 어머니는 사간 최부(崔溥)의 딸이다. 妻父는 송준(宋駿)이며, 김인후(金麟厚)와는 사돈간이다. 김안국(金安國)·최두산(崔斗山)의 문인이어서, 1538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44년(중종 39)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위해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독서에 전념하도록 휴가를 주던 제도)한 뒤 수찬·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546년(명종 1) 을사사화 때 김광준(金光準)·임백령(林百齡)이 윤임(尹任) 일파 제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응하지 않았다. 1547년 양재역(良才驛)의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함경도 중성에 안치되었다. 그 곳에서 19년간을 보내면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이 때 국경지방의 풍속에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교육을 베풀어 글을 배우는 선비가 많아졌다 한다. 1565년 충청도 은진에 이배되었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삼정승의 상소로 석방되었다. 직강·응교·교리 등을 거쳐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했으며, 이어 장령·집의·사인·전한·대사성·부제학·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75년(선조 8) 예조·공조 참관을 거쳐 이조참관을 지내다가 사직해 낙향하였다. 경전에 널리 통했고 제자(諸子)와 역사에도 능하였다. 시강·원설서·제임 시에 세자(후의 인종)의 학문을 도왔고, 선조 초에는 경연관으로 경사(經史)를 강론하였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배웠던 선조는 항상 “내가 공부할 하게 된 것은 희춘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였다 한다. 만년에는 왕명으로 경서(經書)의 구결언해(口訣諺解)에 참여해 『대학』을 완성하고, 『논어』를 주해하다가 마치지 못한 채 죽었다. 성격이 소탈해 집안 살림을 할 줄 몰랐으나,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나 학문, 정치하는 도리에 관한 말을 꺼내면 투철한

선생은 공(公)을 일러 말하기를, “책 읽는데 쏟는 노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암(眉巖) 선생이 어려서부터 동문수학(同門修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남명(南冥)¹²¹⁾ 선생도 공(公)에게 시(詩)를 지어 보냈는데, “붉은 봉황이¹²²⁾ 높이 날랐으니, 바람을 기다릴 것도

소견과 해박한 지식은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 최보(崔溥)의 학통을 계승해 이항(李恒)·김인후 등과 함께 호남의 학풍 조성에 기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담양의 의암서원(義巖書院), 무장의 충현사(忠賢祠), 종성의 중산서원(鍾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미암일기』·『속몽구(續蒙求)』·『역대요록(歷代要錄)』·『속휘변(續諱辨)』·『천해록(川海錄)』·『헌근록(獻芹錄)』·『주자어류전해(朱子語類箋解)』·『시서석의(詩書釋義)』·『완심도(玩心圖)』 등이 있으며, 편서로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이 있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121) 조식(曹植) : 1501(연산군 7) ~ 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건중(健中), 호는 남명(南冥). 생원 안습(安習)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승문원관교 언형(彦亨)이며, 어머니는 인주(仁州) 이씨로 삼가현 지역의 유력한 사족이던 충순위 이국(李菊)의 딸이다. 1501년 경상도 삼가현(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의 토골(兎洞)에서 태어나 4~7세 사이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왔으며, 이후 아버지의 벼슬살이를 좇아서 의흥(義興)·단친(端川)에 가기도 했으나 20대 중반까지 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서울의 처음 거주지는 연화방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이웃에 살던 이윤경(李潤慶, 후일의 판서벼슬을 지냄)·준경(浚慶, 후일 영의정이 됨) 형제와 절친하게 지냈으며, 이로 미루어 황효헌(黃孝獻)·이연경(李延慶)에게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18세 때 북악산 밑의 장의동으로 이사하여 성운(成運)과 평생을 같이 하는 교우관계를 맺고, 부근의 청풍계(淸風溪)에 숨어살던 성수침(成守琛) 형제에 종유하였으며,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가 죽임을 당한 일과 숙부 언경(彦卿)이 귀양가는 현실을 크게 탄식하였다. 이후 7~8년간 서울 근교의 백운대나 당촌대의 무계동(武溪洞)에 있는 절을 찾아 독서에 몰두하면서 과거에 응시하기도 했는데, 22세 때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문과의 초시에 합격했으나 회시에 실패했으며, 26세 때 부친상을 당해 고향 삼가로 돌아가 3년상을 마친 뒤, 한때 의령의 도굴산(斤堀山)에서 독서하다가 30세 되던 해 어머니를 모시고 김해 탄동(炭洞)에 있는 처가로 거처를 옮겼다. 장인인 충순위 조수(曹瑒, 본관 南坪)가 김해 일대에서 부자로 소문났던 만큼 처가의 도움으로 경제적 안정을 갖게 되어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독서에 힘쓰며 특히 31세 때 서울 친구이던 이준경과 송인수(宋麟壽)로부터 선물받은 『심경』과 『대학』을 읽고 성리학에 침잠하면서 성운·이원(李源)·신계성(申季誠)·이희안(李希顔) 등과 더불어 의리의 구명과 실천에 힘써 학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37세 되던 해 어머니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어머니를 설득, 과거를 포기한 뒤 비로소 처사로서 삶을 영위하며 본격적인 학문연구와 덕성함양에 전념하였다. 학자로서의 명망이 높아지자 1538년(중종 33) 경상도관찰사 이언적(李彦迪)과 대사간 이림(李霖)의 천거로 현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또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이언적의 요구도 후일을 기약하며 거절하였다. 45세가 되던 1545년(명종 1)의 을사사화로 이림·송인수·성우(成遇)·곽순(郭珣) 등 가까운 지인들이 화를 입게 되자 세상을 탄식하고 더욱 숨을 뜻을 굳혔으며, 마침 모친상을 당함에 삼가로 돌아가 시묘(侍墓)하였고, 상복을 벗은 후에는 김해생활을 청산, 고향인 토골에 계복당(鷄伏堂)·뇌룡사(雷龍舍)를 짓고 문인들과 함께 도학을 강론하였다. 이 시기 노진(盧所)·강익(姜翼)·김희삼(金希參) 등이 종유하였으며, 오건(吳健)·문익성(文益成)·이광우(李光友)가 처음으로 문하에 출입하였다. 1553년 조정에서 내린 사도시주부의 관직을 사양했을 때 이항이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 벼슬에 나가기를 권유하면서 “천리신교(千里神交)”를 맺기를 원하였고,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듬해인 55세 때 단성현감에 임명되었으나 “자전(慈殿)께서 생각이 깊다하나 궁중의 한 과부요, 전하는 어린 나이로 선왕의 한 아들일 뿐이니, 천백가지의 재앙을 어찌 다 감당하며 억만갈래 민심을 어찌하여 수습하렵니까?”하는 유명한 단성현감 사직소를 올려 척신정치의 폐단과 비리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임금의 크게 분발하여 명신(明新)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으로 하여금 국가 위기의 심각성을 깨우쳐도록 심금을 울리기 위해 격한 표현을 썼지만 임금의 어머니인 문정대비(文定大妃)를 과부라 한 것 때문에 죄를 입을 뻔했으나 대신과 언관의 구원으로 무사했으며, 당대 사림의 훈척공격에 모범을 보인 것이라 하여 조야에 명성을 크게 드러내게 되고 후세까지 길이 칭송되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정인홍(鄭仁弘)·하응도(河應圖)·하항(河沆)·박계현(朴齊賢) 등 후일 그 문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수업받기 시작하였다. 61세 때인 1561년 삼가의 토골에서 진주 덕산(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의 사륜동(絲綸洞)으로 거처를 다시 옮기고 산천재(山天齋)를 지어 강학하자, 진주·산청·함양·거창 등의 인근지역은 물론 서울의 선비들까지 그를 좇아 몰려들었는데, 바로 그들이 정각(鄭琢)·김효원(金孝元)·최영경(崔永慶)·김우옹(金宇襄)·이정(李楨)·김면(金沔)·조원(趙瑗) 등이었고, 정구(鄭逵)·최황(崔滉)·곽재우(郭再祐)·성여신(成汝信) 등은 이들보다 조금 늦게 문하로 들어왔다. 문정대비가 죽고 윤원형이 실각하여 척신정치가 막을 내리던 1566년(명종 21), 정치쇄신과 민심수습의 일환으로 성운·이항(李恒) 등과 함께 유일(遺逸)로 징소되어 상서원판관의 벼슬을 받자, 66세의 나이로 상경하여 사은숙배 후 임금을 면대하고 물음에 응했는데 명종의 성의와 대신의 경륜이 부족함을 알고 곧 사직, 하향하였다. 이듬해 선조가 즉위한 이후 새로운 정치를 보필할 어진 인물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징소되고, 1569년(선조 2)에는 정4품인 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의 벼슬까지 내려졌으나 조정이 헛된 자리로만 대우함을 알고 늙고 병들었음을 구실로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때로는 당시의 폐단 열 가지를 논하는 소를 올리되 민생구제가 급선무인데도 조정의 논의에 성리설만 무성할 뿐 실제(實

없다”는 구절은 권세(權勢)를 피하고 멀리했던 것을 아름답게 여겨 쓴 것이고, 동고(東臯) 선생은 공(公)을 ‘순금과 아름다운 옥(精金美玉)’에 비유하였고, 소재(蘇齋)¹²³⁾ 선생은 철석간장(鐵石肝腸)이라고¹²⁴⁾ 공(公)을 불렀으니, 이 같은 공(公)에 대한 몇 개의 평(評)으로도 충분히 공(公)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이겠다.

F-1) 公 先娶文化柳氏 司禦寺正滄(柳滄)女。早卒無子。墓在坡州。

f-1) 공(公)은 첫 번째 부인으로 사도시정(司禦寺正)을 지낸 유엄(柳滄)의¹²⁵⁾ 딸인 문화 유씨(文化柳氏)를 취(娶)하셨으나, (유씨 부인은) 자식 없이 일찍 돌아가셨다. 묘소는 파주에 있다.

惠)가 없음을 경계하였다. 특히 68세 때인 1568년에 올린 『무진봉사 戊辰封事』에서는 유명한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을 펴 서리의 작폐 근절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나라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선조 초에 일어난 진주지역의 음부옥(淫婦獄)에 관련되어 이정과 절교하고 뒤이어 그 문인들이 주동한 음부집안의 훼가출향(毀家黜鄉)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기대승(奇大升) 등 일부 관료로부터 비방을 받고 곤경에 처하기도 했는데 조정에 나와 있던 그 문인 오건정택 등의 변호로 무사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흉년이라 하여 임금이 음식물을 내려주고 72세로 별세하기 직전 의원을 보내오는 우대를 받았지만, 이정의 편에 서서 음부옥에 관한 그의 처신을 비난했던 이황의 편지가 후일 알려지면서 그 문인들 사이의 갈등을 깊게 하고, 끝내 정인홍(鄭仁弘)에 의한 이언적·이황 배척을 불러오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122) 단봉(丹鳳) : 임금, 궁궐. 아침 해에 붉은 봉황.

123) 노수신(盧守愼) : 1515(중종 10) ~ 1590(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遼齋)·이재(伊齋)·암실(暗室)·여봉노인(茹峰老人). 우의정 승(嵩)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 홍(鴻)이다. 1531년 17세에 당시 성리학자로 명망이 있던 이연경(李延慶)의 딸과 결혼하고, 장인의 문하생이 되었다. 1541년 27세 때 이언적(李彦迪)과 최초의 학문적 토론을 벌였다. 1543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한 뒤로 전적(典籍)·수찬(修撰)을 거쳐, 1544년에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가 되고, 같은 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인종 즉위 초에 정언이 되어 대윤(大尹)의 편에 서서 이기(李咬)를 탄핵해 파직시켰으나, 1545년 명종이 즉위하고,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이조좌랑의 직위에서 파직, 1547년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죄가 가중됨으로써 진도로 이배되어 19년간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동안 이황(李滉)·김인후(金麟厚) 등과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했고, 진백(陳柏)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주해하였다. 이 주해는 뜻이 정명(精明 : 정교하고 명확함)해 사림 사이에 전승(傳誦 : 전하여 외워움)됨으로써 명성이 전파되었다. 또한 『대학장구(大學章句)』와 『동몽수지(童蒙須知)』 등을 주석하였다. 1565년 다시 괴산으로 이배되었다가 1567년에 선조가 즉위하자 풀려나와 즉시 교리(校理)에 기용되고, 이어서 대사간·부제학·대사헌·이조판서·대제학 등을 지냈으며, 1573년에는 우의정, 1578년에 좌의정을 거쳐 1585년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1588년에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으나, 이듬해 10월에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과거에 정여립을 천거했던 관계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그는 시문·서예에 능했으며, 경일(敬一) 공부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도심미발(道心未發)·인심이발설(人心已發說)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양명학(陽明學)도 깊이 연구한 탓에 주자학파의 공격을 받았다. 또한 승려인 휴정(休靜)·선수(善修) 등과의 교분을 통해 학문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입기도 하였다. 학문에서는 그가 일찍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 경연에서 『서경』을 강함에 인심도심(人心道心)의 설명이 주자설과 일치했으나, 진도로 유배되어 그 당시 들은 나흠순(羅欽順)의 『곤지기(困知記)』를 보고 난 후는 전설(前說)을 변경해 도심은 미발, 인심은 이발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한편 그의 덕행과 업적의 성과는 매우 다양해, 인군과 백성들, 그리고 많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가 진도에 귀양갔을 때 그 섬 풍속이 본시 혼례라는 것이 없고 남의 집에 처녀가 있으면 중매를 통하지 않고 칼을 빼들고 서로 쟁탈하였다. 이에 예법으로써 섬 백성들을 교화해 드디어 야만의 풍속이 없어졌다. 또한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 대상 후에 바로 흑색의 갓을 쓰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해 백포립(白布笠)을 쓰고 다니기를 국상(國喪) 때와 같이 했는데, 그 뒤 직제학 정철(鄭澈)이 이를 본받아 실행했고, 뒤에 교리 신점(申點)이 주청해 담제(諛祭) 전에는 백포립을 쓰도록 제도화시켰다. 그는 온유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문신이자 학자로서 사람의 중망을 지녔으며, 특히 선조의 지극한 존경과 은총을 받았다. 충주의 팔봉서원(八峰書院),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봉산서원(鳳山書院), 진도의 봉암사(鳳巖祠),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소재집』 13권 8책이 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며, 뒤에 문간(文簡)으로 고쳤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遼齋集, 栗谷全書(李珣), 東儒師友錄(朴世采), 燃藜室記述(李肯翊), 國朝人物考, 朝鮮名臣錄(李章薰),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71).

124) 철석간장(鐵石肝腸) : 의지가 굳은 사람.

125) 유엄(柳滄) : 미상.

F-2) 後娶星州李氏 繕工監役揜女 星山府院君稷後也。有女士行 奉祭奠以敬 訓子女以法 賙宗族以惠。理闕儉勤常以紡績 拮据衣食家衆。別藏公俸祿 以待公不時之需。曰。“官祿非常有者 經用何可靠”。此 使公忘內顧 而專心德業者 蓋多夫人之助也。夫人 生于嘉靖癸未四月五日 卒於萬曆己亥九月二九日 壽亦七七 祔葬公墓。

f-2) 두 번째 부인은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낸 엄(揜?)의¹²⁶⁾ 따님이고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직(稷)의¹²⁷⁾ 후손인 성주 이씨(星州李氏)를 취하였다. (이씨는) 여사(女士)의¹²⁸⁾ 행실이 있어서, 제사를¹²⁹⁾ 모실 때에는 공경스러움을 다하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는 법도에 맞게 하였으며, 문중 사람들¹³⁰⁾ 도와 줄 때에는 은혜롭게 하였다. 집안일을 할 때에도 검소하고 부지런하여 항상 길쌈하면서¹³¹⁾ 가족들을 입히고 먹이기에 애쓰느라 쉴 틈이 없었다.¹³²⁾ 공이 받아오는 녹봉은¹³³⁾ 별도로 보관하여 공이 불시에 필요한 수요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관직이나 녹봉이라는 것이¹³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날마다 써야 하는 비용을¹³⁵⁾ 어찌 이에 의지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렇듯 공(公)으로 하여금 집안일을¹³⁶⁾ 잊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 덕업(德業)을¹³⁷⁾ 쌓을 수 있게 한 것은 대부분 부인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인께서는 1523년(嘉靖 癸未) 4월 5일에 태어나 1599년(萬曆 己亥) 9월 29일에 돌아가셨으니, 누린 나이 77세였다. 공(公)의 묘지에 합장하였다.

F-3) 後有四男二女。男 長燾 通政·牧使 次烈別提 老職嘉善 次默郡守 次惑文科 觀察使。女 長 適贈大司憲崔景祥 次 適進士趙文璧。側室 四女 婿朴大慶·尹湜·金仁元·李興孝。

f-3) 자식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네 아들로는 통정대부이며 양주목사를 지낸 약(燾)과¹³⁸⁾ 별제(別提)¹³⁹⁾를 지낸 후 노직(老職)¹⁴⁰⁾으로 가선(嘉善)에 오른 열(烈),¹⁴¹⁾ 군수를 지낸 묵(默),¹⁴²⁾ 문과에 올라 관찰

126) 이엄(李揜?) : 미상.

127) 이직(李稷) : 미상.

128) 여사(女士) : 학덕이 높은 어진 여자.

129) 제전(祭奠) : 의식을 갖춘 제사와 의식을 갖추지 않은 제사를 모두 가리키는 말.

130) 종족(宗族) : 동성동본(同姓同本)의 겨레붙이.

131) 방적(紡績) : 길쌈. 섬유 원료에서 피륙을 짜내기까지의 모든 수공 일.

132) 길거(拮据) : 애써서 몹시 바빠 일함.

133) 봉록(俸祿) : 녹봉(祿俸).

134) 관록(官祿) : 관직과 녹봉.

135) 경용(經用) : 날마다 쓰는 비용.

136) 내고(內顧) : 집안일을 살피어 돌봄. 집안일이나 아내나 지식일로 걱정함.

137) 덕업(德業) : 어질고 착한 업적.

138) 정약(鄭燾) : 미상.

139) 별제(別提) :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경사·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6인 등 모두 5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였지만 동반실직(東班實職)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정직3품 이하관과 마찬가지로 제수된 뒤에 대간에 이문(移文 : 동등한 관서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서 또는 보내는 문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전사(前仕 : 벼슬을 그만둔 자가 다시 벼슬할 경우에 그전에 벼슬한 일수)를 통산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별제와 같은 무록관은 녹봉을 절약하고 공신이나 음관자제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직녹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정직참상녹관은 3~4년만 근무하여도 1급을 올려주었는데, 무록관은 6~7년을 근무하여도 승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 설치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조 이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그 뒤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1466년(세조 12) 1월 대대적인 관제개혁에 따라 생겨나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40) 노직(老職) : 노인을 우대하기 위해 제수(除授)하는 산직(散職). 매년초 각도 관찰사가 제읍(諸邑) 호적(戶籍)에서 80세

사(觀察使)를 지낸 혹(惑)이 있었고,¹⁴³ [딸 가운데 정실(正室)의 첫째] 딸은 최경상(崔景祥, 贈大司憲)에게,¹⁴⁴ 다음은 조문벽(趙文璧, 進士)에게¹⁴⁵ 시집을 보냈고, 측실(側室)의 네 딸은 각각 박대경(朴大慶),¹⁴⁶ 윤식(尹湜),¹⁴⁷ 김인원(金仁元),¹⁴⁸ 이흥효(李興孝)에게¹⁴⁹ 시집을 보냈다.

F-4) 燾。四男。基廣文科左尹八川君 基成副護軍 基平·基豐文科府尹。五女。丁好敬進士·韓復胤副護軍·權宗吉·尹毅立判書·李應蕃大司憲。

f-4) 첫째 아들 정약(鄭燾)은 4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문과에 올라 좌윤(左尹)¹⁵⁰을 지낸 후 팔천군(八川君)에 봉해진 기광(基廣),¹⁵¹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기성(基成),¹⁵² 문과에 올라 부윤(府尹)을 지낸 기평(基平),¹⁵³ 기풍(基豐)이¹⁵⁴ 있었고, 다섯 딸은 각각 정호경(丁好敬, 進士),¹⁵⁵ 한복윤(韓復胤, 副護軍),¹⁵⁶ 권종길(權宗吉),¹⁵⁷ 윤의립(尹毅立, 判書),¹⁵⁸ 이응기(李應蕃, 大司憲)에게¹⁵⁹ 시집을 보냈

이상된 노인을 뽑아 기왕에 받은 노직(老職)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이조(吏曹)에 보고하여 제수하게 되어 있었음.

141) 정열(鄭烈) : 미상.

142) 정묵(鄭默) : 미상.

143) 정혹(鄭惑) : 미상.

144) 최경상(崔景祥) : 미상.

145) 조문벽(趙文璧) : 미상.

146) 박대경(朴大慶) : 미상.

147) 윤식(尹湜) : 미상.

148) 김인원(金仁元) : 미상.

149) 이흥효(李興孝) : 1537(중종 32)~1593(선조 26). 조선 중기의 화가.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순(仲順). 상좌(上佐)의 아들이다. 화원이었으며 수문장을 지냈다. 허균(許筠)이 찬한 「이정애사(李楨哀辭)」에 의하면, 형 송효(崇孝)가 일찍 죽자 조카인 정(楨)을 맡아 양육하며 화가로 대성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어숙권(魚叔權)의 『폐관잡기(稗官雜記)』에는 그림을 잘 그리 명종의 어용(御容)까지 그리고 군직(軍職)을 제수받았으며, 김시(金瑒)의 필법을 좋아하였다고 전한다.

150) 좌윤(左尹) : 조선시대 한성부의 종2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69년(예종 1) 한성부에 설치되었다. 즉, 한성부에는 종2품의 윤(尹)이 2인 있었는데, 1469년의 관제개혁 때 좌윤 1인, 우윤 1인으로 개칭하였다. 그 뒤 그대로 존속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좌윤·우윤제도가 폐지되었다.

151) 정기광(鄭基廣) : 정종영(鄭宗榮)의 손자. 문과에 급제하여 종2품 벼슬인 한성부(漢城府) 부윤(府尹)을 지냈고, 팔천군(八川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때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학문을 즐기고 살았다. 아들 정석문(鄭錫文)은 도사(都事)를 지냈고, 손자 정수명(鄭洙明)은 부사(府使)를 지냈다.

152) 정기성(鄭基成) : 정종영의 둘째 손자. 자는 공백(鞏伯)이고, 호는 구룡산일(九龍山逸). 강직하고 항상 노력하여 경사(經史)에 통달하였지만, 벼슬길에 뜻이 없어 구룡산 아래 은거하면서 구룡산일이라고 스스로 호함. 만년에 음사로 첨지중추부사,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에 이르렀으며, 묘소는 공근면 공근리 조부(정종영) 묘 좌편에 있다.

153) 정기평(鄭基平) : 미상.

154) 정기풍(鄭基豐) : 미상.

155) 정호경(丁好敬) : 미상.

156) 한복윤(韓復胤) : 1574(선조 7)~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서원(西原). 자는 원길(元吉), 호는 수암(睡庵) 또는 두정(斗亭). 아버지는 사간 웅(襄)이며, 어머니는 온양 정씨(溫陽鄭氏)로 숙(淑)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현감 현(顯)에게 입양되었다. 1611년(광해군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학업을 닦았다. 1617년 「태학연명소(太學聯名疏)」를 올려 폐모론을 주장하던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人) 등을 탄핵하고 폐모의 옳지 않음을 주장하다가 광해군에게 미움을 사서 종신금고의 처분을 받고 도성에서 축출되었다. 그 뒤 향리로 돌아가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정릉참봉(靖陵參奉)과 금오랑(金吾郎)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는 『수암유고』가 있다.

157) 권종길(權宗吉) : 미상.

158) 윤의립(尹毅立) : 1568(선조 1)~1643(인조 21). 조선 중기의 선비화가. 본관은 파평(坡平). 초명은 의립(義立). 자는 지중(止中), 호는 월담(月潭). 공조판서를 지낸 국형(國馨)의 아들이며, 선비화가 정립(貞立)의 형이다. 1594년(선조 2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에 등용되었고, 이어 설서(設書)를 거쳐 1624년(인조 2) 정자(正字)로 재직중 조카가 이괄(李适)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됨에 따라 벼슬을 그만 두었다. 1626년 다시 관직에 복귀되어 경주부윤이 되었으며,

다.

F-5) 烈。二男。基南敎官 基達。四女。婿李奇英判官·高愼五·元慶寅·韓泰一察訪。

f-5) 둘째 아들 정열(鄭烈)은 2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교관(敎官)을 지낸 기남(基南)과¹⁶⁰ 기달(基達)이¹⁶¹ 있었고, 네 딸은 각각 이기영(李奇英, 判官),¹⁶² 고신오(高愼五),¹⁶³ 원경연(元慶寅),¹⁶⁴ 한태일(韓泰一, 察訪)에게¹⁶⁵ 시집을 보냈다.

F-6) 默。一男。基磅監察。三女 婿李盼·金來牧使·洪順一。

f-6) 셋째 아들 정묵(鄭默)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감찰(監察)을 지낸 기돌(基磅)이¹⁶⁶ 있었고, 세 딸은 각각 이분(李盼),¹⁶⁷ 김래(金來, 牧使),¹⁶⁸ 홍순일(洪順一)에게¹⁶⁹ 시집을 보냈다.

F-7) 惑。三男。基崇府使 基徵·基岡縣監。二女。婿朴純義牧使宋輝吉。

f-7) 넷째 아들 정혹(鄭惑)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부사(府使)를 지낸 기숭(基崇),¹⁷⁰ 기징(基徵),¹⁷¹ 현감(縣監)을 지낸 기강(基岡)이¹⁷² 있었고, 두 딸은 각각 박순의(朴純義, 牧使),¹⁷³ 송휘길(宋輝吉)에게¹⁷⁴ 시집보냈다.

F-8) 崔。五男。基錫通政 基鐵嘉善并老職 基鎔 基躡別提 基鉞司藝。一女。婿禹弘績正字。

f-8) 첫째 사위 최경상(崔景祥, 贈大司憲)은 5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통정(通政)을 지낸 기석(基錫)과¹⁷⁵ 노직(老職)으로 가선(嘉善)을 받은 기철(基鐵),¹⁷⁶ 기옥(基鎔)과¹⁷⁷ 별제(別提)¹⁷⁸를 지낸 기벽

그 뒤 경상도·함경도·충청도·경기도의 관찰사와 형조판서·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의정부의 좌참찬에 이르렀다. 『동국문헌』 화가편(怡家篇)에 의하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매우 드문 편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산수화첩(山水怡帖)」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 화첩에 보이는 준법(鬪法)·수법(樹法)·필법(筆法) 등에서 남송(南宋)의 마하파(馬夏派)와 조선 초기의 안건파적(安堅派的)인 요소가 함께 간취된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산형(山形)과 그 표면처리에서는 그의 개성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어 그가 15세기의 화풍을 즐겨 따르면서 자기의 작품도 아울러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림 이외에 『야언통재(野言通載)]와 『산가청사(山家淸事)]라는 저서를 남겼다.

- 159) 이응기(李應著) : 미상.
- 160) 정기남(鄭基南) : 미상.
- 161) 정기달(鄭基達) : 미상.
- 162) 이기영(李奇英) : 미상.
- 163) 고신오(高愼五) : 미상.
- 164) 원경연(元慶寅) : 미상.
- 165) 한태일(韓泰一) : 미상.
- 166) 정기돌(鄭基磅) : 미상.
- 167) 이분(李盼) : 미상.
- 168) 김래(金來) : 미상.
- 169) 홍순일(洪順一) : 미상.
- 170) 정기숭(鄭基崇) : 미상.
- 171) 정기징(鄭基徵) : 미상.
- 172) 정기강(鄭基岡) : 미상.
- 173) 박순의(朴純義) : 미상.
- 174) 송휘길(宋輝吉) : 미상.
- 175) 최기석(崔基錫) : 미상.
- 176) 최기철(崔基鐵) : 미상.
- 177) 최기옥(崔基鎔) : 미상.

(基躡),¹⁷⁹⁾ 사예(司藝)¹⁸⁰⁾를 지낸 기백(基鎭)이 있고,¹⁸¹⁾ 딸을 정자(正字)인¹⁸²⁾ 우홍적(禹弘績)에게¹⁸³⁾ 시집보냈다.

F-9) 趙. 一男 基蕃僉知¹⁸⁴⁾. 三女. 媿南宮苻·李天直·金輔臣。

f-9) 둘째 사위 조문벽(趙文璧, 進士)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첨지(僉知)인¹⁸⁵⁾ 기번(基蕃)이¹⁸⁶⁾ 있고, 세 딸은 남궁행(南宮苻),¹⁸⁷⁾ 이천직(李天直),¹⁸⁸⁾ 김보신(金輔臣)에게¹⁸⁹⁾ 시집보냈다.

F-10) 朴. 三男. 愼明·愼哲·愼行. 二女. 李淑行·金仁忠。

f-10) 셋째 사위 박대경(朴大慶)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신명(愼明),¹⁹⁰⁾ 신철(愼哲),¹⁹¹⁾ 신행(愼行)이¹⁹²⁾ 있고, 두 딸은 이숙행(李淑行)과¹⁹³⁾ 김인충(金仁忠)에게¹⁹⁴⁾ 시집보냈다.

F-11) 尹. 二男. 已生·壬生 并武科. 二女. 柳潤·洪仁立。

f-11) 넷째 사위 윤식(尹湜)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로는 이생(已生)과¹⁹⁵⁾ 임생(壬生)이¹⁹⁶⁾ 있었는데, 모두 무과(武科)에 합격하였고, 두 딸은 유윤(柳潤)과¹⁹⁷⁾ 홍인립(洪仁立)에게¹⁹⁸⁾ 시집보냈다.

178) 별제(別提) :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경서·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6인 등 모두 5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였지만 동반실직(東班實職)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179) 최기백(崔基躡) : 미상.

180) 사예(司藝) :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國子監)이 국학(國學)으로 개칭되면서 사예(司業, 종4품)이 사예로 고쳐졌으나 23년 뒤에 사업으로 환원되었다.

181) 최기백(崔基鎭) : 미상.

182) 정자(正字) :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뒤에 규장각에 소속)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83) 우홍적(禹弘績) : 미상.

184) 첨지(僉知)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8인으로 중추부가 관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무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자를 이에 소속시켜 우대하였다. 8인의 첨지사 가운데 3인은 오위의 위장(衛將) 체아(遞兒)로 하고, 그 밖에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등은 30개월, 노인직으로서 품계를 늘려서 임명되는 자는 3개월 동안 중추부에 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 정원 이외에도 명예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첨지사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의 임기는 1개월이었다

185) 첨지(僉知)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8인으로 중추부가 관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무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자를 이에 소속시켜 우대하였다.

186) 조기번(趙基蕃) : 미상.

187) 남궁행(南宮苻) : 미상.

188) 이천직(李天直) : 미상.

189) 김보신(金輔臣) : 미상.

190) 박신명(朴愼明) : 미상.

191) 박신철(朴愼哲) : 미상.

192) 박신행(朴愼行) : 미상.

193) 이숙행(李淑行) : 미상.

194) 김인충(金仁忠) : 미상.

195) 윤이생(尹已生) : 미상.

196) 윤임생(尹壬生) : 미상.

197) 유윤(柳潤) : 미상.

198) 홍인립(洪仁立) : 미상.

F-12) 金。二女。丁潤英武科閔應說進士。

f-12) 다섯째 사위 김인원(金仁元)은 두 딸만 두었는데, 큰 딸은 무과(武科)에 붙은 정윤영(丁潤英)에게¹⁹⁹⁾ 둘째 딸은 진사(進士) 민응열(閔應說)에게²⁰⁰⁾ 시집보냈다.

F-13) 外孫女及內外曾玄男女以下 多至二千餘人。主公祀者 朝廷例加錄用 玄孫洙明 方爲縣監。

f-13) 외손녀와 내외의 4세손(曾孫), 5세손(玄孫)의 남녀 후손들은 많아서 모두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손이 많을 경우) 공(公)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 가운데 조정(朝廷)에서 더 등용하는 예에 따라 5세손(玄孫) 수명(洙明)이²⁰¹⁾ 마침내 현감(縣監)이 되었다.

G) 銘曰。

光儒之後世其文學亦用 武進公承厥緒既文且武
廉白忠藎出耀福星八輝 卿月咫尺秉勺學有淵源
行無瑕玷正士完人休致 還鄉國朝無二疏傳於漢
位非不崇名非不尊視德 未滿宜爾子孫昌大輝燦
晝錦相承述 此銘章掩諸幽墟 百代是徵

g) 銘曰。

광유후(光儒侯) 정배걸의 후손들은 문장도 잘 하고 배움도 많았고
무(武)에 힘을 쓰는 공(公)들이 그 뒤를 이어 문무 겸비의 단초를 열었다.
칭럽하고 결백하고 충성스러움이 모두 나와 복성(福星)을²⁰²⁾ 팔방에 비추었고
공경(公卿)의 달을 가까이 잡았으며 학문의 균형 잡음에 연원이 있었다.
행동에 허물과 하자 없애 선비들이 완벽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징조라 하였으니
고향에 돌아가서는 조정에서의 일을 없었던 일로 여기니 이소(二疏)가 한나라에 전해진 것이다.
지위는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고 덕을 높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사람의 의당함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자손들의 번창함이 불꽃처럼 광대했다.
비단 폭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니, 이 명(銘)이 그윽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가 여러 대에 이르도
록 증거 하길 원한다.

H) 崇禎甲申後六十四年 丁亥月日 五代孫 橫城縣監 宇柱 立

h) 승정(崇禎) 갑신년(1644)으로부터 64년 뒤인 정해년(1707)에 횡성(橫城) 현감(縣監)인 5대손 우주(宇柱)가²⁰³⁾ 세우다.

199) 정윤영(丁潤英) : 미상.

200) 민응열(閔應說) : 미상.

201) 정수명(鄭洙明) : 정종영(鄭宗榮)의 현손(玄孫)이자 정석문(鄭錫文)의 아들. 1675년(숙종 을묘)에 생원이 되었으며, 음(蔭)으로 횡성현감을 지낸 후 부사(府使)가 되었고, 후에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202) 복성(福星) : 복덕성(福德星). 운수 좋은 별. 목성을 말함.

203) 정우주(鄭宇柱) : 1666(현종 7) ~ 1740(영조 1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대경(大卿), 호는 삼구당(三苟堂), 아버지는 수만(洙晩)이며, 어머니는 조중려(趙重呂)의 딸이다. 수성(洙性)에게 입양되었다. 1691년(숙종 17)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10년 사헌부지평이 되었으며, 장령을 거쳐 1715년 세자시강원필선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장령으로 옮겼다. 1725년(영조 1) 안동부사로 재직할 때 향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727년 남양부사로 재직할 때에는 임금의 능행(陵幸)을 당하여 밤에 햇불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었다

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파직되고 의금부에서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3월 의금부에서 풀려났으며, 11월에는 승정원승지에 서용되었다. 다음해 여주목사를 거쳐 1729년 승지로 천보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조충 趙冲 묘비 墓碑

<전면>

金紫光祿大夫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修文殿太學士贈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諡文正橫川趙公冲之墓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수태위문하시랑평장사(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 수문전태학사(修文殿太學士) 증개부의동삼사(贈開府儀同三司) 문하시중(門下侍中) 문정(文正)을 시호로 받은 횡천(橫川) 조충(趙冲)의 묘(墓)

<후면>

戊子春三 開城蓮洞 緬 封 于望白 坤坐 艮向 甲午 春謹立

1948년(戊子) 봄 3월에 개성(開城) 연동(蓮洞)에서 모셔와 망백(望白)¹⁾ 마을 곤좌(坤坐) 간향(艮向)에

1954년(甲午) 봄 삼가 세움.

1) 망백(望白) : 마을 이름.

고형산(高荊山) 묘비(墓碑)

(1)

<전면>

貞敬夫人尹氏之墓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高公之墓

정경부인(貞敬夫人) 윤씨(尹氏)의 묘(墓)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고공(高公)의1) 묘(墓)

(2)

<전면>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高公之墓(後) 貞敬夫人尹氏之墓(前)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고공(高公)의 묘(墓, 뒤 後)

정경부인(貞敬夫人) 윤씨(尹氏)의 묘(墓, 앞 前)

<후면>

一品加贈戍職 己巳十一月日立

일품(一品)을 더하여 술직(戍職)에 추증하였다. 기사(己巳) 11월에 세움.

이하 마멸 심함. 판독 불가

원주(原州) 이씨(李氏) 묘비(墓碑)

<전면>

貞敬夫人原州李氏之墓

정경부인 원주 이씨의 묘

<후면>

西紀一九七五年 十月日建

서기 1975년 10월 세움

1) 고형산(高荊山) : 1453(단종 1)~1528(중종 2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정숙(靜叔). 할아버지는 습(襲)이고, 아버지는 사신(思信)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483년(성종 1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 연산군 때 해주목사·함경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중종 때 강원도관찰사와 형조·호조·병조의 판서 등 요직을 차례로 역임하고 우찬성에 이르렀다. 1507년(중종 2)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때 부국강병을 위한 제도개혁을 상소한 바 있으나 정치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현량과(賢良科)의 실시 등을 극력 반대하였으며, 1519년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였다. 곧고 근검한 성품으로 수리(數理)에 밝아 행정능력이 뛰어났다. 뒤에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시호는 익평(翼平)이다. 고형산의 업적 중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도로를 개척한 것이 높이 살만한데, 공교롭게도 병자호란 때 주문진에 상륙한 적군이 이 도로를 따라 한양을 함락시켰다고 하여 국왕이 대रो하였고, 고형산은 무거운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후 그에 의한 경강선(京江船) 개통에 대한 재평가로 무고함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업적의 지대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라에서는 고관서 묘가 있는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망백 마을의 사방 십리의 땅을 하사해 주었다. 《참고문헌》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榜目, 大東韻府群玉, 輿地圖書, 朝鮮前期畿湖士林派研究(李秉傑, 一潮閣, 1984), 高荊山の 상소문(김원각, 전통문화 1984.7.),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오영교, 1999).

고항산¹⁾高恒山 묘비²⁾墓碑

<전면>

安陵參奉高公之墓 恭人平海黃氏之墓

안릉(安陵) 참봉(參奉)¹⁾ 고공(高公)과 공인(恭人) 평해 황씨(平海黃氏)의 묘(墓)

<후면>

公諱恒山。墓望白坤坐之原。配黃氏。公墓連墳。

子大 後次裕 後次廣 後參奉 己丑十月日後孫

공(公)의 이름은 항산(恒山)²⁾이고 묘(墓)는 망백(望白)³⁾ 남서쪽(坤坐)에 있다. 부인 황씨는 공의 묘(墓)에 연이어 있는 분(墳)이다. 아들은 대(大?)와 광(廣?)이다. 뒤에 참봉(參奉)이 되었다. 기축(己丑) 11월 후손. 이하 마멸 심함. 판독 불가

1) 참봉(參奉) :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2) 고향산(高恒山) : 호는 지음(之陰), 고향산(高荊山)의 형. 중종(중종) 때에 안릉 참봉이 되었다. 《참고문헌》 역사에 빛나는 황성의 인물(오영교, 1999).

3) 망백(望白) : 마을 이름.

원황元滉 묘비墓碑

<전면>

A-1) 有明朝鮮贈補祚功臣·吏曹判書·大提學·原山君行右正言元公滉之墓 貞夫人原州李氏祔下兆

a-1) 중국 왕조가 명(明)나라 일 당시, 조선(朝鮮)에서 보조공신(補祚功臣)으로 추증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 대제학(大提學)이며 원산군(原山君)으로서 행직(行職)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지낸 원황(元滉)의¹⁾ 묘(墓). 정부인(貞夫人) 원주 이씨(原州李氏)를 합장함.

<후면>

B-1) 公諱滉。元氏籍原州所由來遠。高祖 諱 弘弼 仕麗 知門下省事。曾祖 諱 廣明 宗簿令同正致仕。

祖諱方甫 保勝郎將 贈吏曹參議。考 諱 憲 精勇郭將 贈兵曹參判。妣。麗朝進士元天常女異貫也。

b-1) 공(公)의 이름(諱)은 황(滉)이다. 원씨(元氏)는 원주에 적(籍)을 둔 지 오래 되었다. 고조할아버지(高祖) 홍필(弘弼)은 고려에서 벼슬하여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에 이르렀고, 증조할아버지(曾祖) 광명(廣明)은²⁾ 종부령동정(宗簿令同正)으로 치사(致仕)하였다. 할아버지(祖) 방보(方甫)는 보승낭장(保勝郎將)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考) 헌(憲)은 정용낭장(精勇郎將)으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고, 어머니(妣)는 고려조(麗朝)에서 진사(進士)를 지낸 원천상(元天常)의³⁾ 따님인데, 본관이 다르다.

C-1) 公 生年表德俱無放。永樂乙酉 以生員登本朝文科 歷官右正言 刑曹都官 正郎 殷豐縣監 金州判官。後以子貴 曾吏曹文衡。

c-1) 공(公)은 태어날 때부터 선행을 하였는데,⁴⁾ 모두 적지 않는다. 1405년(永樂 乙酉, 태종 5) 생원(生員)으로 본조(本朝, 조선)의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우정언(右正言) 형조도관(刑曹都官) 정랑(正郎) 은풍현감(殷豐縣監) 금주판관(金州判官)을 역임하였다. 후에 자손들이 귀하게 되자, 이조(吏曹)와 문형(文衡)에 추증되었다.

D-1) 墓橫城縣靑龍面葛豐里庚坐之原。因長入胤對陳情 特賜地也。夫人 領中郎將原州李攀桂之女。墓在公□下 兩墓 各有來。

d-1) 묘(墓)는 횡성현(橫城縣) 청룡면(靑龍面) 갈풍리(葛豐里) 서남쪽(庚坐之原)에 있다. 나이가 들어 후사를 세워야 한다는 진정(陳情)에 의해 특별히 하사한 땅이다. 부인(夫人)은 영중랑장(領中郎將) 원주 이씨(原州李氏) 반계(攀桂)의 따님이다. 묘(墓)는 공(公)의 뒷자리 아래에 두어 두 묘로 각각 내려왔다.

D-2) 公以正統壬戌十月窆夫人 以宣德乙卯八月窆云公與夫人之 其在是年歟

1) 원황(元滉) : ? ~ 1435. 이반계(李攀桂)의 사위.

2) 광명(廣明) : 원광명(元廣明). 운곡 원천석의 장인. 『운곡시사』에는 같은 원씨는 아니니, “원주에 두 원씨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3) 원천상(元天常) : 운곡 원천석의 형님.

4) 표덕(表德) : 덕행(德行).

d-2) (그러다가) 공(公)과 1442년(正統 壬戌, 세종 24) 10월 부인과 합장하였다. 1435년(宣德 乙卯, 세종 17) 8월 공(公)을 모셨는데, 부인이 이 해에 돌아가시자 그렇게 한 것이다.

E-1) 有四男 孝然 禮曹判書 勳封原城君 贈諡文靖 孝而 縣監 贈參判 孝矣 孝哉 縣監 三女 金永輪 司直 尹信孫 洗馬 金石堅 察訪。

e-1) (4남 3녀를 두었는데) 네 아들로는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원성군(原城君)에 훈봉(勳封)된 후 문정(文靖)의 시호를 받은 효연(孝然)과 현감(縣監)으로 참판(參判)에 추증된 효이(孝而), 효의(孝矣), 현감(縣監)을 지낸 효재(孝哉)가 있고, 세 따님은 김영륜(金永輪, 司直) 윤신손(尹信孫 洗馬), 김석견(金石堅 察訪)에게 시집을 보냈다.

E-2) 孫曾以下俱載家譜舊表而只記公□□諱 年月大略。

e-2) 손자와 증손자 이후로는 집안의 족보(家譜)에 옛 표시(舊表)가 모두 실려 있으므로, 단지 원결(元) 과 관련된 대략의 내용만 기록해 둘 뿐이다.

F-1) 宗孫秘 常窃慨夫愈久 而愈泯其蹟略。拾一二所觀親記者 謁余以實珉。所不敢辭則自以元氏外屬也。乃敬爲之銘。

f-1) 종손(宗孫) 원필(秘)은 (이러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을) 남몰래 개탄해서 오랫동안 고치고, 사라져가는 자취를 대략적으로나마 고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라도 수습한 것을 친히 기록해서 나에게 가져와 비석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것을) 감히 사양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원씨(元氏)의 외속(外屬)이기⁵⁾ 때문이다. 이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銘)을 짓는다.

G-1) (銘)曰。繼元有聞自古在昔 公邁草昧 寔王 司直 嗣英起家 徹候宗伯 冢宰文衡 □詣有赫 □□庇後 本支百億 相乎將乎金紫奕烏

g-1) 아주 오랜 옛날부터 원씨(元氏)가 이어져 오다가 왕조 창립기 혼란한 때에⁶⁾ 왕(王)을 도와 사직(司直)이⁷⁾ 되었다. 집안을 일으켜⁸⁾ 영예로움을 잇고자 종백(宗伯)의⁹⁾ 일을 맡았고, 총재(冢宰)와¹⁰⁾ 문형(文衡)도¹¹⁾ 맡았으니, 갈수록 더욱 빛남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 후 자손(本支)들이 번성하였는데, 재상도 되고 장수도 되어 그 빛남이 뛰어났다 하겠다.

G-2) 維橫之原 王錫北□ 配同域。

g-2) 묘(墓)는 횡성에 썼는데, 왕이 친히 주신 땅이고 배우자도 같이 묻혀 있다.

<우측면>

5) 외속(外屬) : 어머니나 아내의 친척.
6) 초매(草昧) : 천지개벽의 처음. 사물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
7) 사직(司直)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딸린 정5품 벼슬. 실무는 없었다.
8) 기가(起家) :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킴. 벼슬자리에 천거되어 출세함.
9) 종백(宗伯) : 예조판서(禮曹判書)의 판 이름.
10) 총재(冢宰) : 이조판서(吏曹判書)의 판 이름.
11)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

H-1) 百世有今 鏤茲舊石 毋曰邈矣 來許是式

h-1)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옛 돌에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변모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식(式)으로 하도록 하였다.

I-1) 大韓隆熙二年戊申五月五日 立

i-1) 1908년(隆熙二年戊申) 5월 5일에 세움.

I-2) 崇祿大夫前議政府右替成兼 經筵□□ 太子宮日講官 李容元 撰

i-2) 승록대부(崇祿大夫) 전의정부우찬성(前議政府右替成) 겸(兼) 경연(經筵) 태자궁(太子宮) 일강관(日講官) 이용원(李容元)이¹²⁾ 찬(撰)함.

I-3) 崇祿大夫前吏曹判書 尹用求 書

i-3) 승록대부(崇祿大夫) 전이조판서(前吏曹判書) 윤용구(尹用求)¹³⁾ 씀.

12) 이용원(李容元) : 생몰년 미상. 조선 말기의 문신. 현감을 지낸 뒤 1875년(고종 12) 동부승지·대사간이 되었다. 1876년 우부승지 서정순(徐正淳)과 함께 동부승지로서 최익현(崔益鉉)의 흑산도 안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882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성균관대사성을 지냈다. 1883년 형조판서, 1889년 대사간·대사헌을 지냈다. 1890년 예조참판으로서 민씨척족들의 고종 왕위선양(王位禪讓) 모의를 항의하다가 찬배(竄配)당하였다가, 1894년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정치범을 석방할 때 흑산도에서 풀려났다. 그 뒤 이조판서와 법무아문대신, 우찬성을 지냈으며, 1896년 경연원경 겸 왕태자궁일강관(經筵院卿兼王太子宮日講官)에 임명되었다. 1897년 중추원일등의관을 지냈고, 1902년 궁내부특진관이 되었으며, 보국특진관(輔國特進官)에 올랐다. 1905년 최익현이 창의도적소(倡義討賊疏)를 올리고 거의를 준비할 때 그에게도 창의구국의 글이 당도하였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梅泉野錄, 韓國史-最近世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한국사 19(국사편찬위원회, 1978).

13) 윤용구(尹用九) : 1853(철종 4)~1939. 문신·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 남녕위 의선(宜善)의 아들이다. 1871년(고종 8) 직장(直長)으로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법무·탁지부·내무부 등 대신에 십수회 배명(拜命)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자오(自娛)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천의 「문간공한장석신도비(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광주(廣州)의 「선정군무생이공신도비(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降仙樓) 현판 등을 남겼다. 한편, 그림으로는 「죽도(竹圖)」(개인소장)와 「묵죽(墨竹)」(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한국서예백년전에 출판된 행서 작품을 보면 특징있는 자기의 필치는 이루었으나, 강약의 변화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어 부자연스럽고 행의(行意)의 수필처(收筆處)의 획들에도 군더더기가 생긴 곳이 많아 격이 높지는 못하다.

조금 趙嶽 묘비 墓碑

<전면>

贈淑夫人全州李氏祔

兼經筵參贊官趙公嶽之墓

贈通政大夫·承政院 左承旨

숙부인(淑夫人)¹⁾으로 추증된 전주 이씨(全州李氏)와 합장한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조금(趙嶽)의 묘(墓). 통정대부(通政大夫)·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됨.

1)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

정종영 鄭宗榮 묘비 墓碑

<전면>

貞敬夫人星州李氏附

贈貞敬夫人文化柳氏附

崇政大夫·議政府石贊成·兼

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八溪君·贈諡

靖憲公鄭宗榮之墓

경연춘추관(經筵·春秋館)의 지사(知事)이고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으로 팔계군(八溪君) 정헌공(贈諡靖憲公)으로 시호가 추증된 정종영(鄭宗榮)의 묘. 정경부인(貞敬夫人) 성주 이씨(+星州*李氏)와 정경부인(贈貞敬夫人)으로 추증된 문화 유씨(文化柳氏)를 합장함.

<후면>

西紀一六〇一年辛丑 八月 十五日 豎建

西紀一九八八年戊辰 陰十月 五日 改豎建

서기 1601년 신축 8월 15일 세웠다가, 서기 1988년 무진 음력 10월 5일 다시 세움.

<우측면>

附記 文化柳氏之墓在坡州郡·月籠面·都內里

西紀一九八八年戊辰 九月七日 遷葬¹⁾于公墓 合窆²⁾爲誌

문화 유씨(文化柳氏)의 묘는 파주군(坡州郡) 월룡면(月籠面) 도내리(都內里)에 있었는데, 서기 1988년 무진 9월 7일 공(公)의 묘(墓)로 옮겨 묻어 합장(合葬)하였음을 기록으로 만들어 부기함.

1) 천장(遷葬) : 천묘(遷墓). 무덤을 옮겨 묻음.

2) 합핍(合窆) : 합장(合葬).

정석연 鄭錫衍 묘비 墓碑

<전면>

配恭人原州李氏 祔 忠義衛諱錫衍之墓

부인 공인(恭人) 원주 이씨(原州李氏)에 충의위(忠義衛) 정석연(錫衍)¹⁾을 합장한 묘

<후면>

西紀一九八三年 四月十日 十二代 宗孫 秉燠 立

서기 1983년 4월 10일 12대 종손(宗孫)²⁾ 병훈(秉燠)³⁾이 세움.

1) 정석연(鄭錫衍) : 미상.

2) 종손(宗孫) : 종가(宗家)의 대를 잇는 맏손자.

3) 정병훈(鄭秉燠) : 미상.

정수명 鄭洙明 묘비 墓碑

<전면>

通訓大夫·行掌樂院僉正·寧越府使諱洙明之墓 配淑人咸平李氏祔

통훈대부(通訓大夫)이며, 행직(行)인 장악원(掌樂院)¹⁾ 첨정(僉正)과 영월부사(寧越府使)를 지낸 정수명(洙明)²⁾의 묘. 부인 숙인(淑人)³⁾ 함평 이씨를 합장함.

<후면>

西紀一九八三年癸亥 四月十日 十一代 宗孫 秉夏 豎立

서기 1983년 계해 4월 10일 11대 종손(宗孫)인⁴⁾ 병하(秉夏)⁵⁾가 세움.

-
- 1) 장악원(掌樂院) :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악원의 음악행정을 맡았던 관리들의 직제는 당상관인 제조(提調) 2인 및 낭관인 정3품의 정(正) 1인, 종4품의 첨정(僉正) 1인, 종6품의 주부(主簿) 1인, 종7품의 직장(直長) 1인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
 - 2) 정수명(鄭洙明) : 정종영(鄭宗榮)의 현손(玄孫)이자 정석문(鄭錫文)의 아들. 1675년(숙종 을묘)에 생원이 되었으며, 음(蔭)으로 부사(府使)가 되었고, 후에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 3)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종3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
 - 4) 종손(宗孫) : 종가(宗家)의 대를 잇는 맏손자.
 - 5) 정병하(鄭秉夏) : 미상.

김중남(金鍾男) 묘비(墓碑)

<전면>

淑人原州元氏之祔

折衝將軍 金鍾男之墓

숙인(淑人)¹⁾ 원주 원씨(原州元氏)를 합장한 절충장군(折衝將軍) 김중남(金鍾男)의²⁾ 묘(墓)

<후면>

康熙五十六年二月日立

1717년(康熙五十六年) 2월(二月)에 세움.

1)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종3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

2) 김중남(金鍾男) : 미상.

박혜동 朴惠東 묘비 墓碑

<전면>

宜人廣州李氏 教授朴公惠東之墓

의인(宜人)¹⁾ 광주 이씨(廣州李氏)와 교수(教授) 박혜동(朴惠東)의²⁾ 묘(墓)

<후면>

公 系出密陽 成均生員 以學行薦官 至教授。公 高祖 諱仁翊 左議政。曾祖 諱球 判少府寺事。 祖 諱 義林 贈吏參。考諱 維 贈兵判。妣 平海丘氏。父戶判 春甫。配宜人廣州李氏。父縣監傳春。子訥 弘 文館副提學。孫元忠 洗馬。次孫元貞 禁府都事。公 生卒未詳 不記。

崇禎後五乙酉三月日十二代孫秀弘改立

공(公)은 밀양(密陽)출신으로, 성균생원(成均生員)이었다가, 학문과 덕행으로 추천을 받아 교수(教授)에 이르렀다. 공(公)의 고조(高祖) 할아버지 인익(仁翊)은³⁾ 좌의정(左議政)을 지냈고, 증조(曾祖) 할아버지 구(球)는⁴⁾ 소부시(少府寺)의 판사(判事)를 지냈으며, 할아버지(祖) 의림(義林)은⁵⁾ 이조참판(吏參)에 증직되었고, 아버지(考) 유(維)는⁶⁾ 병조판서(兵判)에 증직되었다. 어머니 평해 구씨(平海丘氏)의 아버지는 호조판서(戶判) 춘보(春甫)였다.⁷⁾ 부인은 의인(宜人) 광주 이씨(廣州李氏)인데, 아버지는 현감(縣監) 전춘(傳春)이었다.⁸⁾ 아들 인(訥)은⁹⁾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지냈고, 손자 원충(元忠)은 세마(洗馬), 작은 손자 원정(元貞)은 금부도사(禁府都事)를 지냈다. 공(公)이 낳고 사망한 해는 알 수 없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1909년(崇禎後五 乙酉) 3월(三月) 12대손(十二代孫) 수홍(秀弘)이 다시 세움.

1) 의인(宜人) :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봉작. 26대 고종 2년부터 정·종 6품의 문무관의 아내와 정·종 6품의 아내의 봉작으로 아울러 썼음.

2) 박혜동(朴惠東) : 묘비문의 미상.

3) 박인익(朴仁翊) : 미상.

4) 박구(朴球) : 미상.

5) 박의림(朴義林) : 미상.

6) 박유(朴維) : 미상.

7) 구춘보(丘春甫) : 미상.

8) 이전춘(李傳春) : 미상.

9) 박인(朴訥) : 미상.

박원충 朴元忠 묘비 墓碑

<전면>

宜人文化柳氏 洗馬朴公元忠墓

의인(宜人)¹⁾ 문화 유씨(文化柳氏)와 세마(洗馬)²⁾ 박원충(朴元忠)의³⁾ 묘(墓)

<후면>

公 字忠之 系出密陽。始祖 諱元 高麗四門進士。後六世 有諱仁翊 入我朝左相 卽公六代祖也。曾祖 諱維 贈兵曹判書。祖諱 惠東 生員。考 諱訥 副提學。妣 原州元氏 縣監孝哉 女。公 嘉靖 壬午中 生員以行誼 除洗馬。

配 柳氏希祖 女。

子 鳳孫 僉正。

鳳年 生員。

側出 鳳儀

鳳孫子湛 直長 泳 奉事 淹灌 縣令 渾 以壬辰載 贈正郎

鳳年子潛

鳳儀子漾海公 生卒年月日 無徵不記。

崇禎後再庚申 十月日 七代孫 始郁改立。

공(公)의 자(字)는 충지(忠之)로 밀양(密陽)에서 나왔다. 시조(始祖)는 원(元)으로⁴⁾ 고려(高麗) 사문진사(四門進士)를 하였고, 그 6세(六世)인 인익(仁翊)은 우리 왕조에 들어와 좌상(左相)을 하셨으니, 공(公)의 6대조(六代祖) 할아버지이다. 증조(曾祖) 할아버지인 유(維)는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 혜동(惠東)은 생원(生員)을 지냈으며, 아버지 인(訥)은 부제학(副提學)을 지냈고, 어머니 원주 원씨(原州元氏)는 현감(縣監) 효재(孝哉)의⁵⁾ 따님이다. 공(公)은 1522년(嘉靖 壬午) 생원(生員)일 때 의리에 맞는 행동⁶⁾을 했다고 하여 세마(洗馬)에 제수되었다.

부인은 유희조(柳希祖)의⁷⁾ 따님인데, 아들 봉손(鳳孫)은 첨정(僉正)을 지냈고, 봉년(鳳年)은 생원(生員)을 지냈다. 측실에서 난 아들이 봉의(鳳儀)이다. 봉손(鳳孫)의 아들인 담(湛)은 직장(直長)을 지냈고, 영(泳)은 봉사(奉事)를 지냈으며, 엄관(淹灌)은 현령(縣令)을, 혼(渾)은 1592년(以壬辰載) 정랑(正郎)을 받았다. 봉년(鳳年)의 아들은 잠(潛)이고, 봉의(鳳儀)의 아들인 양해공(漾海公)은 태어나고 사망한 일자를 알 수가 없어 기록하지 않는다.

1740년(崇禎後再 庚申) 10월(十月) 7대손(七代孫) 시욱(始郁)이 다시 세움.

-
- 1) 의인(宜人) :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봉작. 26대 고종 2년부터 정·중·6품 문무관의 아내와 정·중 6품 아내의 봉작.
 - 2) 세마(洗馬) :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세마 각 1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 3) 박원충(朴元忠) : 미상.
 - 4) 박원(朴元) : 미상.
 - 5) 원효재(元孝哉) : 미상.
 - 6) 행의(行誼) : 의리에 맞는 행동.
 - 7) 유희조(柳希祖) : 미상.

원준영 元俊英 묘비 墓碑

<전면>

贈嘉善大夫·工曹參判 兼五衛都摠府·副摠官 元公俊英之墓 貞夫人文化柳氏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추증된 공조참판(工曹參判)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官) 원준영(元俊英)의 묘(墓) 정부인(貞夫人) 문화 유씨(文化柳氏)를 합장함.

<후면>

長子海亮 子善道 子夢柱 子始恒

海重 子善寬 子夢泰

海弼 子善雄 子夢大

海平 子善正 子夢殷

宗畚 金寺 宇字 百五十六

六斗落五卜四

崇禎紀元後三丙午十二月日 五代孫命天立

命玉書

장자(長子)인

해량(海亮)과 그 아들(子) 선도(善道), 그 아들(子) 몽주(夢柱), 그 아들(子) 시항(始恒)

해중(海重)과 그 아들(子) 선관(善寬), 그 아들(子) 몽태(夢泰)

해필(海弼)과 그 아들(子) 선웅(善雄), 그 아들(子) 몽대(夢大)

해평(海平)과 그 아들(子) 선정(善正), 그 아들(子) 몽은(夢殷)

종중답(宗中畚)으로는¹⁾ 금사(金寺)의 우자(宇字) 156두락 5부 4속이 있다.

1786년(崇禎紀元後三 丙午) 12월 5대손(五代孫) 명천(命天)이 세우고 명옥(命玉)이 씀.

1) 종답(宗畚) : 수확한 것을 조상의 제사에 쓰기 위해 종중(宗中)에서 가지는 논.

안석경 安錫敬 묘비 墓碑

<전면>

A-1) 有明朝鮮國 雪橋安先生 配密陽朴氏之墓

a-1) 중국왕조가 명(明)나라일 당시, 조선국 삼교(雪橋) 안선생(安先生)¹⁾과 부인(配) 밀양 박씨(密陽朴氏)의 묘(墓)

<좌측면>

B-1) 世嗣孫 鍾轍 玄孫 九玉。以公狀來屬 縉煥 爲銘 辭不獲泚筆 如右繼之

b-1) 세사손(世嗣孫)²⁾ 종철(鍾轍)과³⁾ 현손(玄孫)⁴⁾ 구옥(九玉)이⁵⁾ 공(公)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와서 진환(縉煥)은⁶⁾ 명(銘)을 짓는 것을 사양하지 못하고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이 짓는다.

C-1) 以銘曰

淵源古家忠孝 田地豪傑之姿 經濟之器一部 春秋滿腔側捏
餘事文章出類 發越握瑾不舊 終晦山林天生 大德誠亦何心
雪峙之西 有崇四尺 茲用闡幽 昭揭牲石

c-1) 銘曰.

내력이 깊은 오랜 가문의 충성스러움과 효성스러움이 있고
논밭에서도 호걸(豪傑)의 자태가 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고생을 덜어주면서도
봄가을로 측은함을 이기려는 마음이 가득하다.⁷⁾
문장(文章)의 뛰어난⁸⁾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으면서⁹⁾
기상이 뛰어나¹⁰⁾ 악근(握瑾)이 옛 같지 않았다.

1) 안석경(安錫敬) : 1718(숙종 44) ~ 1774(영조 5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숙화(淑華). 호는 완양(完陽)·삼교(雷橋). 아버지는 중관(重觀)이다. 안중관은 김창흡(金昌翁)의 문인으로 이병연(李秉淵)·민우수(閔遇洙) 등 당시 노론계 인사 및 홍세태(洪世泰) 같은 중인 출신 시인과도 교류한 노론계 학자였다. 1752년(영조 28)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곳 저곳 아버지의 임소(任所)를 따라 생활하였다. 당시 신흥도회가 형성된 홍천·제천·원주 등이 그 곳으로 청년기를 이룬 도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이 때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예나 권력을 좇는 무리들이 날뛰는 환로(宦路)에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고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심한 갈등을 하게 된다. 결국 세 차례 과거에 응하지만 모두 낙방하였다. 출세지향의 공부를 힘쓰지 않았던 그에게 낙방은 오히려 당연하기도 하다. 1752년은 과거에 응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그 해 아버지가 죽자 그는 곧 강원도 두메산골인 횡성 삼교(雷橋)에 은거한다. 삼교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후반기는 도회적인 생활을 떠나 벼슬을 단념한 채 산중에 은거하는 처사적인 생활이었다. 저서로는 『삼교집』, 『삼교만록』이 있다.

2) 세사손(世嗣孫) : 세사(世嗣)는 후손(後孫). 사손(嗣孫)은 대를 이을 손자.

3) 안종철(安鍾轍) : 미상.

4) 현손(玄孫) : 손자의 손자, 고손자.

5) 안구옥(安九玉) : 미상.

6) 배진환(裴縉煥) : 미상.

7) 만강(滿腔) : 마음속에 가득히 참.

8) 출류(出類) : 같은 무리보다 뛰어나.

9) 여사(餘事) : 그다지 요긴하지 않은 일.

그름이 다되도록 산림(山林)에서 하늘이 준 것을¹¹⁾ 기다리니
 큰 덕을 쌓고자 하는 정성을 다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삼교 고개 서쪽에 4자짜리 돌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숨은 것을 밝히고자¹²⁾ 높이 들어 비석을 만든다.

D-1) □曆 二百八十九年 乙亥 星州 裴縉煥 謹撰
 六世 嗣孫¹³⁾ 競淳 六世 旁孫¹⁴⁾ 鐸淳 哲淳
 勤勞先業 誠孝流彰 七世相律 父子一心 特助千金 慕先有義 看名遺傳

d-1) □曆 289년 을해(乙亥) 성주 배씨(星州裴氏) 진환이 삼가 짓고 6세 사손(嗣孫) 경순(競淳)과¹⁵⁾ 6세 방손(旁孫) 택순(鐸淳)¹⁶⁾ 철순(哲淳)¹⁷⁾ 조상이 남겨놓은 사업에 힘써 노력하고, 효도를 다해 드러내려 하였으며 7세 상율(相律)과¹⁸⁾ 더불어 부자(父子)가 한 마음으로 특별히 소중한 자금을¹⁹⁾ 조달하여 선조의 의로움을 사모하여 이름을 드러내어 남겨진 뜻을 전하고자 한다.

<후면>

E-1) 公 姓安氏 諱錫傲 字叔華 自號完陽 晚稱雪橋 興州人。

e-1) 공(公)의 성(姓)은 안씨(安氏)이고 이름(諱)은 석경(錫傲)이며, 자(字)는 숙화(叔華)이고, 스스로 완양(完陽)이라 호를 칭했다가 만년(晩年)에 삼교(雪橋)로 칭하였으니, 흥주(興州) 사람이다.

E-2) 高麗 門下侍中文成公諱裕之后也。自後 簪纓聯翩 爲國巨闕。曾祖 諱光郁 工曹佐郎 學于外舅澤堂李先生 有文行。祖 諱重 左承旨知製教 號竹涯 逮事澤堂及舅氏畏齋公 而從遊華陽宋先生 得正學而詞藝爲名 公所推。考 諱重觀²⁰⁾ 衛率 自號悔窩²¹⁾ 以篤學文章 名著儒林。妣 淑人 高靈朴氏 檜年女

10) 발월(發越) : 기상이 매우 뛰어남.

11) 천생(天生) : 하늘로부터 타고남.

12) 천유(闡幽) : 숨은 것을 밝힘.

13) 사손(嗣孫) : 대를 이을 손자.

14) 방손(旁孫) : 방손(傍孫). 방계(傍系)의 자손.

15) 안경순(安競淳) : 미상.

16) 안택순(安鐸淳) : 미상.

17) 안철순(安哲淳) : 미상.

18) 안상율(安相律) : 미상.

19) 천금(千金) : 많은 돈. 소중한 것.

20) 안중관(安重觀) : 1683(숙종 9) ~ 1752(영조 2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국빈(國賓), 호는 회와(梅窩)·가주(可洲).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에 문과 응시는 포기하였다. 뒤에 유일(遺逸) : 학문과 명망이 높아 과거를 거치지 않고 높은 벼슬에 등용되는 선비)로 천거받아 세자익위사위수(世子翊衛司衛率)가 되었고, 공조좌랑을 거쳐, 홍천·제천의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벼슬보다는 성리학에 침잠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그는 유학을 비롯하여 문학경제학(經世學)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의 시문은 그의 6대손 종학(鍾學)이 편집한 『회와집(梅窩集)』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서(序)·제(題)·발(跋)·기·논·설·잡저·행록·행장·찬(贊)·명·송(頌)·서(書)·제문·애사 등이 있다.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悔窩集, 靑城集, 朝鮮圖書解題, 韓國圖書解題.

21) 회와집(梅窩集) : 조선 후기의 학자 안중관(安重觀)의 시문집. 8권 4책. 목활자본. 1904년 저자의 6대손 종학(鍾學)·종필(鍾弼) 등이 간행하였다. 종학의 발문에 의하면, 원래 원집·후집·속집·산필(散筆) 등 네편을 발간하려고 하였으나 원집 한편에 그치고 말았다 한다. 권두에 남정철(南廷哲)의 서문이, 권말에 종학과 이종원(李鍾元)의 발문이 있다. 권1 ~ 3은 시 583수, 권4는 서(序) 21편, 제발(題跋) 6편, 권5는 제발 15편, 기(記) 11편, 권6은 기 14편, 논(論) 15편, 권7은 설(說) 8편, 잡저 6편, 행록 2편, 행장 3편, 권8은 찬(贊) 8편, 명송(銘頌) 7편, 서(書) 6편, 상량문 2편, 제문 9편, 애사

以肅廟戊戌生。

e-2) 고려(高麗) 문하시중(門下侍中) 문성공(文成公) 유(裕)의²²⁾ 후예이다. 이후 높은 지위에²³⁾ 잇달아 올라²⁴⁾ 나라의 큰 문벌이 되었다. 증조할아버지(曾祖)의 이름(諱)은 광욱(光郁)²⁵⁾인데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냈고, 장인인²⁶⁾ 택당(澤堂)²⁷⁾ 선생에게 배워 문행(文行)이 있었다. 할아버지(祖)의 이름(諱)은 후(扈)²⁸⁾로서, 좌승지(左承旨)와 지제교(知製敎)를 지냈는데, 호(號)를 죽애(竹涯)라고 하였다. 택당(澤堂) 선생과 외재(畏齋)²⁹⁾ 선생을 좇아다니면서 화양(華陽) 송선생(宋先生)³⁰⁾에게도 배워 바른 학문을 얻었으며, 학문과 예술로³¹⁾ 이름을 얻었다. 아버지(考)의 이름(諱)은 중관(重觀)³²⁾인데, 위수(衛率)를³³⁾ 지냈으며, 스스로 회와(梅窩)라 호(號)하였다. 독실한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이 유림(儒林)에 떨쳤다. 어머니(妣)는 숙인(淑人)³⁴⁾으로 고령 박씨(高靈朴氏) 회년(檜年)의 따님으로 1718년(肅廟 戊戌)에 태어났다.

E-3) 公于忠州·可興之雙杵谷。風骨非凡 穎悟絕倫 志氣魁傑 有千仞萬里之勢。少好讀孟子及朱者綱目·司馬史·兵家書 遂致力於文章 加意於經濟 而以道義問學 爲根本終始之業。

e-3) 공(公)은 충주(忠州) 가흥(可興)의 쌍오곡(雙杵谷)에서 태어났다. 풍채와 골격이³⁵⁾ 범상치 않았고, 깨달아 아는 것이³⁶⁾ 매우 두드러졌다.³⁷⁾ 뜻과 기운이 크고 위대하여 천길 만리나 되는 기세가 있었다.

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에는 「삼각산(三角山)」·「육신묘(六臣墓)」·「인일감록(人日感錄)」·「야좌염민사차두율(夜坐念民事次杜律)」·「고한(苦旱)」·「위농(爲農)」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기는 기행문과 서재나 정자에 부친 글이다. 논문은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논평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양만춘론(楊萬春論)」에서는 양만춘이 당나라의 침략을 격퇴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침입의 목표가 연개소문(淵蓋蘇文)이었다면 오히려 그 침입에 내용하였을 것이라는 색다른 주장을 하였다. 「건역사론(綱役私論)」에서는 큰 병폐로 대두된 토지경병과 양정(良丁)의 역(役)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설의 「거봉당설(去朋黨說)」은 당시 극심한 당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용(中庸)의 정신에 입각한 건극지치(建極之治)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22) 안유(安裕) : 안항(安珦). 1243(고종 30) ~ 1306(충렬왕 32). 고려시대의 명신(名臣). 학자. 초명은 유(裕)였으나 뒤에 향으로 고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문종의 이름이 같은 자였으므로 이를 피하여 유(裕)로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다.

23) 잠영(簪纓) : 높은 벼슬아치가 쓰던 쓰개의 꾸밈이라는 말로, 높은 지위를 이르던 말.

24) 연편(聯翩) : 모두 잇달아 나풀거리다.

25) 안광욱(安光郁) : 미상.

26) 외구(外舅) : 장인.

27) 택당(澤堂) : 이식(李植). 이조 인조 때의 명신(1584 ~ 1647).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덕수(德水). 좌상(左相) 행(荇)의 현손(玄孫). 1610년(광해 2) 문과에 급제, 1642년(인조 20) 청나라에서는 식이 김상헌(金尙憲) 등과 합심하여 주화(主和)를 배격한다 하여 붙잡아 갔으며 돌아올 때 다시 의주(義州)에서 구치(拘置)되었으나 탈주해 돌아왔다. 벼슬은 대사헌·형조판서·이조판서에 이르렀다.

28) 안후(安扈) : 미상.

29) 외재(畏齋) : 이단하(李端夏). 1625(인조 3) ~ 1689(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자는 계주(季周)이다. 호는 외재(畏齋)·송간(松磻)이다.

30) 송시열(宋時烈) : 1607(선조 40) ~ 1689(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아명은 성퇴(聖困).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菴) 또는 우재(尤齋). 봉사(奉事) 구수(龜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사(都事) 응기(應期)이고, 아버지는 사옹원봉사(司饗院奉事) 갑조(甲祚)이다. 어머니는 선산 박씨(善山郭氏)로 봉사 자방(自防)의 딸이다.

31) 사예(詞藝) : 문예(文藝). 학문과 예술.

32) 안중관(安重觀) : 1683(숙종 9) ~ 1752(영조 28). 조선 후기의 문신.

33) 위수(衛率) : 관명(官名). 세자익위사위수(世子翊衛司衛率).

34)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종3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

35) 풍골(風骨) : 풍채와 골격.

36) 영오(穎悟) : 깨달아 앎.

37) 절륜(絶倫) : 매우 두드러지게 뛰어난.

어려서부터 맹자(孟子), 주자강목(朱子綱目), 사마사(司馬史) 병가서(兵家書) 같은 책을 좋아하더니, 마침내 문장(文章)에 힘을 다하고 여기에 세상 사람을 깨우치고 곤경에서 구하는 일에³⁸⁾ 뜻을 더하였다. 사람이 사는 도리를³⁹⁾ 묻고 배워 근본(根本)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을 학업으로 삼았다.

E-4) 及壯學愈 進而守益 固則不復 就國試開戶山樊 漠然若無意。於世人 稱識時務 將相之器也 道臣以博學篤行薦于朝 授康陵卽不就。

e-4) 나이가 들어 배움이 깊어지자 나아가서는 이익됨을 지켜 진실로 번복하지 않았고, 과거 시험에⁴⁰⁾ 나아가서는 문을 열어두고자 하였으나⁴¹⁾ 산으로 막혀 아득해져서⁴²⁾ 뜻을 두지 않은 것 같았다.⁴³⁾ 이에 세상 사람들이 시무(時務)를 맡을 장상(將相)의 그릇이라고 칭찬을 하니, 관찰사께서⁴⁴⁾ 배움이 넓고 행실이 믿을 만하다고 조정에 추천하여 강릉(康陵)을 주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E-5) 嘗痛皇明屋社 憤讐虜之未報 慨然慕宋先生尊攘大義 而待時奮身之意 見於前後文 字間者滔滔 萬言觀於擬 對策可知。其抱負之重 力量之大 綜理之密 品郎之詳 置水不漏 非後世能言之士 所能彷彿其萬一也。

e-5) 일찍이 명(明)나라 사직이 무너짐을 애통히 여겨 원수에게 사로잡혔음에도 보복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고, 이에 분개하여 송시열의⁴⁵⁾ 존주양이(尊周攘夷)라는⁴⁶⁾ 대의(大義)를 사모하여 때를 기다려 몸을 떨치고 나아갈 뜻이 전후(前後) 문장의 자간(字間)에 보이는 것이 도도(滔滔)하여⁴⁷⁾ 수많은 말 가운데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가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그 포부가 무겁고 역량이 크며, 주밀하고 조리있게 처리하고 품량(品郎)이 상세하여 물을 넣어두어도 새지 않을 정도여서, 후세에 말 잘하는 사람들도 그 만분의 일도 잘 그려내지 못하였다.⁴⁸⁾

E-6) 其於天人性命之際 辨別 蘊奧亦多 世儒所未發者至。若文章之富燁 詩詞之奇麗 則實公之餘事也。平日著書 述作蒲家 皆經國之指南 治世之藥石 而老於畎畝 未得展布 豈其命也哉。

e-6) 천인성명(天人性命)에 관하여 글을 쓸 때에는 변별(辨別)하는⁴⁹⁾ 것에 온오(蘊奧)함이⁵⁰⁾ 많아 미발(未發)한 세상 선비들이 다 찾아 왔다. 문장(文章)이 풍부하고 빛나며 시사(詩詞)가 기이하고 아름다웠으니, 실로 공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지은 것들이다. 평소 책을 쓰고 집에서 글을 지은 것이 모두 나라를 다스릴 때의⁵¹⁾ 지남(指南)이⁵²⁾ 되고, 치세(治世)의 약석(藥石)이⁵³⁾ 될 만한 것이었으나, 늙도록 논밭두

38) 경제(經濟) : 경세(經世)와 제민(濟民).

39) 도의(道義) :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40) 국시(國試) : 과거시험을 말함.

41) 개호(開戶) : 지계문을 열.

42) 막연(漠然) : 아득함. 짐작할 수 없음. 어렵풋함.

43) 개호산번(開戶山樊) : 과거시험에 낙방함을 서술한 것임.

44) 도신(道臣) : 관찰사.

45) 송선생(宋先生) : 송시열.

46) 존양(尊攘) : 존주양이(尊周攘夷). 송시열의 존주대의(尊周大義 : 춘추대의에 의거하여 중화(中華)를 명나라로 이적(夷賊)을 청나라로 구별하여 받힘)를 말하는 것임.

47) 도도(滔滔) : 기세있게 나오는 말이 거침이 없음.

48) 방불(彷彿) : 거의 비슷함. 그럴 듯함.

49) 변별(辨別) :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함을 분별하여 앎.

50) 온오(蘊奧) : 학문이나 지식이 공골차고 웅성깊음.

령에 있으면서 자세히 벌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니,⁵⁴⁾ 이 어찌 하늘의 운이 아니겠는가.

F-1) 公事親極孝 志體俱養 及喪 廬墓三年 極其哀毀。其於昆季 思愛篤厚 每欲一其家而同其財。晚年定居于雪橋峽中。幕人開荒 廣土田厚蓄貯 以與昆季族人共之。又以待知舊之無所歸者則古人義庄之遺意也。事幾就緒而公遽沒 甲午八月十八日 享年五十七。葬于雪橋·庭德谷丑坐。

f-1) 공(公)이 부모를 섬길 때에는 지극히 효도하여 뜻과 몸을 모두 봉양하다가 돌아가심에 이르러 여묘살이 3년을 하면서 슬픔을 다하였다. 형제들에⁵⁵⁾ 대해서는 항상 사랑스럽게 대하며 독실하고 인정이 두터워,⁵⁶⁾ 그 집안을 하나로 하고 재산이 같게 하고자 하였다. 늘그막에 삼교(雪橋) 계곡 중에 거처를 정하였다. 사람들을 모아 황무지를 개척함으로써 논과 밭을 넓혔고 저축한 것이 넉넉하게 하여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⁵⁷⁾ 모두 함께 하였다. 그리고 옛날에 돌아오지 못하는 바를 기다려 알았으니, 고인이 말하는 의장(義庄)의 남겨진 뜻이다. 그러나 일이 거의 실마리가 풀리려는 순간에 공(公)께서 돌아가셨으니, 때는 1774년(甲午, 영조 50) 8월 18일이었고, 누린 나이 57세였다. (이에) 삼교(雪橋) 정덕곡(庭德谷) 북동쪽(丑坐)에 장사를 지냈다.

G-1) 原室 潘南朴氏 知敦寧府事 師漢之女 無育早沒 墓在可興江北壬坐原

g-1) 원실(原室)은⁵⁸⁾ 반남 박씨(潘南朴氏) 돈녕부(敦寧府) 지사(知事)를 지낸 사한(師漢)의 따님인데, 아이를 키워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다. 묘(墓)는 가흥(可興) 강(漢江) 북쪽 들판에 있다.

G-2) 繼室 密陽朴氏 士人礪之女 有二女 長過淸州韓命式 次適德水李及信 以伯兄四吾堂之第四子善永爲嗣。側出男洪永 進士 日五

g-2) 계실(繼室)은 밀양 박씨(密陽朴氏) 선비(士人) 현(礪)⁵⁹⁾의 따님으로 두 딸을 두었다. 큰 딸은 청주 한씨(淸州韓) 명식(命式)⁶⁰⁾에게 보내고, 둘째는 덕수 이씨(德水李) 급신(及信)에게 시집 보냈다. 이에 백형(伯兄) 사오당(四吾堂)의 넷째 아들 선영(善永)을 사자(嗣子)로 삼았다. 측실(側)에게서 아들 홍영(洪永)⁶¹⁾을 낳았다. 진사(進士) 일오(日五).⁶²⁾

51) 경국(經國) : 나라를 다스림.

52) 지남(指南) : 이끌어 가르치거나 가리킴.

53) 약석(藥石) : 약석지언(藥石之言). 남의 잘못을 훈계하여 그것을 고치는데에 도움이 되는 말. 약언(藥言).

54) 전포(展布) : 진술(陳述).

55) 곤계(昆季) : 맏형과 막내아우. 형제를 말함.

56) 독후(篤厚) : 독실하고 인정이 두터움.

57) 족인(族人) : 집안 사람.

58) 원실(原室) : 전실(前室).

59) 박현(朴礪) : 미상.

60) 한명식(韓命式) : 미상.

61) 안홍영(安洪永) : 1766년(병술) 출생. 안석경의 아들. 1805년(순조 5)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함.

62) 안일오(安日五) : 미상.

장동식 張東植 묘비 墓碑

<전면>

A-1) 嘉義大夫·行加德兵馬僉節制使·仁同張公諱東植之墓 配貞夫人 全州李氏 左。配貞夫人 海州吳氏 右。

a-1) 가의대부(嘉義大夫)·행직(行職)으로 가덕병마첨절제사(加德兵馬僉節制使)를 지낸 장동식(張東植)의 묘(墓) 왼쪽은 정부인(貞夫人) 전주 이씨(全州李氏이고), 오른쪽은 정부인 해주 오씨(海州吳氏)이다.

<후면>

B-1) 仁同張君基薛謂予不佞曰 薛自漢京落于東 食橫城土 有年矣。孤寄他鄉 隔遠故山 先靈有彷徨 靡依之慮 後承 無禁伐守護之道 興言及此 無以自處 迺於橫之屯內面 玄川里 占得向午之穴 遷先大夫僉使公 衣烏而藏之。二配 皆左右 以耐焉。踞薛居爲二舍 而近歲時 省掃 庶伸 霜露之感 而尙闕。隨道之顯刻 深懼 後來者 無由知茲邱之 爲某幽宅 夙夜斤斤 自祇力治 小石矣。敢以不朽 屬執事 執事幸有以惠顧之則 感荷深恩 不獨薛一人也。顧予 生平不喜 銘人而殊 不忍孤其意也。

b-1) 인동 장씨(仁同張) 기벽(張基薛) 군(君)이 내가 아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벽(薛)은 한(漢)나라 때에 서울에서 동쪽으로 와서 횡성 땅을 식읍으로 받은 지 오래되었다. 외로운 몸이 타향에 의탁하여 옛 산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니, 선조의 영혼들이¹⁾ 방황하므로 도우려는 생각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금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횡성군 둔내명 현천리에서 남향의 땅을 택하여 돌아가신 할아버지 첨사공을 옮겨 잘 엮을 하여 모셔 두고, 두 부인을 좌우에 합장하였다.

C-1) 據狀 公諱東植 字致弘 仁同之張 以高麗 太常卿伯爲鼻祖。曾祖 諱志柱 典牲直長·贈司僕寺正。祖 諱 鉉潤 宣略將軍·贈工曹參議。考 諱 載汲 忠翊衛·贈工曹參判。妣 贈貞夫人 全州李氏。考曰仁培 厚陵別子 德泉君之後也。

c-1) 상(狀)에 의거해 보면, 공의 이름(諱)은 동식(東植)이고 자(字)는 치홍(致弘)으로 인동(仁同) 장씨(張氏)이다. 고려시대 태상경(太常卿) 백(伯)이 시조이고,²⁾ 증조할아버지의 이름(諱)은 지주(志柱)로서 전생직장(典牲直長)을 지냈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의 이름(諱)은 현윤(鉉潤)으로 선략장군(宣略將軍)과 공조참의(贈工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아버지(考)의 이름(諱)은 재급(載汲)으로서 충익위(忠翊衛)를 지냈고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어머니(妣)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된 전주 이씨(全州李氏)인데, 아버지는 인배(仁培)로 후릉(厚陵)³⁾의 별자(別子)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예이다.

1) 선령(先靈) : 선조들의 영혼.

2) 비조(鼻祖) : 시조(始祖).

3) 후릉(厚陵) :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는 조선 제2대왕 정종과 비 정안왕후 김씨(定安王后金氏)의 능. 1412년(태종 12) 왕후가 죽자 능을 후릉으로 정하였으며, 1419년(세종 1) 정종이 죽자 왕비의 동원(同原)에 장례를 치렀다. 이 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營) 1인과 참봉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增補文獻備考, 大典會通.

D-1) 公 少趨趨好武事 竟以是登科 積官至加德僉使 階嘉義其生在仁陵。辛酉卒于洪陵。丁丑而六月十一八月二十二則其日也。

d-1) 공은 어려서부터 헌걸차고⁴⁾ 무예와 싸움에 관한 일⁵⁾ 좋아하였다. 그러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력(官歷)을 쌓아 가덕첨사(加德僉使)에 이르렀고, 관계(官階)는 가의대부(嘉義)에 올랐다. 인릉(仁陵) 신유년(辛酉)에 태어나 홍릉(洪陵) 정축(丁丑)에 돌아가셨으니, 6월 18일과 8월 22일이 그 날이다.

E-1) 二配。李氏 貫全州 父仁淵。吳氏 貫海州 父亨善。皆貞夫人先贈而後封。三男。恒煥·英煥·元煥。恒煥 男卽基薛司果。英煥 男基元。元煥 男基燦。基薛 男錫瑛·錫潤。錫瑛 男鈺淳則爲四世而餘幼。

e-1) 부인은 두 분이다. 이씨(李氏)는 전주(全州)가 본관으로 아버지는 인연(仁淵)이시고, 오씨(吳氏)는 해주(海州)가 본관으로 아버지는 형성(亨善)이셨는데, 두 분 다 정부인(貞夫人)으로 먼저 추증된 후에 봉(封)을 받으셨다. 아들은 셋으로, 항환(恒煥) 영환(英煥) 원환(元煥)이 있고, 항환의 아들이 사과(司果)인 기벽(基薛)이고, 영환의 아들이 기원(基元), 원환의 아들이 기찬(基燦)이다. 기벽(基薛)의 아들은 석영(錫瑛)과 석윤(錫潤)이고, 석영(錫瑛)의 아들이 한순(鈺淳)이니 바로 공의 4세(四世)이다.

F-1) 公 既永寧吉壤 歲享明禋 而又螭盤龜負之碑。穹窿羨門之側 將期乎。無止則 世之死 而如公者 能復幾人乎。其有深仁厚德 從可以知矣。而君追遠之孝 尤可尚也已。

f-1) 공이 길한 땅을 택해 영원히 잠드시자 매년 정결한 제사를 지내드리고, 또 이수(螭首)와 귀부(龜趺)를 갖춘 비를 세워 드렸는데, (이는) 높이 그 뜻을 새기어⁶⁾ 문중을 드러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실) 공(公)과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려고. 어질고 후덕함을 가히 알 수 있겠다. 군(君, 基薛)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는⁷⁾ 효성스러움도 특별히 높이는 바이다.

G-1) 銘曰。玄川之上 其原面陽 樵牧勿來 大夫 攸帳。

g-1) 현천리(玄川里) 위 햇빛 잘 드는 곳에, 나무꾼과 목동을 오지 말라 하고, 대부(大夫)께서 장막을 치셨다.

H-1) 通政大夫·秘書院丞 兼太醫院少卿·原任奎章閣直閣 恩津 宋奎憲撰。

h-1)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승(秘書院丞) 겸(兼) 태의원(太醫院) 소경(少卿) 원임(原任)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은진(恩津) 송규헌(宋奎憲) 지음.

H-2)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 海平 尹用求書。

h-2) 승록대부(崇祿大夫) 전(前) 돈녕원(敦寧院) 판사(判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⁸⁾ 씀.

4) 규궤(趨趨) : 헌걸찬 모양. 무예가 있고 용감한 모양.

5) 무사(武事) : 무예(武藝)와 싸움에 관한 일.

6) 궁륭(穹窿) : 한가운데는 높고, 사방 둘레는 차차 낮은 하늘 형상. 무지개처럼 높고 길게 굽은 형상.

7) 추원(追遠) : 먼 조상이나 부모를 추모하여 공경을 다함.

8) 윤용구(尹用九) : 1853(철종 4)~1939. 문신·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 남녕위 의선(宜善)의 아들이다. 1871년(고종 8) 직장(直長)으로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법무·탁지부·내무부 등 대신에 십수회 배명(拜命)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자오(自娛)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천의 「문간공한장석신도비(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광주(廣

H-3) 高宗丙寅五月日立。

h-3) 1866년(高宗 丙寅) 5월(五月)에 세움.

州)의 「선성군무생이공신도비(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降仙樓) 현판 등을 남겼다. 한편, 그림으로는 「죽도(竹圖)」(개인소장)와 「묵죽(墨竹)」(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한국서예백년전에 출품된 행서 작품을 보면 특징있는 자기의 필치는 이루었으나, 강약의 변화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어 부자연스럽고 행의(行意)의 수필처(收筆處)의 획들에도 군더더기가 생긴 곳이 많아 격이 높지는 못하다.

장항환張恒煥 묘비墓碑

<전면>

A-1) 通政大夫仁同張公諱恒煥之墓 配淑夫人全州李氏 右

a-1) 통정대부(通政大夫) 인동(仁同) 장항환(張恒煥)의 묘(墓) 숙부인(淑夫人)¹⁾ 전주 이씨(全州李氏)를 합장함.

<후면>

B-1) 維橫城郡屯內面玄川里黃隅之麓若堂斧然面午而封者 乃故通政仁同張公衣烏之藏。

b-1)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 현천리(玄川里) 중앙(黃隅) 산기슭에 마치 짐이 솟아 있는 듯 남쪽을 향하여 북돋아진 것이 바로 통정(通政) 인동 장씨(仁同張) 공(公)의 의석지장(衣烏之藏)이다.

C-1) 以高麗朝太常卿伯爲鼻祖。以典牲直長 贈司僕寺正 志柱 宣畧將軍 贈工曹參議 鉉潤 忠翊衛 贈工曹參判 載汲 加德僉使 東植爲高曾 若祖禰。

c-1) 고려 왕조(高麗朝)의 태상경(太常卿) 백(伯)이 시조(始祖)²⁾이다. 전생(典牲)의 직장(直長)이며,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된 지주(志柱), 선략장군(宣畧將軍)이며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된 현윤(鉉潤), 충익위(忠翊衛)이며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추증된 재급(載汲), 가덕첨사(加德僉使) 동식(東植)을 고조 증조 할아버지로서 사당³⁾에 모시었다.

C-2) 以贈貞夫人 全州李氏仁淵女封貞夫人 海州五氏亨善女爲二妣 以淑夫人全州李氏 林堰君裔孫致煥女爲配而同穴 以司果基薛·錫瑛·錫潤·鈺淳爲子 若孫曾而其生。

c-2)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된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인연(仁淵)의 따님으로 정부인(貞夫人)에 봉(封)해졌고, 해주 오씨(海州吳氏)는 형선(亨善)의 따님으로 두 어머니이다. 숙부인(淑夫人)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임연군(林堰君)의 후손인⁴⁾ 치환(致煥)의 따님으로 부인이 되었는데, 같은 무덤에 묻혔다.⁵⁾ 사과(司果)⁶⁾ 기설(基薛) 석영(錫瑛) 석윤(錫潤) 한순(鈺淳)이 자손이다.

D-1) 仁陵戊子九月十一日其卒 洪陵丁丑十月二十四日 其諱恒煥 其字雄汝契哉 樵牧母戒之壤。

1)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

2) 비조(鼻祖) : 시조(始祖).

3) 조예(祖廟) : 조묘(祖廟, 先祖의 사당)과 부모(父廟).

4) 예손(裔孫) : 대수가 먼 자손.

5) 동혈(同穴) : 부부가 죽은 뒤에 한 무덤에 묻힘.

6) 사과(司果)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6품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郎將, 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21인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은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채아(原祿遞兒)를 받았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光海君日記, 正祖實錄, 經國大典, 續大典, 萬機要覽, 增補文獻備考,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陸軍本部, 軍事研究室, 1968), 朝鮮初期五衛의 形成(千寬宇, 近世朝鮮史研究, 一潮閣, 1969).

d-1) 인릉(仁陵) 무자(戊子) 9월(九月) 11일(十一日) 탄생하시어 홍릉(洪陵) 정축(丁丑) 10월(十月) 24일(二十四日) 돌아가셨으니, 그 이름(諱)은 항환(恒煥)이고, 그 자(字)는 웅녀계(雄汝契)인데, 나무하고 소를 치며 살아가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E-1) 通政大夫秘書院丞兼太醫院少卿原任 奎章閣直閣恩津宋奎憲撰

e-1)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승(秘書院丞) 겸(兼) 태의원(太醫院) 소경(少卿) 원임(原任)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은진(恩津) 송규헌(宋奎憲) 지음.

E-2)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e-2) 승록대부(崇祿大夫) 전(前) 돈녕원(敦寧院) 판사(判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⁷⁾ 씀.

E-3) 高宗丙寅五月 日立

e-3) 1866년(高宗 丙寅) 5월(五月)에 세움.

7) 윤용구(尹用九) : 1853(철종 4)~1939. 문신·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 남녕위 의선(宜善)의 아들이다. 1871년(고종 8) 직장(直長)으로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법무·탁지부·내무부 등 대신에 십수회 배명(拜命)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자오(自娛)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친의 「문간공한장석신도비(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광주(廣州)의 「선성군무생이공신도비(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降仙樓) 현판 등을 남겼다. 한편, 그림으로는 「죽도(竹圖)」(개인소장)와 「묵죽(墨竹)」(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한국서예백년전에 출품된 행서 작품을 보면 특징있는 자기의 필치는 이루었으나, 강약의 변화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어 부자연스럽고 행의(行意)의 수필처(收筆處)의 획들에도 군더더기가 생긴 곳이 많아 격이 높지는 못하다.

이석해 李錫海 묘비 墓碑

<전면>

嘉善大夫·行龍讓衛

折衷將軍牛峰李公錫海之墓

貞人居昌劉氏 乾坐 左岡

가선대부(嘉善大夫)이고 행직(行職)으로 용양위(龍讓衛) 절충장군(折衷將軍)을 지낸 우봉(牛峰) 이석해(李錫海)의 묘(墓). 정인(貞人) 거창 유씨(居昌劉氏) 서북방(乾坐)¹⁾ 왼쪽 구릉(左岡)에 있다.

<좌측면>

檀紀四三一七年 甲子四月 日

西紀一九八四年 五月 日

三州后人九代孫 丙洙

1984년(단기 4317년) 삼주후인(三州后人)의 9대(九代孫) 병수(丙洙).

1) 건좌(乾坐) : (뒋자리·집터 같은 것이) 건방(乾方) 곧 서북방을 등진 좌향(坐向).

이산립 李山立 묘비 墓碑

<전면>

A-1) 恭人原興李氏 左 通德郎李公山立之墓

a-1) 통덕랑(通德郎) 이산립(李公山立)의¹⁾ 묘(墓). 공인(恭人) 원흥 이씨(原興李氏)를 합장함.

<후면>

B-1) 公字陽口生於辛丑十一月二十三日卒壬午四月二十五日享年四十二 配原興君李應寅之女生於癸卯八月二十四日卒于丁卯二月初二日享年 八十五 合葬于橫城隅川正巖洞甲庚之原

b-1) 공(公)의 자(字)는 양구(陽口)로서, 1601년(辛丑, 선조34) 11월 23일에 태어나 1642년(壬午, 인조 20) 4월 25일에 돌아가셨으니 누린 나이 42세이고, 배우자인 원흥군(原興君) 이응인(李應寅)의²⁾ 따님은 1603년(癸卯, 선조36) 8월 24일에 태어나 1687년(丁卯, 숙종 13) 2월 2일에 돌아가셨으니, 누린 나이 85세였다. (두 분을) 횡성군(橫城) 우천면(隅川) 정암마을(正巖洞) 동북에서 남서로 뻗은 뿔자리(甲庚之原)에 합장(合葬)하였다.

C-1) 崇禎紀元後甲午四月日 子瑑謹豎

c-1) 1714년(崇禎紀元後 甲午, 숙종 40) 4월 아들인 이진(李瑑)이³⁾ 세움.

1) 이산립(李山立) : 미상. 이반계(李攀桂)의 후손으로 추정됨.

2) 이응인(李應寅) : 미상.

3) 이진(李瑑) : 미상.

창녕 조씨 昌寧曹氏 묘비 墓碑

<전면>

貞敬夫人昌寧曹氏之墓

정경부인(貞敬夫人) 창녕 조씨(昌寧曹氏)의¹⁾ 묘(墓).

1) 창녕 조씨(昌寧曹氏) : 이반계(李攀桂)의 부인. 직장(直長)을 지낸 성(晟)의 딸.

제용감부정 濟用監副正 조공 趙公 묘비 墓碑

<전면>

淑人光州盧氏 通訓大夫·行濟用監 副正趙公之墓

숙인(淑人)¹⁾ 광주 노씨(光州盧氏)와 통훈대부(通訓大夫)이며 행직(行職)으로 제용감(濟用監) 부정(副正)²⁾을 지낸 조공(趙公)의 묘(墓)

1)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종3품의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

2) 부정(副正) : 조선시대 종3품 관직. 군사감·제용감·선공감·사제감·전의감의 부정은 1414년 정월 감을 정으로 소감을 부정으로 고쳤다가, 1466년 정월 격을 올려 판사(判事)를 정으로, 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첨정으로 고치는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질 적에 종4품에서 종3품으로 승격하였다

성주(星州) 이씨(李氏) 묘비(墓碑)

<전면>

淑人 星州李氏之墓

숙인(淑人)¹⁾ 성주 이씨(星州李氏)의 묘(墓)

<후면>

副正公 初室而無後

부정공(副正公)의 초실(初室)이었으나 후사가 없었다.

1) 숙인(淑人) : 조선시대 정3·종3품의 종친 및 문부관의 아내.

최양옥 崔養玉 묘비 墓碑

<전면>

愛國志士江陵崔公養玉之墓
애국지사 강릉 최양옥의1) 묘

<좌측면 및 후면>

지사(志士)는 1893년(一八九三年) 12월(十二月) 5일(五日)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갑천면(甲川面) 화전리(花田里)에서 출생(出生)하시어 1913년(一九一三年) 4월(四月) 원주보통학교(原州普通學校)에 입학(入學)하시어 1917년(一九一七年) 같은 학교(同校)를 졸업(卒業)하셨고 같은 해(同年) 3월(三月)에 서울 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入學)하시어 1919년(一九一九年) 3·1운동(三一運動)이 일어나자 민족정신(民族精神)과 항일사상(抗日思想)이 투철한지사(志士)는 독립투쟁(獨立鬪爭)에 자신(自身)을 희생할 각오(覺悟)로 학교(學校)를 중퇴(中退)하고 고향(故鄉)인 강원도(江原道) 횡성(橫城)으로 내려가시어 동지(同志)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天道敎人)들과 합세(合勢)하여 같은 달2) 11일(十一日) 횡성읍(橫城邑) 장날에 만세(萬歲) 시위운동을 전개하셨다.

그 후 지사(志士)는 일경(日警)의 추적을 피하여 가진 고생(苦生)을 겪다가 상경(上京)한 후 만주(滿洲)에서 이동녕(李東寧)·박은식(朴殷植)으로부터 군자금모집(軍資金募集)의 지령(指令)을 받고 서울에 와서 표면상으로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창립(創立)하던 신덕영(申德永)을 만나 1920년(一九二十年) 7월(七月) 서울 소격동(昭格洞) 신덕영(申德永)의 집에서 신덕영(申德永)·노형규(盧衡奎) 등과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組織)하였고 지사(志士)는 농림주식회사(農林株式會社)의 주식 모집원(募集員)으로 가장하고 전남(全南) 각지(各地)에서 많은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로 보내었다. 지사(志士)는 다시 신덕영(申德永)·노기준(盧其準)과 같이 전남(全南) 담양군(潭陽郡) 및 곡성군(谷城郡)에서 군자금모집(軍資金募集)에 진력(進力)하던 중(中) 같은 해(同年) 11월(十一月) 5일(五日) 노기준(盧其準)과 함께 자동차(自動車)를 타고 광주(光州)로 가던 도중(途中)에 일경(日警)에게 피체되어 1921년(一九二一年) 5월(五月) 7일(七日)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징역 7년(七年)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一九二六年) 출감(出監)하였다.

출감(出監) 후 귀향(歸鄉)하여 부친(父親)은 4개월전(四個月前)에 별세(別世)하였고 가족(家族)들은 사방(四方)으로 흩어져 그 형편은 말할 수 없으나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爲)하여 몸을 바친 지사(志士)는 불고가사하고 고국(故國)을 떠나 만주(滿洲)로 망명하여 중국(中國) 산서성(山西省) 태원부(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南)·신덕영(申德永)·김정련(金正連) 등과 북만(北滿)에서 독립군(獨立軍) 비행사(飛行士)를 양성(養成)할 목적(目的)으로 비행학교설립(飛行學校設立)을 계획(計劃)하고 그 기금 모집과 서울에 공명단지부(共鳴團支部)를 설치(設置)하고자 김정련(金正連)·이선구(李善九)와 함께 서울 교외 망우리(忘憂里)에서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으로 가는 일(日) 우편물(郵便物) 수송차(輪送車)를 권총으로 습

1) 최양옥(崔養玉) : 1893(고종 30) ~ 1983.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

2) 도월 : 동월의 오자.

격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지사(志士)의 일행은 차(車) 속에 실었던 우편(郵便) 낭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인(日人)의 우편물은 전부 불태워 버리고 동포(同胞)의 우편물만 남겨두었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自動車)를 모조리 정지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속으로 끌고 가서 열좌시키니 그 수효는 70여 명(七十餘名)이었다. 이같이 산 밖으로 정보(情報)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志士)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江原道)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미처 이 급보(急報)를 받은 일경(日警)은 경기(京畿)·황해(黃海)·강원(江原)·충북(忠北)·충남(忠南) 등 5도(五道)의 일경(日警)과 일군(日軍) 제19사단(第十九師團)의 응원을 얻어 천마산(天摩山)·양주(楊州)을 포위하며 지사(志士)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戰鬪)를 시작(始作)하여 망우리(忘憂里) 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 들면서 1주야(一晝夜)를 악전고투(惡戰苦鬪)하였으나 탄환(彈丸)은 떨어지고 배는 고파 세공력신하여 일경(日警)에게 피체되었다.

그 후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1년간(一年間) 예심을 거쳐 지사(志士)는 10년(十年)의 언도를 받고 김정련(金正連)은 징역 9년(九年), 이선구(李善九) 징역 6년(六年)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西大門) 형무소(刑務所)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李善九)는 옥중에서 병사(病死)하고 지사(志士)는 10년(十年)이란 긴 세월(歲月)을 복역하다가 만기(滿期) 출옥하였다. 1945년(一九四五年) 8·15(八·一五) 광복(光復) 후에는 서울 형무소(刑務所) 과장(課長)으로 2년간(二年間) 근무(勤務)하다가 인천형무소장(仁川刑務所長)에 승진(昇進)되어 근무(勤務)하였다. 서기(西紀) 1962년(一九六二年) 3월(三月) 1일(一日)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을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로부터 받았다.

서기 1893년 음력 2월 5일 태어남(西紀一八九三年陰二月五日生)

서기 1983년 음력 5월 4일 졸(西紀一九八三年陰五月四日卒)

자(子) 돈용(燾用) 돈수(燾壽) 돈진(燾辰)

서기 1984년 4월 15일 건립(西紀一九八四年四月十五日建立)

강성순 姜聲順 묘비 墓碑

<전면>

殉國烈士

晉州姜公聲順之墓

配 淸州韓氏祔

순국열사(殉國烈士) 진주(晉州) 강성순(姜聲順)의 묘(墓)

부인 청주 한씨(淸州韓氏)를 합장함.

<좌측면 및 후면>

공(公)의 이름(諱)은 성순(聲順)이요, 자(字)는 사운(士允)이시니, 본관(貫)은 진주(晉州)요, 성(姓)은 강씨(姜氏)이다.

시조(始祖)는 고구려(高句麗) 명장(名將)이신 원수공(元帥公) 이식(以式)이시며 원세손(遠世孫) 박사공(博士公) 계용(啓庸)의 칠세손(七世孫) 통정공(通亭公) 회백(淮伯)으로 한 아들(一子)이 장령공(掌令公) 종덕(宗德)이라. 이 분의 일자(一子)이신 군수공(郡守公) 자신(子愼)의 12세손(十二世孫) 유(瑜, 호는 商谷)은 이조판서(吏曹判書)·대제학(大提學)을 지내셨으니 공(公)은 13세손(十三世孫)으로 갑오년(甲午年)에 부친(父親) 호원(浩遠)과 모친(母親) 해주 오씨(海州吳氏) 사이에 독자(獨子)로 출생(出生), 인생(人生)의 삶을 다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국가(國家)를 위(爲)해 헌신하신 순국열사(殉國烈士)이다.

공(公)의 할아버지(祖考) 이름(諱)은 대완(大完), 신해년(辛亥年) 7월(七月) 13일(十三日) 졸(卒)하시고 할머니(祖妣) 신씨(辛氏)는 정해(丁亥) 7월(七月) 2일(二日) 졸(卒)하시니, 묘(墓)는 정암(正菴) 지통곡(紙筒谷)에 계시다.

아버지(考) 이름(諱)은 호원(浩遠)이시니 무진(戊辰)에 출생하여(生) 계유(癸酉) 3월(三月) 10일(十日)에 졸(卒)하시고, 어머니(妣) 해주 오씨(海州吳氏)는 계미(癸未) 12월(十二月) 24일(二十四日)에 졸(卒)하셨으니, 묘(墓)는 법주리(法周里) 유좌(酉坐)에 안장(安葬)하셨다. 부인(配)은 청주 한씨(淸州韓氏)로 1950년(一九五〇年) 6월(六月) 16일(十六日) 졸(卒) 하셨다.

공(公)은 시대적(時代的)으로 춥고 배고픈 그리고 자유(自由)마저 빼앗긴 일제통치하(日帝統治下)의 억압된 세파(世波) 속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금(禁)할 길 없는 세상(世上)을 살으셨다. 각지(各地)에서 독립(獨立)을 위(爲)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가 배부되고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 공(公)이 살고 계신 횡성(橫城)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차(一次)로 기미년(己未年) 2월(二月) 27일(二十七日)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2차(二次)로 3월(三月) 1일(一日) 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이 있기까지 공(公)은 동분서주(東奔西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山)을 넘고 강(江)을 건너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사랑하는 조국(祖國)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위(爲)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이다.

더구나 횡성(橫城)의 3·1운동(三一運動)은 천도교회(天道教會)에 의해 추진(推進)되었던 바 공(公)도 천도교인(天道敎人)이셨던 것이다. 공(公)은 최종하·윤태환·탁영재·전성수·최동수 등(等) 십수명과 함께 추진(推進), 그 활약이 다대(多大)한 것으로 횡성(橫城)과 3·1(三一)운동이란 책(冊)에 수록(收錄)돼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특(特)히 공(公)이 서거(逝去)하실 3월(三月) 1일(一日)의 만세 운동(運動)은 1천3백여 명(千三百餘名)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의기(義氣)는 대단하였을 것이리라. 나라 잃은 백성들은 일본군(日本軍)의 군홃발과 말굽에 밟힌 지 수십년 동안(同安)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아왔던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운동(運動)이야말로 조국(祖國)없는 백성(百姓)은 없고 백성(百姓) 없는 나라는 없다는 말과 같이 징용(徵用)에 끌려가기 위(爲)함이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爲)함ियो, 일제(日帝)를 몰아내기 위(爲)한 한(恨)맺힌 투쟁이었다.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 공(公)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비명에 가셨지만 후손(後孫)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爲)해 몸을 던지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후손(後孫)들은 이렇게 서광(瑞光)하지 않은가! 길이 후손(後孫)에 물려줄 기상(氣像)이요, 영원(永遠)한 빛이요, 만만대(萬萬代)에 별이 되시리라! 고이 평안(平安)하옵소서. 공(公)의 묘(墓)는 백자동(栢子洞)에서 서기(西紀) 1989년(一九八九年) 11월(十一月) 1일(一日) 바리골로 이장(移葬). 乾坐¹⁾

西紀一九八九年十一月一日 豎

<우측면>

嗣子	仁求	曾孫	榮默
長孫	秉哲		到燁
	秉春	玄孫	教植
사자(嗣子)	인구(仁求)	증손(曾孫)	영묵(榮默)
장손(長孫)	병철(秉哲)		도엽(到燁)
	병춘(秉春)	현손(玄孫)	교식(教植)

1) 乾坐(乾坐) : (뒀자리·집터 같은 것이) 乾방(乾方) 곧 서북방을 등진 좌향(坐向).

사선생비 四先生碑

<전면>

四先生碑 鄭栢谷崑壽 鄭寒岡述 趙隱隱堂遴 趙松湖正立

사선생비(四先生碑)

백곡 정곤수(鄭栢谷崑壽)¹⁾ 한강 정구(鄭寒岡述)²⁾ 은은당 조린(趙隱隱堂遴)³⁾ 송호 조정립(趙松湖正立)⁴⁾

1) 정곤수(鄭崑壽) : 1538(중종 33) ~ 1602(선조 3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초명은 규(逵).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경음(慶陰)·조은(朝隱).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이다. 성주(星州)에 향촌적 기반을 두었다. 증 이조판서 윤증(胤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직 응상(應祥)이고, 아버지는 부사맹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성주 이씨(星州李氏)로 환(煥)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 승문(承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565년(명종 20) 예안 도산정사(陶山精舍)로 이황(李滉)을 찾아가 『심경(心經)]을 전수하였다.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해, 1566년에는 김굉필(金宏弼)의 사적·시문과 그에 관한 다른 선비들의 글을 모아 이황에게 보냈으며, 이황은 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경현록(景賢錄)]을 편찬하였다. 1555년 별거 초시(別舉初試)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72년 성균관의 천거를 받아 의금부도사로 벼슬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력·전서직장·주부·장례원사평을 역임하였다. 1576년(선조 9) 중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고, 부사과를 거쳐 1577년에 공주목사로 승진했다가 곧 상주목사로 옮겼다. 1581년 사과·과주목사, 1583년 부호군 겸 오위장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 때 단종의 능인 영월의 노릉(魯陵)에 사묘(廟廡)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585년 첨지중추부사·동부승지·우부승지, 1586년 상호군·호조참의·좌부승지·우승지를 거쳐, 1587년 여러 해 동안 흉년을 겪은 황해도에 관찰사로 특별히 임명되어 진휼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88년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서천군(西川君)에 봉해졌다. 1589년 도총관을 겸하고 판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충훈부 공신등록을 편찬하고 동지돈녕부사 겸 오위장·대사성·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1591년 동지의금부사·대사성·한성부좌윤 등을 거쳐 1592년 병조참판이 되었다가 형조참판으로 옮겼다. 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였다. 대사간이 되어서는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도록 건의했으며, 청병진주사(請兵陳奏使)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1593년 원병을 얻어온 공로로 승정대부에 오르고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이즈음 영위사(迎慰使)·접반사(接伴使)를 맡아 명나라 장수와 교섭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거듭 보국숭록대부에 오르는 상을 받고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1595년 도총관·예조판서, 1596년 좌찬성을 역임하고, 1597년 판의금부사·도총관 등을 겸하고 사은 겸 변무진주사(謝恩兼辨誣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선조를 호종한 원훈으로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녹훈되었다. 일찍이 수령을 지낼 때는 학문 진흥과 사풍(士風) 진작에 힘썼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대명외교에 큰 역할을 했다 한다. 죽은 뒤인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성주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백곡집』 4권 4책이 규장각 도서에 전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었다가 충익(忠翼)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栢谷集, 寒岡集.

2) 정구(鄭述) : 1543(중종 38) ~ 1620(광해군 12).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철산군수 윤증(胤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헌부감찰 응상(應祥)이고, 아버지는 김굉필(金宏弼)의 외증손으로 충좌위(忠佐衛) 부사맹(副司孟)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성주 이씨(星州李氏)로 환(煥)의 딸이다. [생 애] 6대조 총(摠)과 그 아우인 탁(擢)이 개국공신에 책봉되는 등 본래 공신가문으로 대체로 한양에서 살았으나 부친이 성주 이씨와 혼인하면서 성주에 정착하였다. 둘째 형인 곤수(崑壽)는 문과에 급제해 병·형조 참판, 의정부좌찬성 등 주요 관직을 지낸 관리였다. 5세에 이미 신동으로 불렸으며 10세에 『대학』과 『논어』의 대의를 이해하였다. 13세인 1555년 성주향교 교수인 오건(吳健)에게 역학을 배웠는데 건(乾)·곤(坤) 두 괘(卦)만 배우고 나머지 괘는 유추해 스스로 깨달았다 한다. 1563년에 이황(李滉)을, 1566년에 조식(曹植)을 찾아 뵙고 스승으로 삼았으며, 그 무렵 성운(成運)을 찾아 뵙기도 하였다. 1563년 향시(鄉試)에 합격했으나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1573년(선조 6) 김우옹(金宇襄)이 추천해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는 등 여러 번 관직에 임명되어도 사양하다가 1580년 비로소 창녕현감(昌寧縣監)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584년 동북현감(同福縣監)을 거쳐, 이듬해 교정청낭청(校正廳郎廳)으로 『소학연해』, 『사서연해』 등의 교정에 참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통천군수(通川郡守)로 재직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다. 1593년 선조의 형인 하릉군(河陵君)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지낸 공으로 당상관으로 승진한 뒤 우부승지, 장례원판결사·강원도관찰사·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전체적으로 중앙 관직보다는 지방의 수령으로 더 많이 활약하였다. 1603년 『남명집(南冥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인홍(鄭仁弘)이 이황과 이언적(李彦迪)을 배척하자 그와 절교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임해군(臨海君)의 역모사건이 있자 관련자를 모두 용서하라는 소를 올리고 대사헌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하려 했으며, 1617년 폐모론(廢母論) 때

에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인(庶人)으로 쫓아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만년에 정치적으로 남인으로 처신하지만 서경덕(徐敬德)·조식 문인들과 관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영남 남인과 다른 요소들이 많았으며, 뒤에 근기남인 실학파에 영향을 주었다. 문인으로는 서사원(徐思遠)·송원기(宋遠器)·손처눌(孫處訥)·한준겸(韓浚謙)·문위(文緯)·장흥효(張興孝)·이운우(李潤雨)·허목(許穆)·황중해(黃宗海) 등이 있다. [학문과 저술 활동] 학문은 성리학과 예학뿐만 아니라 제자백가역사산수(算數)·병진(兵陳)·의약(醫藥)·복서(卜筮)·풍수지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박학하였다.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어 1573년 『가례집람보주(家禮輯覽補註)』를 저술한 이래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심의제조법(深衣製造法)』,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 『오복연혁도(五福沿革圖)』 등 많은 예서를 편찬했으며, 이황의 예에 관한 서신을 모은 『퇴계상례문답(退溪喪祭禮問答)』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의 예학은 국가례(國家禮)와 사가례(私家禮)를 하나의 체계 속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주자의 총체적인 예학을 추구하였다. 동시에 왕례(王禮)와 사례(士禮)의 차별성을 강조해 17세기 예학의 한 경향인 왕사부동례(王士不同禮)의 단초를 열었다. 이는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체계를 모범으로 하고 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蓬)·주자 등의 예설을 바탕으로 해 가(家)·향(鄉)·방국(邦國)·왕조례(王朝禮)를 복원한 『오선생예설분류』에 잘 나타나 있다. 읍지에도 관심이 많아 1580년 『창산지(昌山誌)』를 편찬한 이래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지역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읍지를 편찬해 『동복지(同福志)』, 『관동지(關東志)』 등 7종의 읍지를 간행하였다. 특히 『영가지(永嘉志)』, 『평양지(平壤志)』 등의 편찬에도 관여해 후대의 읍지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함주지(咸州志)』 하나 뿐이다. 읍지 편찬의 목적은 생민(生民)도 있었지만 풍속의 순화와 교육, 즉 교화에 주안점이 있었다. 성리설(性理說)은 이황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으로 경전 가운데 특히 『심경(心經)』을 중시하였다. 외출할 때에도 손에서 떼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읽고, 제자를 가르치는 주된 교재였다 한다. 1603년 정민정(程敏政)의 『심경부주(心經附註)』를 비판한 이황의 『심경후론(心經後論)』을 계승해 『심경발휘(心經發揮)』를 저술했는데, 육구연(陸九淵)의 입장을 반영한 정민정의 설을 모두 삭제하고 이정(二程, 정이, 정호)과 주자의 설을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심경』은 경(敬)을 요체로 하는 성리학의 수양방법을 잘 제시한 책으로 16세기 후반 이후 영남 이황학파의 하나의 학문적 특색으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역시 이황의 저술인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분류해 『개정주자서절요총목(改定朱子書節要總目)』을 편찬했으며, 『성현풍범(聖賢風範)』, 『수사언인록(洙泗言仁錄)』, 『염락강장록(濂洛羹牆錄)』 등의 성리서를 저술하였다. 역사서로는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영향을 받으면서 연표형식으로 중국사와 한국사를 정리해 뒤에 나타나는 정통론과 강목체 사서와의 매개 역할을 한 『역대기년(歷代紀年)』과 역대 인물들의 정리와 평가의 성격을 지닌 『고금충모(古今忠謨)』, 『치란제요(治亂提要)』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문학서로서는 『고금회수(古今會粹)』, 『주자시분류(朱子詩分類)』 등을 편찬했으며, 의학서로는 눈병에 대한 처방을 담은 『의안집방(醫眼集方)』과 집에 소장한 의학서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내용을 뽑아 정리한 『광사속집(廣嗣續集)』 등이 있다. [평 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저술은 이황학파의 주자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전통과 서경덕·조식학파의 박학(博學)의 전통을 계승한 결과였다. 근기남인 실학파의 탈주자학적 사상의 뿌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서경덕·조식에 있었는데 그는 이 한 부분을 전달해 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625년 문목(文穆)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천곡서원(川谷書院), 칠곡의 사양서원(泗陽書院), 창녕의 관산서원(冠山書院), 충주의 운곡서원(雲谷書院), 현풍의 도동서원(道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海東名臣錄, 象村集, 鶴沙集, 南冥集, 記言, 畏齋集, 韓國儒學史(李丙燾, 亞細亞文化社, 1987).

3) 조린(趙遴) : 1542(중종 37) ~ 1627(인조 5). 조선 중·후기의 문신.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중겸(仲謙), 호는 은은당(隱隱堂). 사과(司果) 철수(哲守)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평양부사 윤준(俊)이고, 아버지는 제용감부정 응세(應世)이며, 어머니는 지중추부사 노공좌(盧公佐)의 딸이다. 1568년(선조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7년 사포서별제를 거쳐 의금부도사·전생서주부·사헌부감찰·연천현감 등을 지냈다. 1614년(광해군 6) 간신들의 전횡이 심하고 폐모론이 일어나 이원익(李元翼)·홍무적(洪茂績) 등이 쫓겨나 귀양가게 되자 섬강(蟾江)에 은퇴하였다. 서울을 떠날 때 배에다 서책과 기르던 학을 싣고 가므로 사람들은 그를 신선처럼 여겼다고 한다. 1623년 인조반정 뒤 평시서영에 등용되고 이어 장악원첨정이 되었는데, 이 때 나이 80이 넘었으므로 통정계(通政階)에 올랐다. 김효원(金孝元)·이경중(李敬中)과 한 동리에 살며 깊이 사귀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평하기를, 김효원은 백옥무진(白玉無塵 : 흰 옥에 티끌하나 없음), 이경중은 설월교휘(雪月交輝 : 달빛에 비친 눈처럼 빛남), 조린은 춘풍해빙(春風解氷 : 봄바람이 얼음을 녹임)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愚伏集, 蒼石集, 國朝人物考, 國朝人物志.

4) 조정립(趙正立) : 1560(명종 15) ~ 1612(광해군 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여직(汝直), 호는 송호(松湖). 평양서윤 준(俊)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제용감부정 응세(應世)이고, 아버지는 사포서별제 진(進)이며, 어머니는 좌통례 김진(金鎭)의 딸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가 되고,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거쳐 박사(博士)에 이르렀으며, 그 뒤 전직·정언·예조좌랑·수찬·지평·보덕·사간·사인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응교·집의·사성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1598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광해군 초 사간에 임명되어 사직하면서는 8조의 소(疏)를 올려 시무를 논하기도 하였다. 1612년(광해군 4) 김직재(金直

崇禎再戊戌 立祠。辛酉毀宇 埋安于此。趙先生嗣孫 基成 東鎮 壬申元月立。壬戌春立。

1718년(崇禎再戊戌) 사당을 세움. 1741년(辛酉) 사당이 훼손되어 이곳에 신주(神主)를 묻음. 조린선생(趙先生)의 사손(嗣孫)인 기성(基成)⁵⁾과 동진(東鎮)⁶⁾이 1752년(壬申) 정월(元月)에 세움. 1802년(壬戌) 봄에 세움.

哉)의 옥사가 일어나자, 관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김직재의 일당인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아 부득이 직제학에 취임하였으나 곧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정경세(鄭經世)·한백겸(韓百謙)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을 닦았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晚悔集, 國朝人物考.

5) 조기성(趙基成) : 미상.

6) 조동진(趙東鎮) : 미상.

구일 具鎰 불망비 不忘碑

A-1) 縣監具侯鎰灌溉利民沒世不忘碑

a-1) 구일(具鎰)¹⁾ 현감(縣監)이 관개(灌溉) 사업을 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한 일(利民)을 오랫동안(沒世)²⁾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³⁾

B-1) 驪陽 後人 陳絳

b-1) 여양(驪陽) 후인(後人) 진괘(陳絳)가⁴⁾ 씀.

C-1) 余在橫城未期 世以喪玄具侯鎰伐。余視遂大興水利 □前州灌溉邑底 氏田爲百千頃 氏□于□誦。
其功不表 將樹寯碑 以寓沒世之思。

c-1) 내가 횡성에 있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상현(喪玄)으로 구일(具鎰)을 벌(伐)하였다.⁵⁾ 내가 보건대, 수리(水利) 사업을 크게 일으켜, 전(前)에 읍내(邑內)에⁶⁾ 물을 대어(灌溉) 씨(氏)의 밭이 수백 경(頃)이나 되어, 씨(氏)가⁷⁾ 그 덕을 칭송하곤 했으나, 공(功)이 드러나지 않아, (나는) 장차 비(碑)를 세워 (사람들이) 영원토록 생각하게 하려고 하였다.

C-2) 一日邑子鄭石洙 業□□于余。余旣尸官 無涓滴惠澤 氏頌當有意 於斯後 而亦未遑焉。

c-2) 하루는 읍내에 사는 유생(儒生)인⁸⁾ 정석수(鄭石洙)가⁹⁾ 나를 찾아와 (그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나는 시관(尸官)으로¹⁰⁾ 조금의 혜택도 받은 바 없었지만, 씨(氏)가 부르는 노래(頌)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1) 구일(具鎰) : 1620(광해군 12) ~ 1695(숙종 21).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중경(重卿). 참찬 사맹(思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평(宏)이고, 아버지는 관서 인기(仁攬)이며, 어머니는 부사과(副司果) 헌(憲)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가 되고, 1644년 세마(洗馬)를 거쳐, 1646년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라는 이유로 품계가 올라 와서별제(瓦罽別提)가 되었다. 1656년(효종 7) 금부도사가 되고, 1658년에 횡성현감으로 나가 묵은 땅을 개간하는 등 치적이 있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1664년(현종 5) 남평현감을 거쳐, 1667년에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이 되었다. 1668년 무과 별시에 급제해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훈원원부정을 역임하고 이듬해 홍양영장(洪陽營將)이 되었다. 이때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 왕의 특령으로 해직을 허락받았다. 1670년에 장단부사가 되고 얼마 뒤 황해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672년에 경기수군절도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1674년 금군별장(禁軍別將)을 거쳐 1675년에 한성부우윤으로 승진되고 총관(摠管)이 포도대장을 겸하였다. 1678년(숙종 4) 능평군(綾平君)으로 봉해지고, 이듬해 당시 영의정 허적(許積)의 아들 견(堅)이 세력을 믿고 양가의 부녀를 겁간한 일이 있자, 그 죄를 다스리다가 오히려 무고(誣告)를 입어 김해에 유배되었다. 1680년 특별히 한성부판윤 겸 총융사(摠戎使)에 임명되고, 1688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삭직당해 송추에서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등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西溪集,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2) 몰세(沒世) : 끝없이 오램. 영구(永久)함.

3) 불망비(不忘碑) : 어떠한 사적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

4) 진괘(陳絳) : 미상.

5) 벌(伐) : 1678년(숙종 4) 한성부윤으로 있을 때 무고로 김해에 유배된 일을 말함.

6) 읍저(邑底) : 읍내(邑內).

7) 씨(氏) : 비문에 씨(氏)가 네 번 나오는데, 관개시설로 도움을 받은 밭의 소유 집안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정석수를 단서로 정씨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8) 읍자(邑子) : 읍내에 사는 유생(儒生).

9) 정석수(鄭石洙) : 미상.

10) 시관(尸官) : 시위소찬(尸位素餐). 벼슬 자리에 있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타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

뜻이 있었지만, 이후 (글을 지을) 여가를 얻지 못하였다.¹¹⁾

C-3) 賴材丸□敏 一□□□□□余 爲氏慶幸。不啻若自吾身出 以□侯於余爲重表 兄余故樂道。其事而爲之鹿銘□。

c-3) (그러다) 몇 가지 재료에 의거하여 나에게 □□□□□한 것은 씨(氏)에게 경사롭고 다행한 일이었다.¹²⁾ 마치 내 스스로 나온 것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일(□侯)도 나에게 거듭 의사를 표시하였고, 형과 나는 옛날부터 같이 도를 즐겼기 때문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명(銘)으로 지어 놓고자 한다.

D-1) □□□□□□ □進士。戊戌四月十三日莅任。辛丑□月初四日 遶悍登武科。今爲漢城右尹。侯在縣□治□□□□□□□之一端 而氏之心頌 特□重□。

d-1) 후(侯)는 1642년(임오, 인종 20) □월 □□일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1658년(무술, 효종 9) 4월 13일 (형성현감으로) 부임해 왔고, 1661년(신축, 현종 2) □월 초4일에는 무과에 올랐으며, 지금(1675년, 숙종 1)은 한성우윤이 되었다. 구일(侯)이 현(縣)에 있을 때에 (□治□□□□□□□)한 것도 또 다른 예이다. 그래서 씨(氏)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특별히 □□□하다.

E-1) 銘曰。灌田萬畝 黎□之思 流澤千秋 尸素之羞

e-1) 銘曰. 많은 논에 물을 대어黎□의 생각이 들었고, 오랫동안 혜택을 봄이 (나 같은) 시관(尸官)의¹³⁾ 부끄러움인저,

F-1) 崇禎紀元沒三十二年□□□ □□□□□□□□五十一戊午

f-1) 1675년(崇禎紀元沒32年, 숙종 1)에 글을 짓고, 1678년(51, 戊午, 숙종 4)에 비를 세움.

11) 미황(未遑) : 미처 여가를 얻지 못함.

12) 경행(慶幸) : 경사롭고 다행한 일.

13) 시소(尸素) : 시위소찬(尸位素餐). 벼슬 자리에 있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타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형좌(李衡佐) 불망비(不忘碑)

<전면>

觀察使李公衡佐永世不忘碑

관찰사(觀察使) 이형좌(李公衡佐)¹⁾ 영세불망비(永世²⁾不忘碑³⁾

이후 비(碑)의 마멸은 심하나 자획(字劃) 확인은 가능하다.

<후면>

雍正六年戊申 七月日 立

1728년(雍正 六年 戊申) 7월에 세움.

1) 이형좌(李衡佐) : 미상.

2) 영세(永世) : 오랜 세월.

3) 불망비(不忘碑) : 어떠한 사적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

김일좌(金日佐) 불망비(不忘碑)

<전면>

縣監金公日佐清德一民□

崇禎□□□

현감(縣監) 김일좌(金公日佐)가¹⁾ 고귀한 덕행으로²⁾ 백성들을 착하게 바꾸어 놓은 것을 영원히³⁾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운 비(碑).⁴⁾

승정(崇禎) □□□

<후면>

原記四十年己丑正月日立

1769년(己丑, 原記 40년)⁵⁾ 정월에 세움.

1) 김일좌(金日佐) : 군선생안(郡先生案)에 이름이 있음.

2) 청덕(淸德) : 고귀한 덕행.

3) 영세(永世) : 오랜 세월.

4) 불망비(不忘碑) : 어떠한 사적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

5) 원기(原記) 40년 : 1769년으로 추정함. 승정연간을 사용한 기축년이라는 것과, 정우주(鄭宇柱)의 생몰년과 현감 재직 시기를 고려하면 1709년과 1769년이 가능한데, 현감 김일좌와 정우주의 불망비가 동시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생전(生前)보다는 사후(死後)에 비문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여 1769년으로 추정함. 원기(原記)의 뜻은 불명.

정우주 鄭宇柱 불망비 不忘碑

<전면>

縣監鄭公宇柱清德一民善改永世不忘碑

현감(縣監) 정우주(鄭公宇柱)가¹⁾ 고귀한 덕행으로²⁾ 백성들을 착하게 바꾸어 놓은 것을 영원히³⁾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운 비(碑).⁴⁾

<후면>

原記 四十年己丑 正月日立

1769년(己丑, 原記 40년)⁵⁾ 정월에 세움.

1) 정우주(鄭宇柱) : 1666(현종 7) ~ 1740(영조 1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대경(大卿), 호는 삼구당(三苟堂), 아버지는 수만(洙晩)이며, 어머니는 조중려(趙重呂)의 딸이다. 수성(洙性)에게 입양되었다. 1691년(숙종 17)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10년 사헌부지평이 되었으며, 장령을 거쳐 1715년 세자시강원필선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장령으로 옮겼다. 1725년(영조 1) 안동부사로 재직할 때 향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727년 남양부사로 재직할 때에는 임금의 능행(陵幸)을 당하여 밤에 햇불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었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파직되고 의금부에서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3월 의금부에서 풀려났으며, 11월에는 승정원승지에 서용되었다. 다음해 여주목사를 거쳐 1729년 승지로 천보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2) 청덕(淸德) : 고귀한 덕행.

3) 영세(永世) : 오랜 세월.

4) 불망비(不忘碑) : 어떠한 사적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

5) 원기(原記) 40년 : 1769년으로 추정함. 승정연간을 사용한 기축년이라는 것과, 정우주(鄭宇柱)의 생몰년과 현감 재직 시기를 고려하면 1709년과 1769년이 가능한데, 현감 김일좌와 정우주의 불망비가 동시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생전(生前)보다는 사후(死後)에 비문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여 1769년으로 추정함. 원기(原記)의 뜻은 불명.

□진환□鎮還 불망비 不忘碑

<전면>

□□□公鎮還 永世不忘碑

□진환(□鎮還)을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후면>

光緒十三年丁亥三月日

1887년(光緒 十三年) 3월

박주헌 朴周憲 불망비 不忘碑

(1)

<전면>

郡守朴公周憲永世不忘碑

박주헌(朴周憲)¹⁾ 군수를 영원히(永世)²⁾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³⁾

<후면>

辛丑八月日 井谷

1901년(신축) 8월에 세움.

(2)

<전면>

郡守朴公周憲永世不忘碑

박주헌(朴周憲) 군수를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후면>

隅川面 辛丑 八月日 立

우천면(隅川面) 1901년 8월에 세움.

(3)

<전면>

郡守朴周憲永世不忘碑

耶守者眞耶施者廣

民瘼如□聖化重光

군수(郡守) 박주헌(朴周憲)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진실되며, 베풀고자 하는 것은 넓다.

백성들이 병드는 것은 제 몸 아픈 것처럼 여기니, 성스러움이 더욱 빛난다.

<후면>

辛丑 五月日立

1901년(辛丑) 5월에 세움.

1) 박주헌(朴周憲) : 1826 ~ 1916. 조선 후기 문신. 자는 길보(吉甫) 호는 설초(雪樵). 고령 박씨로 승지 준우(浚愚)의 아들. 1864년(고종 1) 생원시에 합격한 후 교하현감과 횡성군수를 지냄. 1908년 음성군수로 부임했으나, 1910년 일제의 강제합병 후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鄉里)에 은거함.

2) 영세(永世) : 오랜 세월.

3) 불망비(不忘碑) : 어떠한 사적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

윤흥훈 尹興勳 불망비 不忘碑

<전면>

屯坊內區長尹興勳永世(不忘碑)

清於水精

白於□□

둔방내(屯坊內) 구장(區長)¹⁾ 윤흥훈(尹興勳)²⁾을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맑기가 수정과 같고 희기가 □□과(와) 같다.

<후면>

大正七年五月日

1918년(大正 七年) 5월.

1) 구장(區長)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시(市)·읍(邑)·면(面)에 딸린 구(區)의 우두머리.

2) 윤흥훈(尹興勳) : 미상.

신현필 申鉉弼 불망비 不忘碑

<전면>

邑前坪洑看役申鉉弼永世不忘碑

洪水奮天依□ 完築洑無形□ 是誰之力

읍(邑) 앞 평야에 보(洑)를¹⁾ 쌓을 때 간역(看役)²⁾을 맡았던 신현필(申鉉弼)³⁾을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하늘이 하는 일에 따라 논에 물이 넘치다가 보(洑)를 쌓은 덕분에 형태의 변화가 없어졌으니, 이것은 누구의 힘이던가.

<후면>

大正十四年乙丑(1925년)七月 日

周施李明寶

1925년(大正 14년 을축) 7월 이 일을 주관한 사람(周施)⁴⁾은 이명보(李明寶)⁵⁾임.

1) 보(洑) :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자그마하게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곳.

2) 간역(看役) : 건축이나 토목 따위의 공사를 보살핌.

3) 신현필(申鉉弼) : 미상.

4) 주시(周施) : 보편(普遍) 시포(施布).

5) 이명보(李明寶) : 미상.

안국선(安國善) 불망비(不忘碑)

<전면>

面長安國善永世不忘碑

안국선(安國善)¹⁾ 면장(面長)²⁾을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이하 마멸은 심하나 자획(字劃) 확인은 가능하다.

<후면>

大正十五年 五月日

1926년(大正 十五年) 5월에 세움.

1) 안국선(安國善) : 미상.

2) 면장(面長) : 면(面)의 행정을 집행하고 통괄하는 기관장.

석명선(石明瑄) 불망비(不忘碑)

<전면>

郡守石公明瑄永世不忘碑

석명선(石明瑄)¹⁾ 군수(郡守)를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비(碑)의 마멸은 심하나 자획(字劃) 확인은 가능하다.

<후면>

大正拾五年 九月日

1926년(大正 拾五年) 9월.

1) 석명선(石明瑄) : 미상.

원종우 元鍾禹 불망비 不忘碑

<전면>

三培里長元鍾禹永世不忘碑

□年戶稅 以食救貧

斯人担富 爲官爲民

삼배리 이장(三培里長) 원종우(元鍾禹)¹⁾를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매년 내는 호세(戶稅)를 줄여서 가난함을 구해 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 관(官)을 위하고 민(民)을 위하였다.

<후면>

戊戌三月日重修

1958년(戊戌)²⁾ 3월에 중수(重修)함.

1) 원종우(元鍾禹) : 미상.

2) 무술(戊戌) : 이장(里長)의 불망비를 세운다는 점에서 1958년으로 추정됨.

이범룡 李範龍 불망비 不忘碑

<전면>

郡守李公範龍永世不忘碑

이범룡(李範龍)¹⁾ 군수(郡守)를 영원히(永世)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비(不忘碑).

<후면>

甲辰十一月日

1964년(甲辰) 11월

1) 이범룡(李範龍) : 미상.

원용균(元容均) 기념비(紀念碑)

<전면>

隅川面長元公容均紀念碑

寬以御衆 一面頌德

□於處事 万口成碑

우천면장(隅川面長)¹⁾ 원용균(元公容均)²⁾ 기념비(紀念碑)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을 이끈다고 사람(面民)마다 덕(德)을 노래했고
(명쾌함으로?) 일을 처리한다고³⁾ 모든 사람들이 비(碑)를 만들었다.

<후면>

壬戌 五月日 盛

1922년(壬戌) 5월에 세움.

1) 면장(面長) : 면(面)의 행정을 집행하고 통괄하는 기관장.

2) 원용균(元容均) : 미상.

3) 처사(處事) : 일을 처리함.

조창렬(趙昌烈) 기념비(記念碑)

<전면>

正庵里長趙公昌烈記念碑

정암리(正庵里) 이장(里長) 조창렬(趙昌烈)¹⁾ 기념비(記念碑)

1) 조창렬(趙昌烈) : 미상.

민지혁 閔岐赫 기념비 紀念碑

<전면>

閔公岐赫紀念碑

白牙築洑 事半功倍

由來巨役 □凡□□

민지혁(閔公岐赫)¹⁾ 기념비(紀念碑)

백아(白牙)가 보(洑)를 쌓으니 일(事)은 반으로 줄고 공(功)은 배(倍)가 되었다.
큰 공사를²⁾ 마친 내력을 적어,……한다.

<후면>

乙亥十年月日 白樂坪 地主一同

1935년(을해 10년³⁾) 백락평(白樂坪) 지주(地主) 일동(一同)

1) 민지혁(閔岐赫) : 미상.

2) 거역(巨役) : 거창한 역사(役事). 큰 공사. 몹시 힘 드는 큰 일.

3) 십년(十年) : 소화(昭和) 10년. 소화(昭和)가 탈락되어 있음.

염영철 廉榮鐵 기념비 記念碑

<전면>

參奉 廉公榮鐵 記念碑

참봉(參奉)¹⁾ 염영철(廉公榮鐵)²⁾ 기념비(記念碑)

<후면>

粵在丙子 洪水滔天

賴公捐金 救我貧民

無麥無禾 荒飢之年

萬口成碑 咸頌其恩

丁丑 九月 日

1936년³⁾ 대홍수⁴⁾ 때에

공께서 의연금(義捐金)을⁵⁾ 내어 가난한 사람(貧民)들을 구해 주셨다.

보리도 없고 쌀도 없어 기근으로 굶주릴 때였다.⁶⁾

(이에) 모든 사람들이 비(碑)를 만들어, 함께 그 은혜를 기리었다.

1937년 9월 일

1) 참봉(參奉) :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2) 염영철(廉榮鐵) : 미상.

3) 병자(丙子) : 1936년.

4) 도천(滔天) : 높은 하늘에 널리 퍼짐. 세력이 엄청나게 크게 퍼짐.

5) 연금(捐金) : 의연금(義捐金).

6) 황기(荒饑) : 흉년이 들어 배를 굶음. 기근으로 굶주림.

이관우 李觀宇 기념비 紀念碑

<전면>

中水南里區長李公觀宇紀念碑

중수남리(中水南里) 구장(區長)¹⁾ 이관우(李公觀宇)²⁾ 기념비(紀念碑)

<후면>

庚辰 八月日立

1940년(庚辰) 8월에 세움.

1) 구장(區長)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시(市)·읍(邑)·면(面)에 딸린 구(區)의 우두머리.

2) 이관우(李觀宇) : 미상.

이병규 李秉珪 송덕기념비 頌德記念碑

<전면>

李公秉珪頌德記念碑

幹此里務 三十星霜 如親一家 不辭百忙

各安其業 公私實賴 刻石讚賀 永世不忘

李公秉珪¹⁾頌德記念碑

이장(里長) 일을 맡은 30년 동안

한 집안 사람같이 친하게 지내면서도 어떠한 바쁜 일도²⁾ 사양치 않았다.

각기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종사하면서³⁾ 공사(公私)간에 참된 믿음을 주었다.

(이에) 돌에 새겨 축하하고자 하니,⁴⁾ 영원토록 잊지 말았으면 한다.

<후면>

昭和十六年 三月日下水白里民一同 立

1941년(昭和 16) 3월 하수백리(下水白里) 사람들이 함께 세움.

1) 이병규(李秉珪) : 미상.

2) 백망(百忙) : 매우 바쁨.

3) 안업(安業) :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종사함.

4) 찬하(讚賀) : 경사를 축하함.

정양시 鄭養時 기념비 紀念碑

<전면>

區長鄭公養時紀念碑

구장(區長)¹⁾ 정양시(鄭公養時)²⁾ 기념비(紀念碑)

<후면>

乙酉 三月二十五日

1945년(乙酉) 3월 25일.

1) 구장(區長)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시(市)·읍(邑)·면(面)에 딸린 구(區)의 우두머리.

2) 정양시(鄭養時) : 미상.

김봉락(金鳳洛) 기념비(紀念碑)

<전면>

區長金公鳳洛紀念碑

구장(區長)¹⁾ 김봉락(金公鳳洛)²⁾ 기념비(紀念碑)

<후면>

橫城郡·甲川面·舊坊里

昭和二十年 乙酉四月日

횡성군(橫城郡) 갑천면(甲川面) 구방리(舊坊里)

1945년(昭和 20, 을유) 4월.

1) 구장(區長)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시(市)·읍(邑)·면(面)에 딸린 구(區)의 우두머리.

2) 김봉락(金鳳洛) : 미상.

도석재(都錫在) 기념비(記念碑)

<전면>

正菴里長都公錫在記念碑

於公於私 洞無□諠

以勤以寬 甘有□□

정암리(正菴) 이장(里長) 도석재(都公錫在)¹⁾ 기념비(記念碑)

공(公)적인 일이나 사(私)적인 일이나 마을에서 경망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근면하고 너그러움으로 하니, 달면서도 □□함이 있었다.

<후면>

丁亥 閏二月 三日 立石

1947년(丁亥) 윤2월 3일 비를 세우다.

1) 도석재(都錫在) : 미상.

최돈황(崔燉璜) 기념비(記念碑)

<전면>

朝鮮林業開發會社

山林主事崔公燉璜記念碑

조선임업개발회사(朝鮮林業開發會社) 산림주사(山林主事) 최돈황(崔公燉璜)¹⁾ 기념비

<후면>

마멸은 심하나 자획(字劃) 확인은 가능하다.

1) 최돈황(崔燉璜) : 미상.

원용균(元容均) 송덕비(頌德碑)

<전면>

隅川面長元公容均頌德碑

視事□手 一面□安

會議共同 勤之□□

우천면(隅川) 면장(面長)¹⁾ 원용균(元公容均)²⁾의 송덕비(頌德碑)³⁾

일을 맡아 볼 때(視事)⁴⁾에는 손을 걸어 부치고, 한번 얼굴을 보면 편안케 만들었다.

모여서 의논할 일은 함께 했으며, 부지런히 □□하였다.

1) 면장(面長) : 면(面)의 행정을 집행하고 통괄하는 기관장.

2) 원용균(元容均) : 미상.

3) 송덕비(頌德碑) : 공덕을 칭송하여 후세에 길이 빛내기 위해 세운 비.

4) 시사(視事) : 일을 봄.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일을 보던 일을 말함.

박병희 朴秉熙 송덕비 頌德碑

<전면>

生雲里區長朴公秉熙頌德碑

생운리(生雲里) 구장(區長)¹⁾ 박병희(朴秉熙)²⁾의 송덕비(頌德碑)³⁾

<후면>

昭和十二年丁丑 三月日立

1937년(昭和 十二年 丁丑) 3월에 세움.

1) 구장(區長)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시(市)·읍(邑)·면(面)에 딸린 구(區)의 우두머리.

2) 박병희(朴秉熙) : 미상.

3) 송덕비(頌德碑) : 공덕을 칭송하여 후세에 길이 빛내기 위해 세운 비.

이봉연 李鳳淵 송덕비 頌德碑

<전면>

隅川面長李公鳳淵頌德碑

우천면장(隅川面長)¹⁾ 이봉연(李公鳳淵)²⁾ 송덕비(頌德碑)³⁾

<후면>

十載治面 家和民安 上奉忠孝 下勸修齊

勤務農本 水組多功 一片豎石 百世不忘

10년 동안 면장 일을 맡아하면서 집안 사람들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이끌었다.

위로는 충(忠)과 효(孝)를 받들었으며 아래로 수신(修身) 제가(齊家)를 권하였다.

농사일에 힘써 일하면서 수리조합 일에 공이 많아

(이를 기념하는) 자그마한 돌을 세우니, 영원토록 잊지 말라.

<우측면>

檀紀四二九四年 辛丑 四月日建立

面民一同

1961년(단기 4294년, 신축) 4월 건립함. 면민(面民) 일동.

1) 면장(面長) : 면(面)의 행정을 집행하고 통괄하는 기관장.

2) 이봉연(李鳳淵) : 미상.

3) 송덕비(頌德碑) : 공덕을 칭송하여 후세에 길이 빛내기 위해 세운 비.

정난기 鄭蘭基 송덕비 頌德碑

(1)

<전면>

甲川面長鄭公蘭基頌德碑

□□□□三月九日面一同

갑천(甲川) 면장(面長)¹⁾ 정난기(鄭公蘭基)²⁾ 송덕비(頌德碑)

□□□□ 3월 9일 면민 일동.

(2)

<전면>

義禁府都事 迎日鄭公蘭基頌德碑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영일정공(迎日鄭公) 난기(蘭基) 송덕비(頌德碑)³⁾

이 비는 부동리에 세워야 하나 수몰로 이곳에 세우게 됨

<후면>

이 분은 생존시 갑천면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애향애민의 일념으로 면정을 베풀어 본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바, 특히 부동들 九十정보의 농토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애태우는 딱한 실정을 안타 끼어 여기시고 많은 재원을 지원하여 관개수에 힘쓰셔서 부동들 농리자가 수십 년간 물 걱정 없이 매년 풍작을 이루게 하여 소득 향상으로 동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시었으므로 그 은공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우다.

서기一九九四년四월二十九日

갑천면부동리농리자 일동

愛鄉愛民(애향애민)

福祉具顯(복지구현)

(3)

<전면>

甲川面長鄭公蘭基頌德碑

琴臺里一同

갑천(甲川) 면장(面長) 정난기(鄭公蘭基) 송덕비(頌德碑)

금대리(琴臺里) 일동(一同)

1) 면장(面長) : 면(面)의 행정을 집행하고 통괄하는 기관장.

2) 정난기(鄭蘭基) : 한말 금부도사(禁府都事).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고자 대의용병(代義勇兵) 소집(召集) 선전관(宣傳官)으로 활동. 일제강점 후에는 갑천면 2대 면장 역임. 농사짓는 기술을 보급 지도하며, 청소년들에게 신학문을 배우도록 권장함. 새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진국민이 되지 못하다고 하여 사숙(私塾)인 갑창학원(甲昌學院)을 설립하였다가 2년 후 보통학교로 승격시킴. 비각인 추원각(追遠閣)은 1938년 장남 인용(仁鎔)이 건립함.

3) 송덕비(頌德碑) : 공덕을 칭송하여 후세에 길이 빛내기 위해 세운 비.

정우주 鄭宇柱 선정비 善政碑

<전면>

縣侯鄭宇柱清德愛民善政碑 崇禎□□□

현후(縣侯)¹⁾ 정우주(鄭宇柱)의²⁾ 고귀한 덕행으로³⁾

백성들을 사랑한 것을 기념한 선정비(善政碑)⁴⁾ 승정(崇禎) □□□

-
- 1) 현후(縣侯) :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국공(國公)·군공(郡公) 다음의 서열로 식읍(食邑) 1,000호에 봉하여졌다. 《참고 문헌》 高麗史.
 - 2) 정우주(鄭宇柱) : 1666(현종 7) ~ 1740(영조 1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대경(大卿), 호는 삼구당(三苟堂), 아버지는 수만(洙晩)이며, 어머니는 조중려(趙重呂)의 딸이다. 수성(洙性)에게 입양되었다. 1691년(숙종 17)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10년 사헌부지평이 되었으며, 장령을 거쳐 1715년 세자시강원필선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장령으로 옮겼다. 1725년(영조 1) 안동부사로 재직할 때 향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727년 남양부사로 재직할 때에는 임금의 능행(陵幸)을 당하여 밤에 횃불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었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파직되고 의금부에서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3월 의금부에서 풀려났으며, 11월에는 승정원승지에 사용되었다. 다음해 여주목사를 거쳐 1729년 승지로 천보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 3) 청덕(淸德) : 고귀한 덕행.
 - 4) 선정비(善政碑) : 벼슬아치의 선정을 표창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

홍순태 洪淳泰 효자비 孝子碑

<전면>

孝子南陽洪公淳泰之碑

효자(孝子) 남양(南陽) 홍순태(洪淳泰)1)의 비(碑).

1) 홍순태(洪淳泰) : 1882년 안흥면(安興面) 지구리(池邱里) 출생. 평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산채를 캐다 음식을 만들어 부모님들이 맛있게 드시게 하고, 아버지의 상을 당한 후 3년 동안 하루같이 아침저녁으로 묘소에 가서 곡(哭)을 하였고,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똑같이 했다고 한다.

광산 김씨 光山金氏 정려비 旌閭碑

<전면>

A-1) 都鳳根妻光山金氏之閭

a-1) 도봉근(都鳳根)의 처(妻) 광산 김씨(光山金氏)의 정려(旌閭)

<우측면>

B-1) 檀紀四二八七年 三月日 江陵人 崔德圭 記。己未年 三月 改修。

b-1) 1954년(단기4287년, 갑오) 3월 강릉사람 최덕규(崔德圭)가¹⁾ 기록함. 1955년(기미) 3월 개수.

<좌측면>

C-1) 甲午春三月之吉 二美門成。卽都鳳根之妻 光山金氏之旌閭²⁾也。金氏 光傘府院君 諱 國光之后 瑞奉之女也。鳳根 青松堂 膺之后 參奉順敬之孫 楡坡 漢哲之子也。金氏 生長草野寒門³⁾ 曾無 姆師之訓 年纔二七 歸于都門卽戊辰歲也。

c-1) 1954년 봄 3월에 이미문(二美門)이 완성되었으니, 도봉근(都鳳根)의⁴⁾ 처(妻) 광산 김씨(光山金氏)가 열녀이고 효부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김씨(金氏)는 광산부원군(光傘府院君) 국광(國光)의 후손으로,⁵⁾ 서봉(瑞奉)의⁶⁾ 따님이다. 봉근(鳳根)은 청송당(靑松堂) 응(膺)의⁷⁾ 후손으로, 참봉(參奉)⁸⁾을 지낸 순경(順敬)의⁹⁾ 손자이고, 유파(楡坡) 한철(漢哲)의¹⁰⁾ 아들이다. 김씨는 초야(草野)의 가난한 집안¹¹⁾에서 낳고 자라, 학교 교육을¹²⁾ 받지 못하고 27세 때에 도씨 문중(都門)에 시집을 왔으니, 이때가 1928년(戊辰)이었다.

D-1) 一自入門 語默動靜 頗有法家儀範 若將有待矣。嗚呼。家運不淑 夫嬰奇疾 臥床十餘年也。醫藥之有聞無漏必試 飲食之適口極力求辦 衣必整勅 容不倦怠 是知賦於天而不失其天者也。人皆有是天 而

1) 최덕규(崔德圭) : 미상.

2) 정려(旌閭) : 충신·효자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일.

3) 한문(寒門) :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집안.

4) 도봉근(都鳳根) : 미상.

5) 김국광(金國光) : 1415(태종 15)~1480(성종 11). 조선 전기의 문신·공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관경(觀卿), 호는 서석(瑞石). 대사헌 약채(若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검열(檢閱) 문(問)이고, 아버지는 사헌부감찰 철산(鐵山)이며, 어머니는 김명리(金命理)의 딸이다.

6) 김서봉(金瑞奉) : 미상.

7) 도응(都膺) : 생물년 미상. 고려 후기의 충신. 본관은 성주(星州). 초명은 유(兪), 자는 자예(子藝), 호는 청송당(靑松堂). 조선 태조의 죽마지우로서 고려말 찬성사(贊成事)를 지내다가 1392년 조선 건국 후 태조가 특히 옛 정을 생각하여 상장군(上將軍)에 임명하였으나 사퇴하여 받지 않았다. 그 뒤 홍주(洪州) 노은동(老隱洞)에 은거, 다섯 차례의 소명(召命)을 모두 거절하고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귀감이 되었다. 태조가 그의 곧은 절의(節義)를 찬탄하여 내려준 호가 청송당이다.

8) 참봉(參奉) :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9) 도순경(都順敬) : 미상.

10) 도한철(都漢哲) : 미상.

11) 한문(寒門) :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집안.

12) 모사(姆師) : 여사(女師). 여자사범학교.

違乎天者 得無愧乎異矣乎。天何豐賦而嗇施也。

d-1) 한번 문중에 들어온 이래로 말수가 적었고 행동 가짐이 고요했으니, 예법을 소중하게 지키는 집안¹³⁾의 모범이 될 만한 몸가짐이 있었고¹⁴⁾ 나아갈 일이 있을 때에도 기다릴 줄 알았다. 아! 아! 슬프다. 집안의 기운이 맑지 못하여 남편과 아이들이 증세가 이상스런 병으로¹⁵⁾ 병상에 누운 지 10여 년이었다. 좋은 의사와 약에 대한 소문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시험해 보았으며, 먹고 마셔도 좋을 것들은 힘을 다해 구하고 갖추면서도, 옷차림은 가지런하였고 얼굴에 피곤하고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니, 이는 하늘이 부여한 바를 알아 그 하늘 됴를 잃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옳다고 하니, 하늘을 믿는 것을 어기면 부끄럽고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늘 역시 어떻게 풍부하게 부여하고 베풀지 않겠는가.

D-2) 辛巳春 鳳飛不下哀哀 隻鳳哭之氣絕 私圖飛從 竟爲人知 扶起力護。自家而隣老成咸集 開其不可方面其志 乃治喪葬。終始過憾 鄉里觀而憐之 遠近聞而 嘆賞。古云喪盡其哀者 是天理而民彝之極 天不墜者 斯可見矣。

d-2) 1941년(辛巳) 봄 숲 봉황이 내려오지 않고 슬피 울자¹⁶⁾ 홀로 남은 암 봉황이 기절(氣絶)을 하듯이, 사사로이 쫓아 날아가기를 도모하였으나, 마침내 사람들이 알아버려 도와 일으켜 세워¹⁷⁾ 힘써 보호하였다. 집안 사람들부터 이웃에 사는 노인들이 모두 모여 그 뜻이 불가함을 설득하여 마침내 초상을 치르게 되었다.¹⁸⁾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슬피하는지 동네 사람(鄉里)들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으며, 원근에서 이를 듣고 감탄하여 지켜보았으니,¹⁹⁾ 옛말에 초상을 치르면서 매우 슬피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이치이며, 사람의 떳떳함이 극진한 것이라 하여 하늘이 타락시키지 않는다 함을 가히 본 것과 같았다.

D-3) 服闋事舅姑惟順是承 夜織晝稼一以勤謹 家乃漸振。乃命從子炳淳爲后仍成宗 舅姑忘老 叔親悅睦。

d-3) 복(服) 입기를 마치고 시부모를²⁰⁾ 섬기는데 순종하기를 다하고, 밤에는 베를 짜고 낮에는 농사일 보기에 한결같이 근면하게 하여 집안이 점차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조카인²¹⁾ 병순(炳淳)을²²⁾ 후사로 세워 가문을 잇게 하였으니, 시부모님은 늙음을 잊어버렸고, 아저씨뿐 어른(叔親)들은 집안의 화목함을 기뻐하였다.

D-4) 噫。今世何世 青白難形人獸難判 以草野一婦兼得二美也。固守一節 終始不改 烈可慕也。繼成一宗 誠順不怠 孝可道也。旣烈且孝孰不榮之榮之。

13) 법가(法家) : 예법을 소중하게 지키는 집안.

14) 의범(儀範) : 모범이 될 만한 몸가짐.

15) 기질(奇疾) : 증세가 이상스러운 병.

16) 애애(哀哀) : 몹시 슬피하는 모양.

17) 부기(扶起) : 도와 일으킴.

18) 치상(治喪) : 초상을 치름.

19) 탄상(歎賞) : 감탄하여 칭찬함.

20) 구고(舅姑) : 시부모.

21) 종자(從子) : 조카.

22) 도병순(都炳淳) : 미상.

d-4) 아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맑고 결백한 사람도 찾기 어렵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금수(禽獸)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려운데, 초야(草野)의 한 아낙이 두 가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었다. 절개를 고수하며 시종토록 바꾸지 않으니 그 열녀(烈女)됨은 가히 사모할 만하고, 집안을 잇게 하려고 진실로 순종하며 게으르지 않으니 그 효성스러움을 가히 알 만하다. 이렇듯 정렬(貞烈)과 효성(孝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영예롭고 영예롭지 않은지.

D-5) 發越一鄉榮之而聞于學 四學榮之而聞乎。

d-5) 드디어 한 마을을 넘어 그 영예로움이 학계에까지 이르니, 사학(四學)에서도 이를 영예롭게 여긴다고 들었다.

E-1) 國乃褒之 而旌于門表以揭之 凡所爲榮何此加焉 山愈光而呈彩 松長青而更春。青松堂光山君之如在英靈 含笑於宜宜之中 期使寒門發榮 於無際 將不換朱門矣。時卽。

e-1) 나라에서 이를 포상하려고 문에다가 깃발을 내세워 이를 드러내었으니, 그 영예로움이 이에 어찌 더하리오. 산이 더욱 빛나는 것은 단풍이 물들 때이고, 소나무가 더욱 푸른 것은 봄을 맞이할 때인 것이다. 청송당(靑松堂)²³⁾ 광산군(光山君)이 영령(英靈)으로나마²⁴⁾ 여기에 있다면, 그 당당함에 미소를 머금을 것이며, 가난한 집안 사람이²⁵⁾ 영예를 드러내는 것을 기대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문(朱門)과²⁶⁾ 바꾸지 않으려 한 것이다.

23) 청송당(靑松堂) : 도응(都膺)을 말함.

24) 영령(英靈) :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

25) 한문(寒門) :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집안.

26) 주문(朱門) :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의 집.

치산치수비 治山治水碑

<전면>

治山治水之碑

江原道知事高尾基造書

치산(治山) 치수(治水)의 비(碑)

강원도(江原道) 지사(知事) 고미기조(高尾基造)가 씀.

문탄방살비 文灘防殺碑

文灘防殺碑

문탄마을(文灘)의 방살비(防殺碑)

M. P 오우덴 중령 현충비

단기 4284년 12월 12일~13일 황성지구 전투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과감히 싸우다가 애석하게 전몰한 주한 네덜란드군 부대장 마리뉴스·피·에이덴 오우덴 중령 이하 네덜란드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현충비를 건립함.

1956. 10. 12.

제1군사령관 육군대장 백선엽 세움

충혼탑 忠魂塔

바라볼수록 강산은 아름다운데
민족의 고난은 어찌 그리 많던고
그러나 아무런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한다
오직 조국을 위한 불타는 사랑
불의를 무찌르는 신념과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 왔었고
또 그대로 영원히 이끌어 가다가
1950년 6·25동란 이후로
월남의 반공전선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던져 피로서 항쟁한 이들
그 중에서 이 고을 군, 경, 청년들
화랑의 후예다운 정열과 의기로
이 땅 겨레의 거룩한 전통이 되어
천추만대에 사라지지 않으리니
영령들이여 찬송을 받으옵소서
여기 편히 쉬시옵소서
1968년 6월 6일
황성군 충혼탑 건립위원회 세움

3.1운동 기념비

1919(一九一九)년의 3·1(三·一)만세는 한일합방에 항거하는 통분한 함성이요, 자유와 국가를 되찾으려는 비상한 절규요,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국권을 유지 계승하려는 당당한 주장이었다.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의 구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거대한 불길의 폭발이었다. 그러므로 삼시간에 삼千里 방방곡곡에 번져 하늘이 뻗개지고 땅이 흔들릴 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이러한 정당한 평화적인 쫓겨남에 대하여 왜적의 탄압은 어떠한가, 잔인하고 악독한 살육과 형벌이었다. 이해 3(三)월 27(二十七)일 우리 횡성(橫城)에서는 수천 군민이 읍내 장터에 모여 장렬한 태극기의 물결을 이루었고, 잇따라 4(四)월 12(十二)일까지 사이에 각 면마다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던 중 하영현(河永賢)·강달회(姜達會)·전한국(全漢國)·강승문(姜勝文) 의사는 현장에서, 강만형(姜萬馨) 의사는 옥중에서 왜적의 총칼아래 순국의 영령이 되고 말았다. 이 숭고한 3·1(三·一)정신을 이어 받아 창간한 동아일보(東亞日報)는 유서 깊은 이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 그 거룩한 정신을 만대의 후손까지 길이 받들어 드높이려 한다.

1972(一九七二)년 8(八)월 15(一五)일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충혼비 忠魂碑

6·25사변을 도발한 북괴의 횡포가 극심하여 그 피해가 너무나 많은 지라 여기 고이 잠든 학병들은 사랑하는 고향을 지키고자 봉기하여 일어섰다. 연일 계속되는 격전 속에 수많은 적을 물리쳤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색의 짙음에도 오히려 꽃다운 소년들로 구성된 학병들의 의분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적진에 뛰어 들어 많은 북괴군을 무찌르고 그 어린 넋은 의로운 절개를 지켜 산화하였다. 그들은 고향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몸과 뜻을 바치었으니 그 거룩한 정신을 천추만대에 두고 길이 명복을 빌고 노래하리라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기미년 3·4월 민족의 자존을 짓밟으려는 일제에 항거하여 이 고을 모든 백성들은 일어섰다. 성난 분노는 노도와 같았고 거룩한 함성은 뇌성과도 같았다. 태극기는 하늘을 뒤덮고 의기는 하늘을 찔렀다. 1919년 3월 27일, 4월 1일과 2일 그리고 12일까지 횡성장터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고을 만세운동은 총칼의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여정의 시작이요 횃불이었다. 일제의 잔악한 살육에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겨레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 운동으로 하영현(河永賢)·강달회(姜達會)·전한국(全漢國)·강승문(姜勝文)·강만성(姜萬馨) 의사가 순국하고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더 많은 사람이 뜨거운 피를 흘리며 오로지 광복과 영광을 위한 씨알로 희생하였다. 그 숭고한 열과 녀을 기리며 이 비를 세워 영원히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1984년 11월 22일 횡성군수

강림 講林 의병총 義兵塚

이곳 강림의 의병총은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1907년 구 한국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선 백성들이 의병장 민궁호(閔肯鎬) 휘하에 모여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자신들을 불살랐다. 1908년 2월 29일을 전후하여 이곳 안흥면 강림 월현에서 일제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의병총은 그 당시 이곳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무연고 의병 열 분의 묘를 한 곳에 모아 총(塚)을 만들고 묘역을 정화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

1984년 11월 황성군수

금대리 琴垔里 의병총 義兵塚

<전면>

금대리의병총

<후면>

이곳 금대리(琴垔里)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 전투에서 순국하신 세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19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이곳 서원면(書院面)에는 700여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고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 경기, 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묘역을 정비하고 비를 세우다.

1989년 12월 5일 황성군수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충성과 용기를 신조로 삼는 ‘오렌지’공의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최양옥 崔養玉 공적비 功績碑

<전면>

愛國志士崔養玉先生功績碑

애국지사(愛國志士) 최양옥(崔養玉)¹⁾ 선생(先生) 공적비(功績碑)

<후면·측면>

선생(先生)의 자(字)는 길준(吉俊)이요 호(號)는 추강(秋岡)이니 본관(本貫)이 강릉(江陵)이다. 1893년(一八九三年) 음력(陰曆) 12월(十二月) 5일(五日)에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갑천면(甲川面) 화전리(花田里)에서 부친(父親) 최재건(崔在建) 공(公)의 장남(長男)으로 출생(出生)하였다.

1917년(一九一七年) 2월(二月)에 원주보통학교(原州普通學校)를 졸업(卒業)하고 그 해 3월(三月)에 서울의 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入學)하였는데 1919년(一九一九年)에 3·1운동(三一運動)이 일어나자 선생(先生)은 학교(學校)를 중퇴(中退)하고 고향(故鄉)으로 내려와 청년(靑年)들을 규합(糾合)한 뒤 천도교인(天道敎人)들과 함께 횡성(橫城)의 만세시위(萬歲示威)를 일으켰다. 시위(示威)가 격렬(激烈)해지자 왜경(倭警)들의 발포(發砲)로 사상자(死傷者)가 나고 검거(檢擧)가 시작(始作)되므로 선생(先生)은 이를 피(避)하여 상경(上京)한 후(後) 본격적(本格的)인 독립투쟁(獨立鬪爭)에 나서게 되었다.

1920년(一九二〇年) 7월(七月)에 선생(先生)은 서울 소격동(昭格洞)에서 신덕영(申德永)·노형규(盧衡奎) 등(等)과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組織)한 후(後) 농림주식회사(農林株式會社)의 주식모집원(柱式募集員)으로 가장(假裝)하고 전남(全南)의 담양(潭陽)·곡성(谷城) 등(等) 각지(各地)에서 군자금(軍資金)을 모집(募集)하여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로 보냈는데 이해 11월(十一月) 5일(五日)에 동지(同志) 노기준(盧其準) 등(等)과 함께 왜경(倭警)에게 체포(逮捕)되어 다음해 5월(五月) 7일(七日)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징역(懲役) 7년(七年)을 선고(宣告)를 받고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복역(服役)하다가 1926년(一九二六年)에 출감(出監)하였다.

이 후(後) 선생(先生)은 중국(中國)으로 망명(亡命)하여 산서성(山西省) 태원부(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南)·신덕영(申德永)·김정련(金正連)·이용화(李容華) 등과 공명단(共鳴團)을 조직(組織)하고 단장(團長)이 되었는데 1927년(一九二七年)에 북만주(北滿洲)에 독립군(獨立軍) 비행학교(飛行學校)를 설립(設

1) 최양옥(崔養玉) : 1893(고종 30) ~ 1983.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 호는 추강(秋岡). 강원도 횡성 출신. 1917년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 진학 당시 3·1운동 만세시위에 참가하였으며 그뒤 신덕영(申德永)·노형규(盧衡奎) 등과 동지가 되어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조달하는 등 활약하다가 1920년 11월 일본경찰에 붙잡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출옥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안창남(安昌男)·김정련(金正連) 등과 함께 대한독립군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하고 단장에 피선되었다. 1927년에는 비행사 안창남·김정련 등과 함께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비행학교(飛行學校) 설립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기금 모집과 공명단 지부를 서울에 설치할 목적으로 김정련·이선구(李善九)와 함께 1929년에 국내로 잠입하였다. 잠입 후 이들은 서울 교외 망우리(忘憂里) 근처에서 일제의 우편차를 습격하여 돈을 빼앗은 뒤 강원도 쪽으로 향하였으나 이를 추격한 일본경찰과 향전을 벌이다가 붙잡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에는 서울형무소 서무과장, 인천형무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國家報勳處, 1997).

立)하기로 계획(計劃)하고 그 기금모집(基金募集)과 공명단(共鳴團) 지부(支部) 설치(設置)를 목적(目的)으로 1929년(一九二九年) 4월(四月)에 서울에 잠입(潛入)하였다.

선생(先生)은 동지(同志) 김정련(金正連), 이선구(李善九)와 함께 같은 달(同月) 20일(二十日) 서울 근교(近郊) 망우리(忘憂里)에서 춘천(春川)으로 왕래(往來)하는 일제(日帝)의 우편수송차(郵便輸送車) 등(等)을 권총(拳銃)으로 습격(襲擊)하여 왜인(倭人)의 우편물(郵便物)을 소각(燒却)하고 많은 금품(金品)을 압수(押收)한 후(後) 천마산(天摩山)으로 종적(蹤迹)을 감추었다. 이 급보(急報)를 받은 일제(日帝)는 경기(京畿)·황해(黃海)·강원(江原)·충북(忠北)·충남(忠南) 등(等) 5도(五道)의 경찰(警察)과 왜군(倭軍) 19사단(十九師團) 병력(兵力)을 동원(動員)하여 천마산(天摩山)을 포위(包圍)하니 선생(先生) 일행(一行)은 이들을 상대(相對)로 망우리(忘憂里) 고개와 마치(磨峙)고개를 넘나들며 하루 밤낮(一晝夜)을 악전고투(惡戰苦鬪)하였으나 탄환(彈丸)이 떨어지고 기진맥진(氣盡脈盡)하여 왜경(倭警)에게 체포(逮捕)되었다.

그 후(後)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예심(豫審)을 거쳐 9월(九月) 20일(二十日) 선생(先生)은 10년(十年), 김정련(金正連)은 9년(九年), 이선구(李善九)는 5년(五年)의 징역(懲役)을 선고(宣告)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복역(服役)하였는데 이선구(李善九)는 옥중(獄中)에서 병사(病死)하고 선생(先生)은 만기출옥(滿期出獄)하였다.

광복 후(光復後) 선생(先生)은 서울 형무소(刑務所) 서무과장(庶務課長)으로 근무(勤務)하다가 승진(昇進)하여 인천형무소장(仁川刑務所長)으로 근무(勤務)한 후(後) 퇴직(退職)하였고 1983년(一九八三年) 음력(陰曆) 5월(五月) 4일(四日)에 사망하였다.

정부(政府)에서는 선생(先生)의 구국활동(救國活動)에 대하여 1962년(一九六二年) 3월(三月) 1일(一日)에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단장(單章)을 수여(受與)하였고 1967년(一九六七年) 2월(二月) 28일(二十八日)에는 건국훈장(建國勳章) 국민장(國民章)으로 변경(變更)하였으며 1990년(一九九〇年) 1월(一月) 13일(十三日)에는 건국훈장(建國勳章) 독립장(獨立章)으로 승격(昇格)하여 선생(先生)의 공적(功績)을 찬양(讚揚)하였다.

이제 횡성군민(橫城郡民) 일동(一同)은 선생(先生)의 애국정신(愛國精神)과 구국활동(救國活動)을 만세(萬歲)에 기리고 국민(國民)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하여 이 비(碑)를 세운다.

檀紀四三二五年壬申十一月二十日 文學博士 朴漢高 지음
橫城郡民一同 세움

1992년(단기 4325년 임신) 11월 20일 문학박사 박한설 지음. 횡성군민 일동 세움.

한상열 韓相烈 의사 義士 추모비 追慕碑

<전면>

韓相烈¹⁾義士追慕碑

한상열 의사 추모비

<후면·측면>

선생(先生)의 성(姓)은 한씨(韓氏)요, 이름은 상열(相烈) 혹(或)은 상열(相說)이요, 자(字)는 문극(文極)이니, 본관(本貫)이 청주(淸州)로서 시조(始祖) 태위(太尉) 위양공(威襄公) 란(諱蘭)의 32세손(三十二世孫)이요, 절도사(節度使公) 만손(諱萬孫)의 18대(十八代) 종손(宗孫)이다. 고종 13년(高宗十三年) 병자(丙子) 1876년(一八七六年) 4월(四月) 2일(二日)에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우천면(隅川面) 문암리(文岩里)에서 부친(父親) 한동수 공(韓東洙公)과 모친(母親) 연일 정씨(延日鄭氏)의 장남(長男)으로 출생(出生)하였다.

청소년(靑少年) 시절(時節)에 선생(先生)은 일제(日帝)의 한국병탄(韓國併呑) 야욕(野慾)이 노골화(露骨化)되고 을사5조약(乙巳五條約)을 능결(勒結)하자 이에 분개(憤慨)하여 민영환(閔泳煥)·조병세(趙秉世) 등(等) 자결(自決)하는 인사(人事)들이 속출(續出)하더니 다음 해에는 제2차(第二次) 의병(義兵)인 병오의병(丙午義兵)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의 의병(義兵)은 충청도(忠淸道)의 민종식(閔宗植) 선생(先生)과 전라도(全羅道)의 최익현(崔益鉉) 선생(先生)이 중심(中心)이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음 해인 광무11년(光武十一年)에 헤이그밀사사건(海牙密使事件)을 구실(口實)로 일제(日帝)가 고종황제(高宗皇帝)를 폐출(廢黜)하고 순종(純宗)을 즉위(即位)시킨 후(後)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強制)로 체결(締結)하고 한국군대(韓國軍隊)를 해체(解體)시키게 되자 마침내 전국적(全國的)인 의병(義兵)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제3차(第三次) 의병(義兵), 또는 정미의병(丁未義兵)이라 부른다.

이전(以前)의 을미의병(乙未義兵)이나 병오의병(丙午義兵)이 대체(大體)로 노장층(老壯層)의 유림지도

1) 한상열(韓相烈) : 1876(고종 13) ~ 1926. 조선 말기의 의병장·독립운동가. 일명 상열(相說). 자는 문극(文極). 강원도 횡성 출신. 동수(東洙)의 아들이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국군대 강제해산으로 국권이 일본에게 침탈되자 그 해 8월에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동지 200여 명을 규합한 뒤 향리인 횡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흥천·횡성·원주·지평·평창·영월 등지에서 반일투쟁을 전개, 일본군과 무려 500여 차례 걸친 전투를 통해서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고 무기·탄약 등을 노획하였다. 천성이 강직하고 불의에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을 타고났다. 1908년 4월 초 횡성 주둔 일본 수비대가 그의 처자를 납치한 뒤 협박하며 귀순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횡성을 습격하여 이들을 대경실색하게 하였다. 일제가 경술국치를 앞두고 의병에 대하여 일대탄압을 가하므로 국내에서의 의병운동 전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자, 의병부대를 해산하고 그뒤 1920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대한의용부·대한독립단 등 애국단체의 참모로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1926년 9월 19일 민족진영의 분열을 책동하던 주중청년총연맹(駐中靑年總聯盟)의 공산당원의 흉탄에 51세로 죽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金厚卿·申載洪, 韓國民族運動研究所,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國家報勳處, 1997).

자(儒林指導者)가 중심(中心)이 되었던데 비(比)하여 정미의병(丁未義兵)은 해산(解散)된 구한국군대(舊韓國軍隊)가 중심(中心)이 된 것으로서 군사(軍事)에 밝은 청년(青年)들이 앞장을 서는 의병(義兵)이었기 때문에 왜병(倭兵)의 피해(被害)도 전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그런데 정미의병(丁未義兵)은 원주진위대군사(原州鎭衛隊軍士)가 특무정교(特務正校) 민금호(閔肯鎬)를 중심(中心)으로 무기(武器)를 들고 일어나 왜병(倭兵)과 전투(戰鬪)를 벌인 후(後) 전국(全國)으로 확대(擴大)되게 되었다.

이때에 선생(先生)은 32세(三十二歲)의 청년(青年)으로 이웃 고을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남을 보고 자신(自身)도 의병(義兵)을 일으켜 왜적(倭賊)을 몰아내기로 결심(決心)하고 의병(義兵) 200여 명(二百餘名)을 모아 지평(砥平)·홍천(洪川)·원주(原州)·평창(平昌)·영월(寧越) 등지(等地)에서 적(敵)을 공격(攻擊)하여 다수(多數)의 왜병(倭兵)을 죽이고 무기(武器)와 탄약(彈藥) 등(等)을 노획(鹵獲)하였는데 왜적(倭賊)과의 교전(交戰)이 수백회(數百回)이며 군사(軍士)가 많을 때에는 천여명(千餘名)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特)히 무신(戊申) 1908년(一九〇八年) 2월(二月)에는 홍천(洪川)에서 왜군(倭軍) 대부대(大部隊)와 크게 접전(接戰)을 벌여 이를 격퇴(擊退)시키니 이에 분노(憤怒)한 일제(日帝)는 4월(四月) 2일(二日)에 횡성(橫城)의 일본수비대(日本守備隊)를 파견(派遣)하여 홍천군(洪川郡) 월운리(月雲里) 서북후동(西北後洞)에 은거(隱居)하던 선생(先生)의 가족(家族)을 납치(拉致)하여 놓고 선생(先生)에게 귀순(歸順)하라고 회유(懷柔)와 협박(脅迫)을 다하였으나 선생(先生)은 이에 굴(屈)하지 않고 오히려 이달 20일(二十日)에 부하(部下)를 거느리고 횡성읍(橫城邑)을 습격(襲擊)하여 왜적(倭賊)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後)로 일제(日帝)의 계획적(計劃的)인 대진압작전(大鎭壓作戰)으로 의병(義兵)의 피해(被害)가 커지면서 정미의병(丁未義兵)은 점차(漸次) 해산(解散)하게 되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후(後) 선생(先生)은 국내(國內)에서 항일투쟁(抗日鬪爭)이 불가능(不可能)함을 깨닫고 3·1운동(三一運動) 다음 해인 경신(庚申) 1920년(一九二十年)에 만주(滿洲)로 망명(亡命)하여 독립투사(獨立鬪士)들과 힘을 합(合)하고 대한의용부(大韓義勇府) 참모(參謀)로 활약(活躍)하였으며 병인(丙寅) 1926년(一九二六年) 2월(二月)에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참모(參謀)로 취임(就任)하여 항일투쟁(抗日鬪爭)을 계속(繼續)하던 중(中) 그 해 9월(九月) 19일(十九日)에 민족진영(民族陣營)의 분열(分裂)과 그들의 주도권(主導權) 장악(掌握)을 노린 좌익단체(左翼團體)의 흉탄(凶彈)에 맞아 돌아가시니 향년(享年)이 51세(五十一歲)였다

선생(先生)의 시신(屍身)은 동지(同志)들이 만주(滿洲) 길림성(吉林省) 훈춘현(琿春縣) 산채구(山菜溝)에 임시로 모시고(權厝)는 아직도 독립(獨立)된 고국(故國)에 반장(返葬)하지 못하시어 그 혼백(魂魄)이 만리타국(萬里他國)에 머물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痛歎)할 일이라 하겠다.

선생(先生)의 배(配)는 밀양 박씨(密陽朴氏)이며, 계자(系子) 정희(正熙)와 1녀(一女)를 두었고 정희(正熙)는 재진(載珍)·재화(載華)·재욱(載旭) 3남(三男) 3녀(三女)를 두었으며 재진(載珍)은 영호(英鎬)·

장호(章鎬)·경호(敬鎬) 3남(三男)과 1녀(一女)를 두고 재화(載華)는 4녀(四女)를 두고 재욱(載旭)은 아들 창호(昌鎬)와 1녀(一女)를 두었다.

정부(政府)에서는 선생(先生)의 애국정신(愛國精神), 항일투쟁(抗日鬪爭)의 공로(功勞)를 표창(表彰)하기 위(爲)하여 계묘(癸卯) 1962년(一九六二年)에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단장(單章)을 추서(追敍)하였다.

이 제 선생(先生)의 장손(長孫) 재진씨(載珍氏)가 선생(先生)의 묘소(墓所)를 고국(故國)으로 반장(返葬)치 못함을 애통(哀痛)히 여기어 그 추모(追慕)의 정(情)을 만분의 일(萬分の一)이나마 위로(慰勞)하고자 선생(先生)의 고향(故鄉)마을에 이 비(碑)를 세우니 선생(先生)의 혼백(魂魄)은 이 돌에 의지(依支)하여 고국(故國)으로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빈다.

檀紀四三二五年 十月 十日

江原大學校 教授 文學博士 朴漢高 謹撰

大韓民國 光復會 江原道 支部 後援

江原道 橫城郡守 柳在珪 後援

淸州韓氏 節度公派 宗親會 謹立

義士追慕碑 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韓宗熙

一九九三年六月二十六日 謹立

1992년(단기 4325년) 10월 10일 강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박한설이 삼가 짓다.

후원 : 대한민국 광복회 강원도 지부, 강원도 횡성군수 유재규.

청주 한씨 절도공파 종친회에서 삼가 세움.

의사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중희.

1993년 6월 26일 삼가 세움.

태종대 太宗臺

太宗臺

先生事蹟略記弁岩

太宗大王訪。耘谷元先生 自覺林避入弁岩。上駐輦于此 官其子賞其婢而返篤。

後人因以名之。崇禎後八十年癸卯夏刻。

태종대

선생의 사적을 간략하게 기록함(변암).

태종 대왕께서 방문하시자, 운곡 원천석 선생은 각림사(覺林寺)에¹⁾ 계시다가 (이를) 피하여 변암(弁岩)으로²⁾ 피하여 들어가셨다. 대왕께서 이곳(태종대)에 수레(輦)를 멈추게 하고, 그 아들에게 관직을 주고³⁾ 노비를 상으로 준 다음, 돌아가셨다. 후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태종대라고 부른다.⁴⁾

1723년(崇禎後八十年 癸卯) 여름에 새김.

-
- 1) 각림사(覺林寺) : 치악산 동쪽에 있다. 태조 이성계가 잠저에 있을 때에 여기에서 글을 읽었다. 뒤에 횡성에서 강무(講武)할 때에 임금의 수레를 이 절에 멈추고 옛 늙은이들을 불러다 위로하였으며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주(州)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조세부역 따위를 면제하여 구휼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卷46 원주목 불우.
 - 2) 변암(弁岩) : 운곡 원천석이 은둔생활을 했다고 전하는 굴바위. 운곡시사를 보면, 변암 남쪽 봉우리 아래 새 초가집을 짓고, 그 이름을 누출재(陋拙齋)라고 했다고 한다.
 - 3) 관기자(官其子) : 원천석의 둘째아들 원형(元炯)에게 기천현감(基川縣監, 경북 풍기)을 제수한 것을 말함.
 - 4) 태종대(太宗臺) : “선생은 우리 태종(太宗) 대왕께서 즉위하시기 전의 바로 그 스승이시다. 선생께서는 고려 정치가 쇠퇴하는 것을 보고 치악산(雉巖山)에 숨어 사셨는데, 명나라 건문(建文) 경진년(1400)에 태종 대왕께서 왕위를 이어받자 가장 먼저 대관(大官)으로 선생을 모시려 했지만, 선생께서는 응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대왕께서 300리 길을 달려 몸소 선생의 집까지 찾아오셨지만, 선생께서는 역시 피하고 만나지 않으셨다. 대왕께서도 선생이 끝내 굽히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 형(炯)에게 기천현감(基川縣監, 경북 풍기)의 벼슬을 내리셨다. 또 옛날에 밥 짓던 계집종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 동안이나 문 앞의 돌에 앉아서 서글피 생각하셨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고 하였다.” 정장(鄭莊), 「耘谷先生文集序」.

구연(媼淵)

媼淵。

구연(媼淵)¹⁾

1) 구연(媼淵) : 운곡시사에 정홍순이 쓴 시에서 처음으로 구연(媼淵)이 보인다. 1995년에 작성한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는 구연(媼淵)에 대해, 운곡이 태종의 행차를 미리 알고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늙은 할멈(老媼)에게 손님이 나를 찾거든 이 강물을 따라갔다고 하라는 부탁을 하고 자신은 변암 쪽으로 올라갔는데, 과연 태종이 와서 묻자 늙은 할멈은 운곡의 말대로 하였는데, 나중에 태종임을 알고 그대로 강물에 투신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취석 醉石

醉石。

취석(醉石)¹⁾

1) 취석(醉石) : 최문발(崔文潑)의 호.